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성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권이선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조선후기 수원 양반 가문의 세거 양상

The Residential Types of the Yangban Classes in Suw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최성환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2월 31일

발행 2017년 12월 31일

디자인 디자인펌킨 Tel. 031-893-8315-7

I S B N 979-11-87778-91-2 (9391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성환. 2017. 「조선후기 수원 양반 가문의 세거 양상」.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 국문 요약

전근대 시기 수원 지역의 주요 가문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조사와 언급에 따라 진행되어 수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원 사람’ 들을 종합한 연구 성과는 아직 없다. 다만, 수원 및 화성 소재 박물관들의 주도로 전근대 수원부에 세거하였던 몇 개의 가문들에 한정하여 고문서 및 고문헌 수집 작업이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수원에 세거하였던 사람들의 특징을 밝히는 데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아직 지역사 연구 여건이 마련되지 상황과 축적된 기초 자료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시 수원부에 세거하였던 가문들을 엮어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이다.

전근대 시기 중 정조~고종대는 수원의 기본 골자가 갖추어져 가는 시기로, 특히 정조대 이래 수원의 변화상은 수원이라는 지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지금의 수원과 연결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갈 수 있는 시기이다.

당시 수원에 세거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정보는 호적 자료, 족보, 연대기 문헌 사료, 문무과 방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들 자료 중에서 특히 정조~고종대에 수원부를 세거지로 하여 소과 및 문·무과에 응시한 사람들을 선별 한 후, 기존에 진행되었던 조사 결과와 족보 및 연대기 문헌 사료를 종합하여 심층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을 놓고 수원으로 이주한 집단과 본래부터 수원에 세거하였던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원으로 이주한 집단은 수원(水原)·화성(華城)을 세거지로 하여 정조대와 그 이후에 과거(科擧)에 입격 및 급제하면서 새로이 수원 지역에 세거한 가문이다. 본래부터 수원지역에 세거한 집단은 선대의 분묘를 누대 수원에 조성하면서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등재되었던 가문을 수원 세거 가문으로 설정하였다.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함께 수원의 위상이 격상되는 정조대와 이 시기에 수원으로 이주한 집안과 그 이전부터 수원에 세거한 가문들 간의 관계를 이들에 세거 지역과 분묘의 위치 변화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수원 이주 가문 중에는 정조가 실시한 수원부내(府內) 유생 응제시(應製試)에 참여한 가문이 많으며, 이들의 후손 중 다시 본래의 세거지인 한성, 충청도 일대로 돌아간 경우도 있으나 정조의 서거 이후 수원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던 후대에도 수원 읍치를 벗어나 외촌에 세거하며 과거에 응시하는 사례도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정조 시기부터 고종대까지 근대 시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수원 지역을 주도한 유력한 문무반 가문의 주요 계파와 그 인적 구성 및 세거 공간을 살펴, 수원 신읍치 건설과 함께한 수원의 위상과 ‘수원 사람’ 들의 세거 및 이주 양상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원부, 수원 세거 가문, 수원 이주 가문, 수원 출신 과거합격자 등

# | 차례 |

- 제1장 서론 ..... 1
- 제2장 수원 세거 가문의 분포와 특징 ..... 5
  - 제1절 수원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 5
  - 제2절 수원 세거 가문의 특징 ..... 9
- 제3장 수원 이주 가문의 분포와 특징 ..... 41
  - 제1절 수원 이주 가문의 분포 현황 ..... 45
  - 제2절 수원 이주 가문의 특징 ..... 46
    - 1. 한성지역 ..... 46
    - 2. 충청·경기지역 ..... 54
- 제4장 결론 ..... 119
- | 참고 문헌 | ..... 121

# | 표 차례 |

- <표 2-1> 수원부 세거 가문의 분포 ..... 5
- <표 2-2> 광산김씨 도헌공파(都憲公派) ① ..... 9
- <표 2-3> 광산김씨 도헌공파(都憲公派) ② ..... 11
- <표 2-4> 서광수서돈순 가계도 ..... 13
- <표 2-5> 청주한씨 장도공파 ..... 15
- <표 2-6> 청주한씨 참판공파 ..... 17
- <표 2-7> 청주한씨 등계공파 ..... 18
- <표 2-8> 풍양조씨 도사공파; 들목조씨 ① ..... 20
- <표 2-9> 풍양조씨 과거(科擧) 이력 ..... 22
- <표 2-10> 풍양조씨 조흥목(趙興默) 차정첩 ..... 23
- <표 2-11> 풍양조씨 도사공파; 들목조씨 ② ..... 24
- <표 2-12> 풍양조씨 증 장령공(贈掌令公) 익상파(益祥派) ..... 25
- <표 2-13> 여주이씨 ① ..... 27
- <표 2-14> 여주이씨 ② ..... 30
- <표 2-15> 여주이씨 과거(科擧) 이력 ..... 32
- <표 2-16> 반남박씨 오창공파 박사원·정원 가계 ..... 33
- <표 2-17>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 34
- <표 2-18> 경주김씨 태사공파(太師公派) 재신공후(宰臣公后) ..... 37
- <표 2-19>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① ..... 38
- <표 2-20> 반남박씨 세양공파 ..... 40
- <표 2-21> 함평이씨 함성군파 ① ..... 42
- <표 2-22> 함평이씨 함성군파 ② ..... 44
- <표 3-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 46
- <표 3-2> 청송심씨 안효공파 여주공[우정]파 ..... 49
- <표 3-3> 동래정씨 직제학공 사파 ..... 51
- <표 3-4> 동래정씨 과거(科擧) 이력 ..... 52
- <표 3-5> 안동권씨 시중공파 ..... 54
- <표 3-6> 안동권씨 참의공파 ..... 55
- <표 3-7> 안동권씨 추밀공파 ① ..... 56

<표 3-8> 덕수이씨 .....	59	<표 3-39> 반남박씨 오창공파 .....	110
<표 3-9> 덕수이씨 이택의 수원 유생 시취 .....	61	<표 3-40> 대구서씨 ① .....	111
<표 3-10> 덕수이씨 이노공의 응제 현황 .....	61	<표 3-41> 대구서씨 ② .....	113
<표 3-11> 해주오씨 추탄공파 .....	63	<표 3-42> 대구서씨 ③ .....	115
<표 3-12> 평강채씨 소감공파 ① .....	66	<표 3-43> 함양여씨 ① .....	116
<표 3-13> 평강채씨 소감공파 ② .....	67	<표 3-44> 함양여씨 ② .....	117
<표 3-14> 청송십씨 인수부윤공파 과천공[금]파 .....	69	<표 3-45> 함평이씨 대교공파 .....	118
<표 3-15> 청송십씨 안효공파 온양공[인겸]파 .....	70		
<표 3-16> 청송십씨 안효공파 관관공[제겸]파 .....	72		
<표 3-17> 청송십씨 안효공파 정읍공[현]파 .....	73		
<표 3-18> 청송십씨 안효공파 사평공[응]파 .....	75		
<표 3-19> 청송십씨 심정로·심일로·심동운·심화운의 응제 현황 .....	76		
<표 3-20> 청송십씨 인수부윤공파 참봉공[현]파 .....	77		
<표 3-21> 기계유씨 .....	79		
<표 3-22> 기계유씨 유평주·유백환·유증환 응제 현황 .....	81		
<표 3-23> 나주정씨 월헌공파 .....	81		
<표 3-24> 풍천임씨 ① .....	83		
<표 3-25> 풍천임씨 ② .....	86		
<표 3-26> 풍천임씨 임우상·임정상 응제 현황 .....	87		
<표 3-27> 풍천임씨 ③ .....	89		
<표 3-28> 연안이씨 금곡공파 .....	92		
<표 3-29> 연안이씨 첨사공파 .....	94		
<표 3-30> 한양조씨 .....	95		
<표 3-31> 배천조씨 .....	97		
<표 3-32> 영월엄씨 ① .....	99		
<표 3-33> 영월엄씨 ② .....	102		
<표 3-34> 청주한씨 공안공파 ① .....	104		
<표 3-35> 청주한씨 공안공파 ② .....	105		
<표 3-36> 청주한씨 공안공파 ③ .....	106		
<표 3-37> 경주김씨 태사공파(太師公派) 좌랑공후(佐郎公后) .....	107		
<표 3-38>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② .....	108		

## | 그림 차례 |

<그림 2-1> 수원부 북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	6
<그림 2-2> 수원부 중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	7
<그림 2-3> 수원부 남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	8

## 제1장 서론

1990년대 이후 전문 역사학자들이 지역사 연구에 종사하면서 지역에 따라 훌륭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새롭게 형성된 근대 주도층의 활동 양상과 근대적 공간과 지역 사회 형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사 연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매우 멀고 험하다. 가장 큰 난점은 중앙의 역사가 아닌 지역사 차원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장삼이사(張三李四)’ 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물들과 지역사 차원에서만 의미가 부각되는 ‘소지역’ 과 ‘소공간’ 들에 대한 기초 자료가 아직 체계적으로 축적·파악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인물·단체를 대상으로 토지조사부, 호적 문서, 족보, 신문 자료, 구술 등 동원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소지역의 연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초 자료들은 거의 조사연구되지도 않은 채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 후기 수원 지역에 세거하였던 주요 양반 가문의 계통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거 지역을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실, 아직까지 전근대 시기 수원 지역에 세거하던 주요 양반 가문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가문 소장 고문서 자료집과 『○○마을지』 편찬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후손들의 인터뷰 및 가장 고문서에 의거하여 축적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조사 지역이 현재의 수원, 그것도 현재까지 조사 대상 지역에 종친회가 남아 있는 가문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역사는 근현대 산업화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지역 기반은 파괴되고 가문들은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 위주의 수원 세거 가문 연구가 전근대 수원 지역을 주도한 주요 가문들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근대 수원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원 세거 주요 가문들의 현황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작업은 승정원일기, 대소과 방목, 족보 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여 전근대 수원의 주요 양반 가문들의 세거 현황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전근대 시대에 수원 유수부의 읍치(邑治), 곧 수원 화성의 성곽 내 지역은 수원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전근대 시대에 읍치 공간은 해당 지역을 움직이는 유력 가문의 세거지가 아니었다. 이는 전근대 조선이 집권적 봉건체제로 형성되었고, 봉건 지배층의 구성원인 양반 사대부들이 읍치 밖의 농업 지대를 다양한 형태의 농장(農庄)으로 구축하고 그 생산물을 왕경과 연계하여 유통시키면서 출사(出仕) 준비와 출사 이후 생활의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조권에 기반한 과전체제가 붕괴하고 소유권에 근거한 농장 조성 과 종법(宗法) 질서가 구축되는 16~17세기 무렵에 전국적으로 뚜렷해진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원의 외촌 지역 가운데에서 농업에 적합하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유통권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반 사대부 가문의 주요 세거지가 16~17세기까지는 일단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수원의 세거(世居) 가문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수원은 전근대 조선에서 여타 지방 도시들에 비하여 주요 가문들의 이입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로 인한 것이었다. 정조의 수원 육성책은 단지 수원의 도시적 발전 뿐 아니라 읍치의 주민 구성까지 별경(別京)에 걸맞는 위상으로 향상시키려는 구상 하에 진행된 사업이었다.<sup>2)</sup> 이를 위하여 정조는 수원 화성 읍치에 수원의 외촌은 물론이고 한양과 경기·충청, 그리고 멀리는 전라·경상도 세거 양반 가문까지 이주하여 축실(築室)을 유도하는 적극적 유인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조대 후반 수원에는 많은 수의 양반 사대부 가문이 이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수원의 이주(移住) 가문으로 파악하였다.

이렇듯 전근대 수원은 누대 세거하거나 이주한 양반 사대부 가문들이 지역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비록 정조의 수원 육성 정책은 그의 급작스런 서거와 함께 무산되어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때에 조성된 도시농업 기반 시설의 덕택에 수원은 한말~근대 전환기에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말에는 경부 철도의 부설로 경기 남부에서 새로운 중심성을 확보하는 등 수원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수원 지역에는 기존의 구 읍치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수원역 주변까지 확장된 지역이 근대 도시 수원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촌 지역 보다는 읍내 지역의 중심성이 훨씬 강화되는 변화가 동반되었다. 근대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중심 공

1) 김세영 등 저(著), 『수원시 읍전동지』, 수원문화원, 2005 ; 허홍범 등 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 왕현중 등 저, 『화산동지』, 화성시, 2006 ; 허홍범,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문서』, 화성시, 2008 ; 이동근 등 저, 『수원시 북수원지』, 수원박물관, 2010 ; 이근호 등 저,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화성문화원, 2010 ; 장필기 등 저, 『분화전에 뿌리 내린 장군의 후에 합평이씨 함성군과 종손가』, 화성문화원, 2011 ; 김용국 등 저, 『수원시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 김민석 등 저, 『서문동·담동지』, 수원박물관, 2013 ; 이상균 등 저, 『수성씨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흔들리니』, 화성시, 2013 ; 정해은 등 저, 『최고의 무장, 외로운 무신 화성 무신의 삶과 역사』, 화성시 향토박물관, 2014 등.

2)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구상」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수원시정연구원, 2016.

간의 형성과 기존 지배층의 교체를 동반한 새로운 주도층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 때 근대를 주도한 세력은 전근대 이래의 다양한 사회적 계층적 연원을 기반으로 하되, 근대적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원 지역의 유력한 가문에 대한 기초 조사가 미흡하여 수원 지역을 주도했던 주요 가문들의 변화상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근대적 유지층의 형성 차원으로 설명할 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원 지역에서 축적된 지역사의 성과나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와 문·무과 방목 및 족보 자료 등을 발굴하여 수원에 세거하였던 주요 인물들의 가문적 연원과 세거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근대 수원 지역을 주도한 양반 사대부들의 가문적 연원과 그들의 주요 세거 지역 및 시기는 물론 그 변화 양상까지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말~근대 전환기에 새롭게 수원의 주도층으로 부상하는 인물들의 가문적 연원과 세거 양상을 비교한다면 수원 지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좀 더 역동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제2장 수원 세거 가문의 분포와 특징

### 제1절 수원 세거 가문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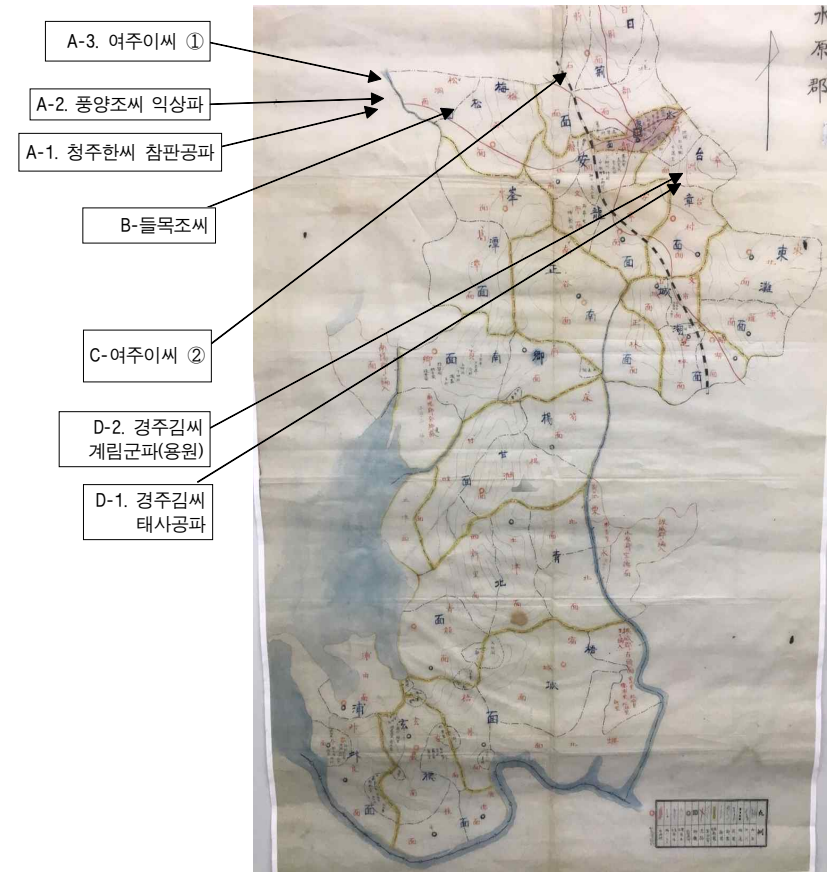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수원부 읍치를 기준으로 수원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일형면·매송면·태장면·안룡면·동탄면·성호면 및 수원 인근 지역인 반월면을 수원부 북부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남면·봉담면·향남면·양감면, 용인, 남양을 수원 중부권으로, 나머지 청북면·오성면·현덕면·포승면은 수원부 남부권으로 설정하였다.

들목조씨, 함평이씨와 같이 분묘의 위치 및 세거지가 일정한 경우 외에도 같은 집안의 한 파(派)일지라도 분묘의 위치가 일정치 않은 집안이 있다. 이 경우 수원을 거주지로 하여 과거(科擧)에 급제한 인물을 기준으로 선영(先塋)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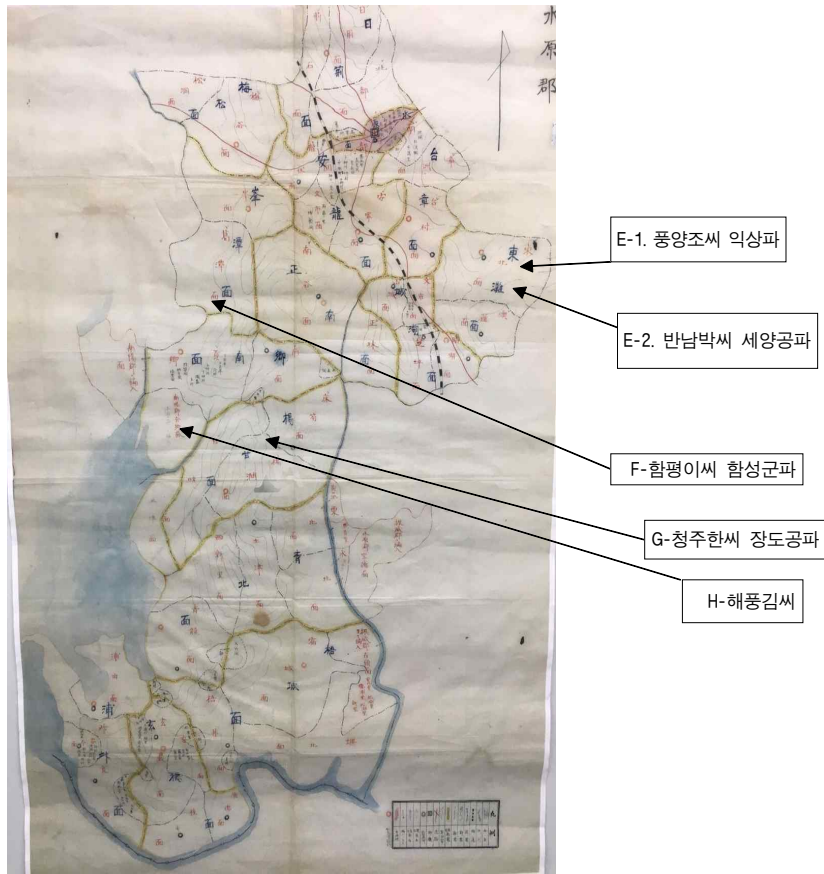
수원에 세거한 가문들의 분묘 위치는 크게 반월면(A), 매송면(B), 일형면(C), 태장면(D), 동탄면(E), 봉담면(F), 양감면(G), 우정면(H), 오성면(I), 청룡면(J), 토진면(K)으로 구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수원부 세거 가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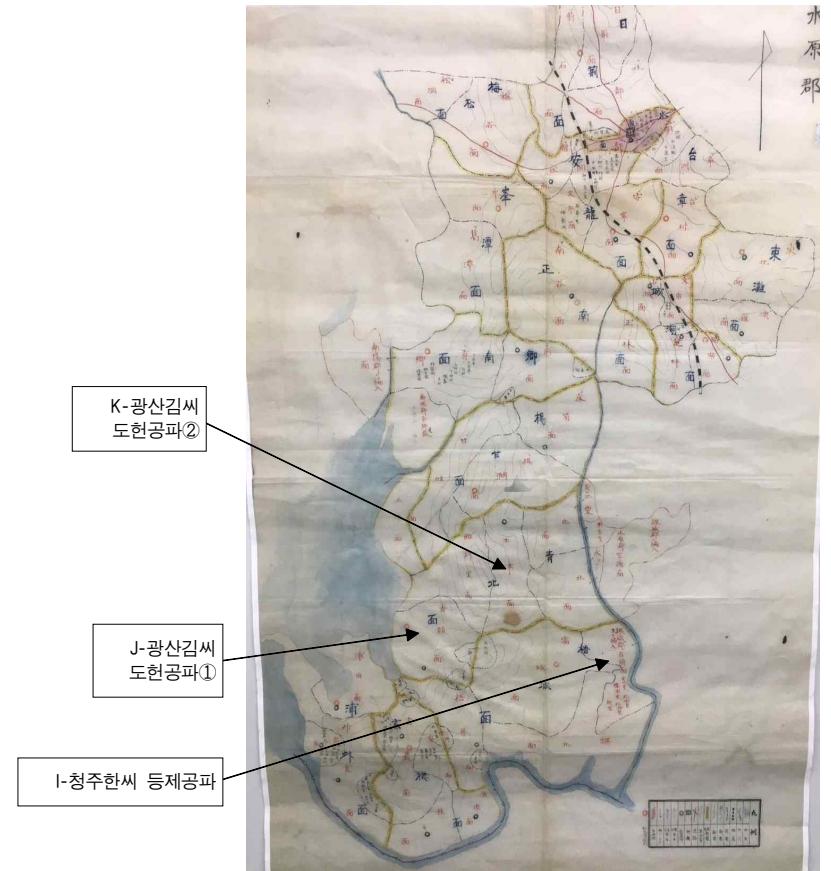
	수원부 북부권	수원부 중부권	수원부 남부권
가문	A-1. 청주한씨 참판공파 A-2. 풍양조씨 익상파 A-3. 여주이씨 ① B. 풍양조씨(들목조씨) C. 여주이씨 ② D-1. 경주김씨 태사공파 D-2. 경주김씨 계림군파(용원)	E-1. 풍양조씨 익상파 E-2. 반남박씨 세양공파 F. 함평이씨 함성군파 G. 청주한씨 장도공파 H. 해풍김씨	I. 청주한씨 등재공파 J. 광산김씨 도헌공파① K. 광산김씨 도헌공파②



<그림 2-1> 수원부 북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그림 2-2> 수원부 중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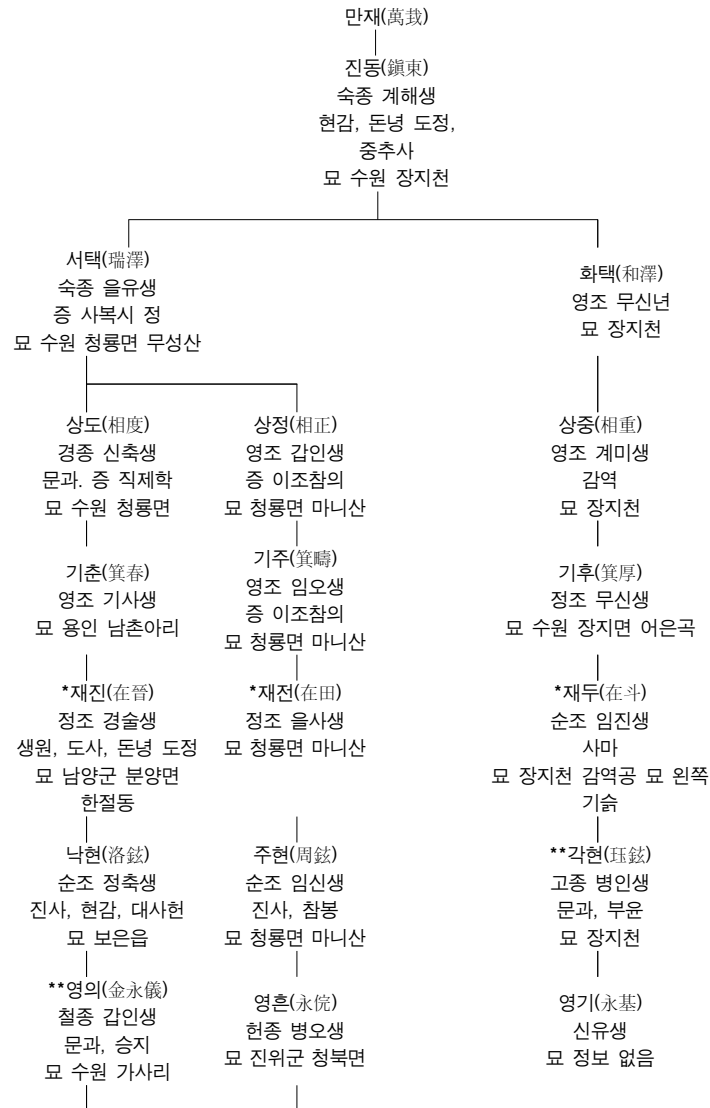


<그림 2-3> 수원부 남부권 세거 가문의 분포 현황

## 제2절 수원 세거 가문의 특징

### 1. 광산김씨

<표 2-2> 광산김씨 도헌공파(都憲公派) ①



인수(寅洙) 고종 경인생 묘 정보 없음	창수(昌洙) 고종 신사생 묘 청룡면 후사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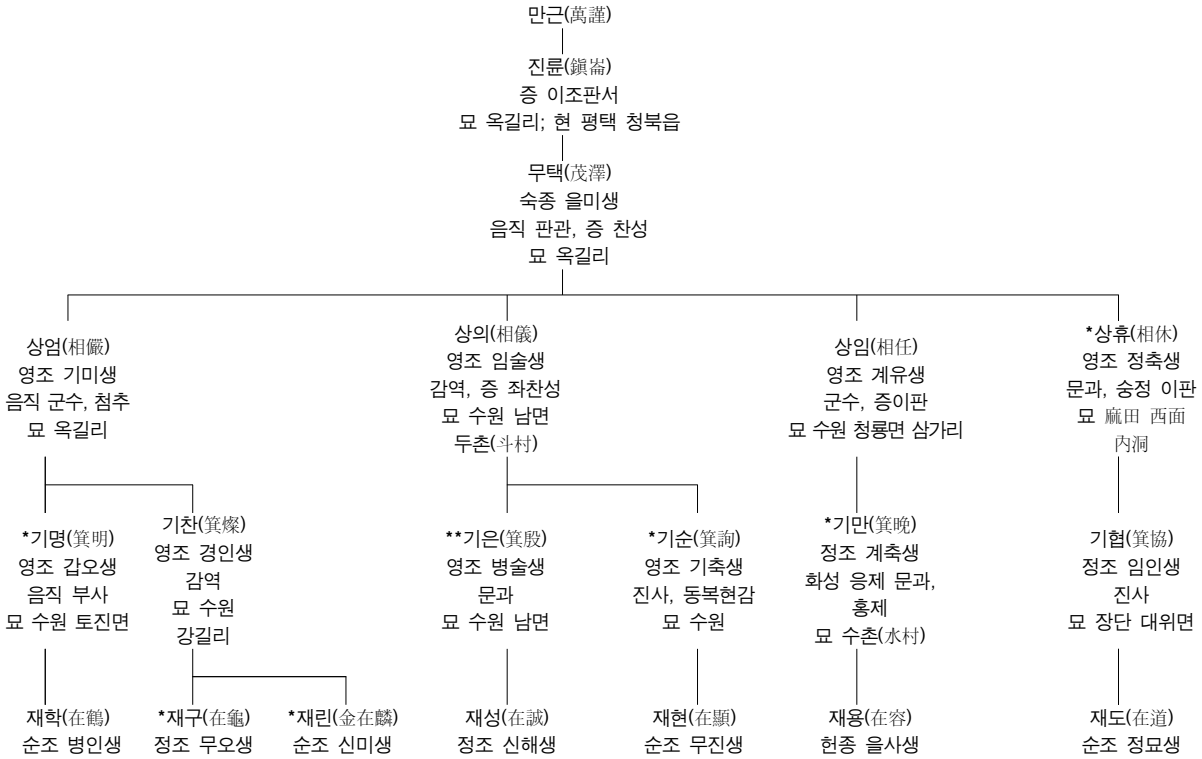
광산김씨 도헌공파 김재진, 김재전, 김재두, 김각현, 김영의는 수원 출신 과거합격자들로 공통적으로 김만재의 자손이다. 김만재의 아들 김진동은 묘가 수원 장지천(長枝川)에 있는데 진동 이후로부터 그 자손들의 묘역도 수원 청룡면과 장지천에 누대 조성되었다. 김진동의 아들은 다시 계열이 김서택과 김화택으로 나누어진다. 김서택 후손들의 묘역은 수원 청룡면 일대이고, 화택의 후손은 수원 장지천으로 묘역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

이 집안은 김진동의 4세손부터 대거 과거에 입격·급제를 한다. 먼저 김재진은 순조 25년(1825) 생원에 입격하고 김재전은 순조 30년(1830) 문과, 김재두는 고종 1년(1864)에 진사가 된다. 김재두의 아들 김각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종 28년(1891) 문과에 합격한다. 김각현은 고종 30년(1893)에 새로 부교리(副校理)에 제수되는데 당시 거주지도 수원으로 나온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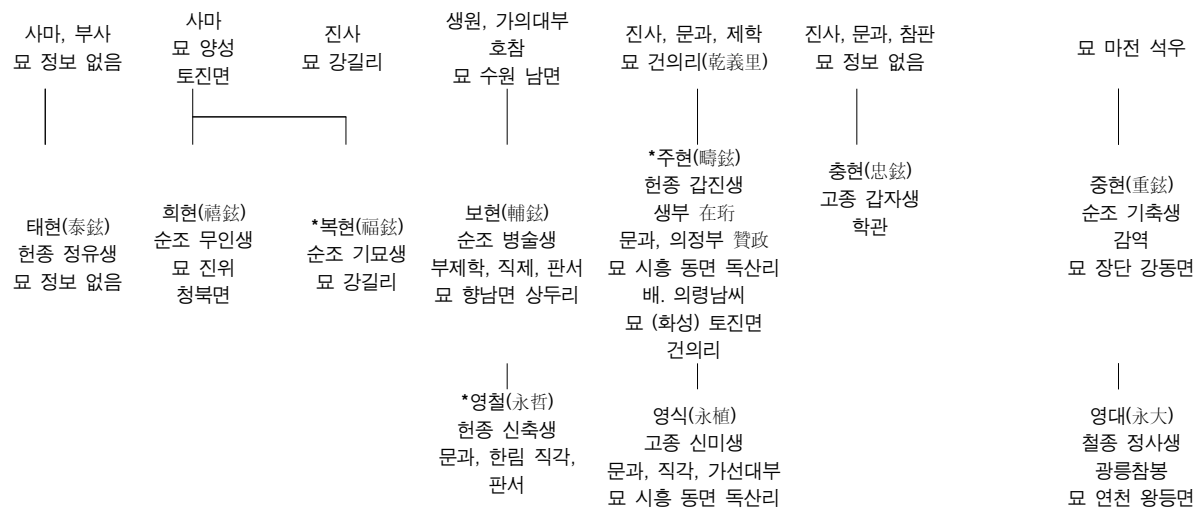
김재진의 손자 김영의는 세거지가 수원출신으로 고종 25년(1888) 문과에 급제한다. 다만 김영의에 아버지 김낙현이 철종 10년(1859)에 진사시에 입격할 때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다. 김재진-김낙현-김영의로 이어지는 삼대의 과거 급제시기를 놓고 보면 1825년-1859년-1888년이다. 조부 김재진과 손자 김영의 사이는 총 63년의 간극이 있고, 김재진과 김낙현 사이는 34년, 김낙현과 김영의는 29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잡을 때 30년으로 잡는다. 조부와 손자 사이는 60년이 넘고, 둘 다 모두 거주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김낙현은 순조 17년(1817)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김재진이 처음 생원시에 입격하였을 당시 9살이었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수원에서 세거하였을 것이다. 김낙현이 진사에 입격한 나이는 43세로 특정 시기에 잠깐 한성에 세거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가는 수원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6월 27일.

<표 2-3> 광산김씨 도헌공파(都憲公派)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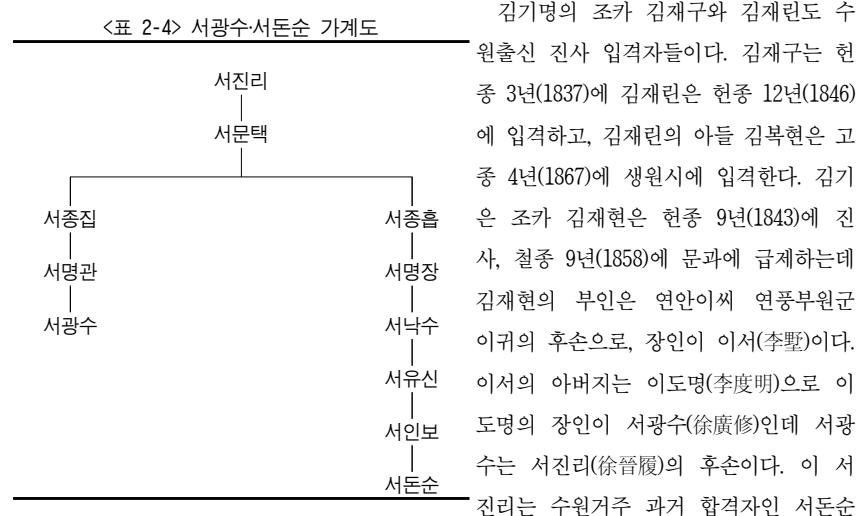
12 | 조선후기 수원 양반 가문의 세거 양상



김상휴, 김기명, 김기은, 김기순, 김기만, 김재구, 김재린, 김주현, 김영철은 수원세거 과거합격자들로 모두 김만근의 자손이다. 김만근의 아들 김진륜의 묘는 현 평택 청북읍인 옥길리에 있고 진륜의 아들 김무택의 묘도 옥길리에 있으나 그 다음 대부터 점차 수원 남면, 청룡면, 토진면, 감길리 등 수원 곳곳에 묘소가 자리하게 된다.

김만근의 자손 중 수원세거자로 첫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은 김기은이다. 김기은은 정조 23년(1799)년 문과에 화성 거주자로 급제하고, 김기은의 동생 김기순은 순조 16년(1816) 진사시에 수원 거주자로 입격한다. 김기은 숙부인 김상휴는 순조 3년(1803) 증광시 문과에서 화성 거주자로 급제한다. 김상휴의 또 다른 조카 김기명은 수원거주자로 순조 16년(1816) 진사시에 입격하고, 김기만은 순조 28년에 거주지가 수원으로 문과에 합격한다.

김기은의 경우 문과에 응시하기 전부터 수원에서 거주하였고 과거를 치른 후에도 여전히 수원에서 세거하였다. 먼저 정조 17년(1793) 12월에 김기은이 부(賦) 과목에서 삼하를 받아 미 5말과 백력 1건을 사급 받은 기록이 있어,<sup>4)</sup> 과거를 치르기 6년 전부터 수원에 세거하였음이 확인된다. 순조20년(1820)에 송사렴(宋祥濂)이 좌부승지 김기은이 지금 수원에 있으므로 역마를 타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啓)하는 기록이 있어<sup>5)</sup>, 벼슬길에 나가서도 여전히 수원에서 세거하였다.



김기은 증손 김영철과 김기순의 손자 김주현은 수원출신 과거 급제자는 아니나 『승정원일기』에서 재수원(在水原) 인물로 등장한다. 고종 21년(1884)에 조동필(趙東弼)이 새로 제수 된 행 우부승지(行右副承旨) 김영철이 지금 수원에 있으므로[時在水原地]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왕에게 계하였으며, 김주현도 고종 20년(1883) 시강원(侍講院)에서 새로 제수된 필선(弼善) 김주현이 지금 수원에 있으므로[時在水原地] 속히 올라오도록 함이 어떻겠냐고 계하였다.<sup>6)</sup>

김영철은 고종 9년(1872) 문과에 급제할 때 거주지가 한성이며 김영철의 아버지 김보현 또한 현종 14년(1848) 문과 급제 시 거주지가 한성이다. 보현의 아버지 김재성도 순조 16년(1816) 생원시에 입격하였을 때 거주지가 한성이다. 김주현도 김영철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여주는데 고종 17년(1880)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이때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있고, 김주현의 아버지 김재현 역시 철종 9년(1858) 문과급제 시 거주지가 한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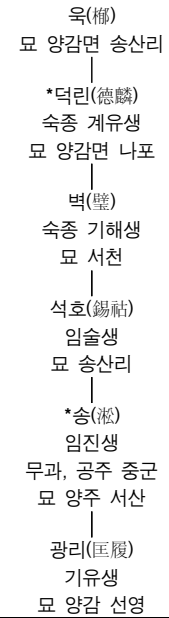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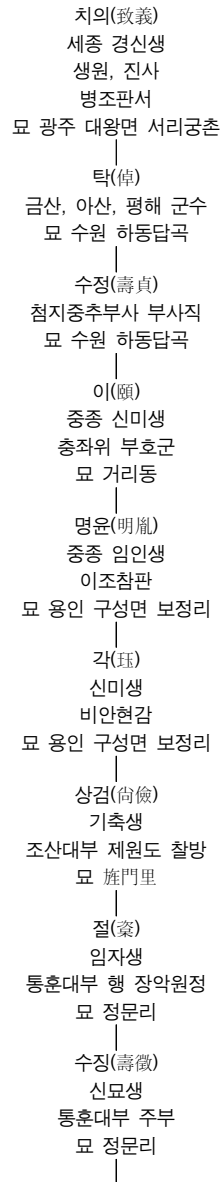
김기은과 김기순의 이후 후손들이 나란히 한성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한성출신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먼저 김기은과 김기순의 아버지인 김상의에 묘가 수원 남면 두촌에 안치된 후 김기은, 김기순, 김재성, 김재현, 김보현, 김주현은 모두 묘가 수원에 조성되었다. 또한 김영철과 김주현은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보듯이 벼슬을 제수 받을 때도 수원에서 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선대의 묘역이 있는 수원에 세거하면서 때때로 벼슬이나 여타의 이유로 한성에 머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성록』 정조17년 12월 26일.  
5)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5월 21일.

6)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9월 16일, 『승정원일기』 고종 20년 4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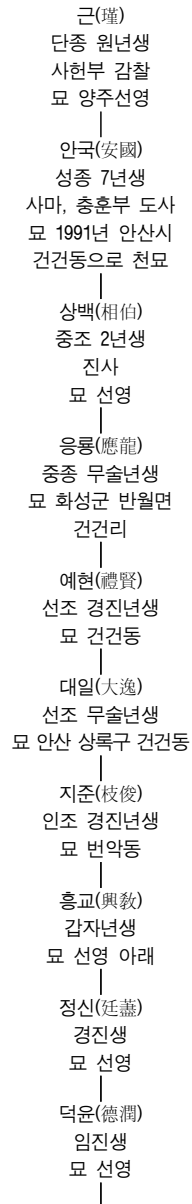
2. 청주한씨

<표 2-5> 청주한씨 장도공파



한덕린은 수원에 거주하며 영조 9년(1733)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한송은 정조 19년(1795) 수원에 거주하면서 무과에 급제한자이다. 이들의 선영은 대대로 수원과 화성 일대에 있었다. 한치의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그 아들 한탁이후 한명윤과 한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묘가 수원 하동답곡, 화성 정문리, 송산리, 양감면에 있었다. 한명윤과 한각의 묘역도 용인에 있었는데 수원 인근지역이다. 이처럼 한덕린과 한송 가문은 누대 수원에 선영을 조성하면서 수원에 세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바탕 위에서 한덕린은 진사시에 한송은 무과에 급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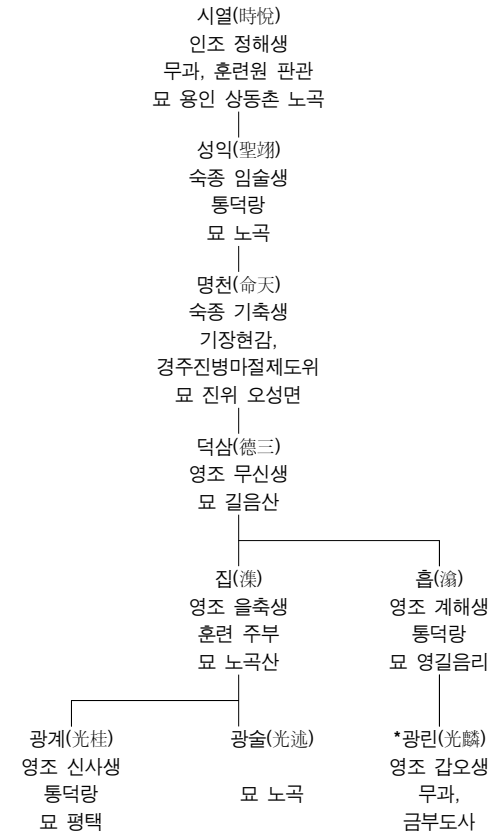
<표 2-6> 청주한씨 참판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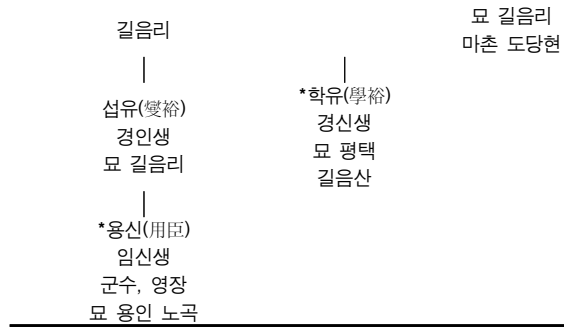


\*상정(象鼎)  
1766년생  
생원  
묘 작구곡

한상정은 순조 19년(1819) 생원시에 입격한 수원출신자이다. 한상정이 속한 청주한씨 참판공파도 청주한시 장도공파처럼 조선초기부터 화성에 세거한 집안이다. 한근과 그 이전의 선대는 양주에 선영이 있었으나 그 후대로 내려가면 모두 건건리에 선영을 조성하였다. 이로 미루어 한상정의 집안은 수원에서 누대 선영을 가꾸면서 세거한 집안으로 추정된다. 이후 후손들의 묘소도 선영에 자리하고 있다.

<표 2-7> 청주한씨 등제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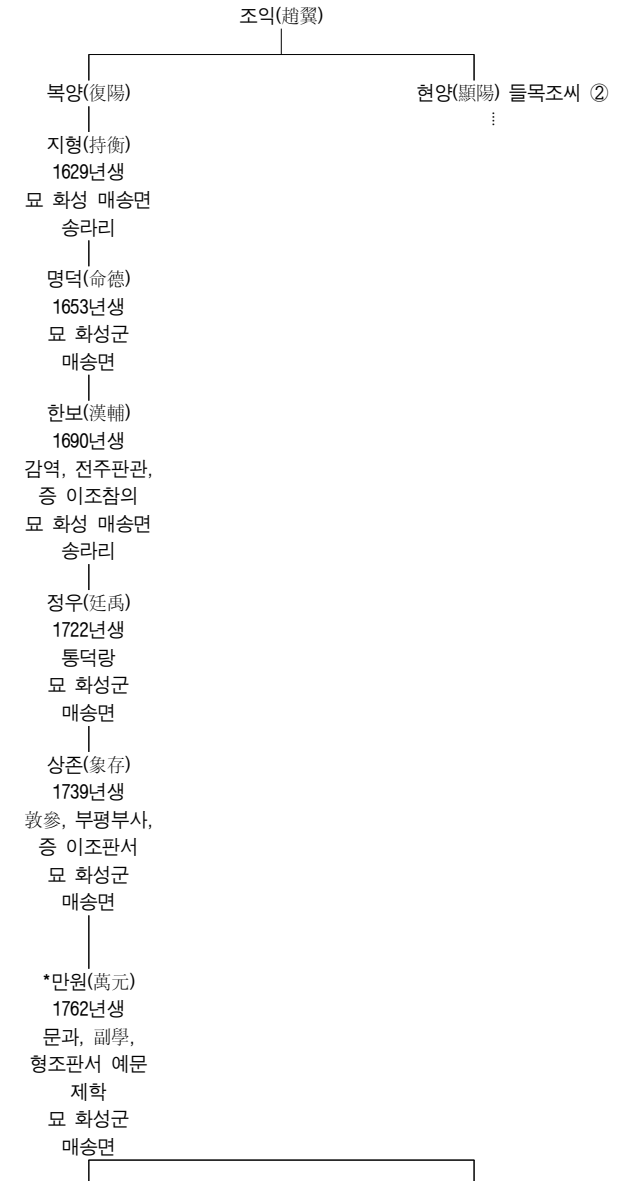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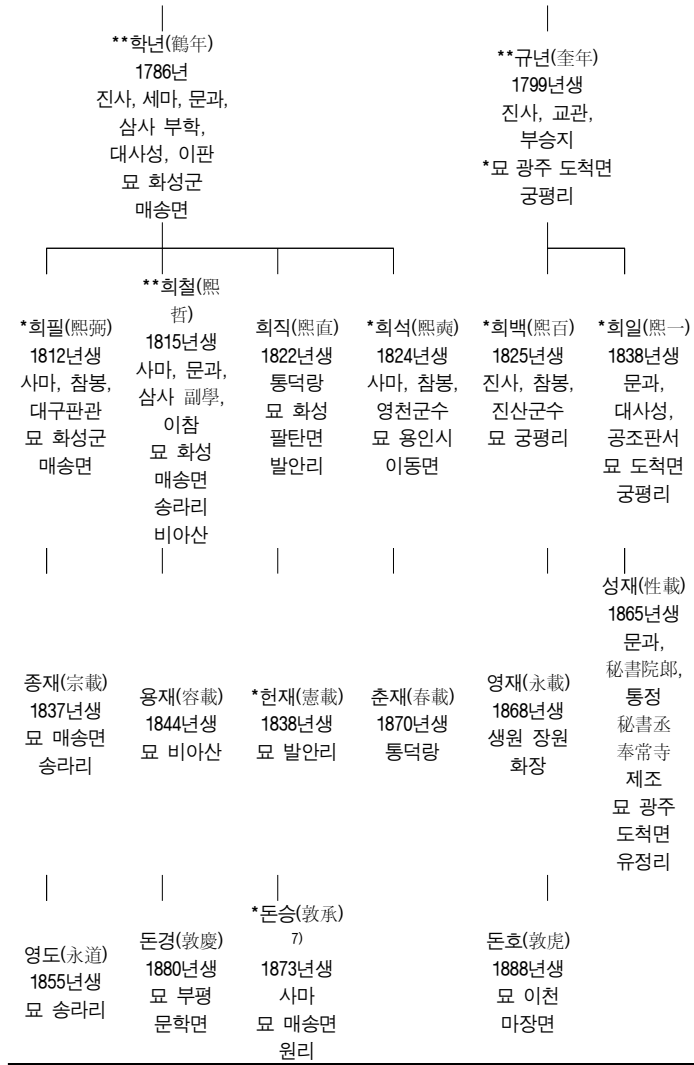
한광린, 한학유, 한용신은 모두 청주한씨 등제공파 한덕삼의 자손이다. 한용신과 한광린은 6촌간이며, 한용신과 한학유는 5촌간이다. 한광린은 정조 24년(1800) 무과에 급제할 때 거주지가 화성이었으며, 한학유도 동년 같은 무과에 응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화성이었다. 한용신은 순조 29년(1829)에 수원 거주자로 무과에 등제(登第) 된다. 청주한씨 등제공파의 선영은 용인 노곡, 진위 등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용인에 선영을 조성하고 당 때에는 묘를 오성면(五城面) 길음리, 진위 근방에 조성하면서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를 보는 집안이다.

### 3. 풍양조씨

<표 2-8> 풍양조씨 도사공파(都事公派); 들목조씨 ①







조선시대에는 자신들의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모여 살며 세거지를 형성하였는데 이때 그 세거지명을 따서 다른 파(派)와 구별 지었다. 예컨대 여기서 살피 볼 들목조씨도 풍양조 씨중에서 화성시 매송면과 비몽면 일대에서 세거해온 가문이다.

들목조씨 인물 중 성리학으로 명망 높은 조익에게는 조복양과 조현양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여기서는 조복양의 후손들부터 살펴보겠다. 조복양의 후손 중 수원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총 10명으로 여타 수원에 세거하며 등제(登第)한 여타의 가문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인원이 많다.

먼저 조만원을 시작으로 조만원의 아들인 조학년과 조규년 그리고 조만원의 손자 대에서는 조희필, 희철, 희석, 희백, 희일이, 증손자 대에 현재가, 고손자에서는 둔승이 수원화성을 세거지로 하여 방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9> 풍양조씨 과거(科擧) 이력

성명	과거 종류	시기		세거지
		시점	연도	
조만원	문과	정조(正祖)	18년(1794)	화성
조학년	진사	순조(純祖)	19년(1819)	수원
	문과	순조(純祖)	28년(1828)	수원
조규년	진사	순조(純祖)	25년(1825)	수원
조희필	진사	헌종(憲宗)	3년(1837)	수원
조희철	문과	헌종(憲宗)	10년(1844)	수원
조희석	진사	헌종(憲宗)	12년(1846)	수원
조희백	진사	철종(哲宗)	6년(1855)	수원
조희일	문과	철종(哲宗)	9년(1858)	수원
조헌재	진사	철종(哲宗)	10년(1859)	수원
조둔승	생원	고종(高宗)	31년(1894)	수원

가장 먼저 화성에서 문과에 급제한 조만원과 고종 31년에 생원시로 입격한 조둔승과의 시기 차이는 100년이므로 과거(科擧)에 합격한 시기의 세거지만 놓고 보아도 들목조씨가 수원에 세거한 것은 최소 100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만원의 경우 정조 14년(1790)부터 수원 유생의 자격으로 응제시에 참여하여 전(箋)과목에서 삼하(三下)를 받아 장지(壯紙) 2권을 받은 기록이 있다.<sup>8)</sup> 또한 이때 조만원이 향시에서 수석을 하였으나 호적이 누락되어 제적되자 정조의 특명으로 부내(府內)에 집을 지었고, 2년 뒤 정조가 화성에 거둥하면서 배푼 시험에서 뽑혀 진사가 되었다.<sup>9)</sup> 따라서 문과에 급제한 정조 18(1794) 이전부터 수원에 세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조성한 선대의 묘역을 살펴보면 조지형의 묘가 화성 매송면 송라리에 안장

7) 조둔승은 방목에 나오는 조영신(趙永新)으로 추정된다. 방목에 따르면 조영신의 양부는 조헌재(趙憲載), 생부는 조봉재(趙鳳載)이며, 본생가의 형은 조돈하(趙敦夏)이다. 돈하는 풍양조씨 족보에서 돈규(敦圭)로 나온다.

8) 『일성록』 정조 14년 3월 10일.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된 후 9대를 이어 묘역이 화성 매송면에 있다. 즉 들목조씨는 조만원 이전부터 수원 및 화성 지역에 선영을 조성하면서 세거해온 집안이였다.

이는 들목조씨 집안에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만원이 정조 17년(1793) 9월에 실시된 응제시의 시험 결과를 발표한 수원응제방(水原應製榜)에서 31세의 나이로 이하일(二下—)의 성적을 받았는데 조만원의 주소가 수원 북리(北里)로 되어있다. 이 주소는 후대까지 이어지는데 광무 11년(1907)에 들목조씨의 후손인 조흥묵(趙興默)을 도집장으로 임명하는 수원군수의 차정첩(差定帖)에서도 나타난다.

<표 2-10> 풍양조씨 조흥묵(趙興默) 차정첩

원문	번역
本郡爲差定事 本面都 執綱差下爲去乎 不輕察 任爲宜事 合行 照驗施行 須至帖者 右下趙興默 準此 居松洞 光武十一年一月 日 [帖]	본군(本郡)에서 차정(差定)하는 일이다. 본면(本面)의 도집강(都執綱)으로 임명하니,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임무를 살피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마땅히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帖)이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첩(帖)을 조흥묵(趙興默)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송동(松洞)에 세거함. 광무(光武)11년 1월 일. [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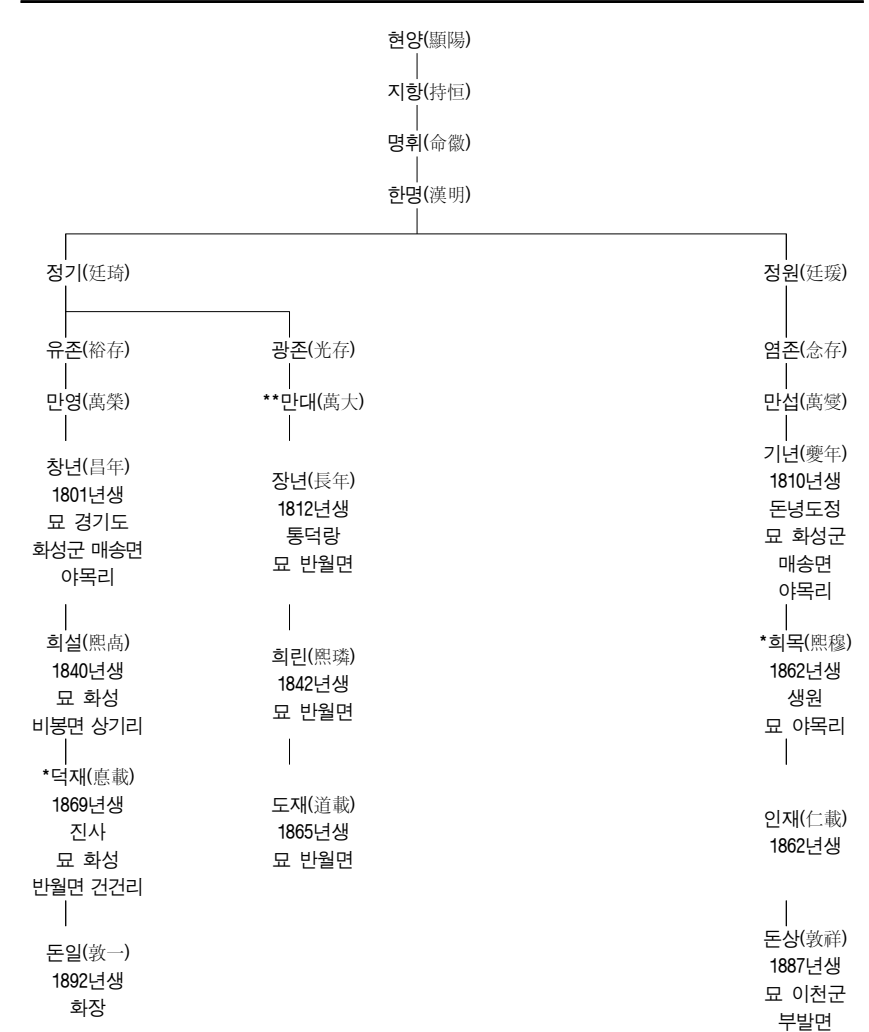
조흥묵이 세거한 송동면은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야목리·원리 일대인데 들목조씨 선영이 있는 송라리와 겹치며 매송면의 경우 수원읍치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원이 세거하던 북리는 매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조만원의 아버지 조상존의 준호구(準戶口)에는 조상존이 당시 화성부 장안동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아들, 며느리, 동생, 조카며느리 등과 함께 세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이를 통해 조만원의 아버지 조상존가 수원 장안동에 동생 내존(來存)과 함께 세거하였다.

10) 순조 22년(1822) 조만원에게 발급된 준호구에 조만원의 주소가 화성부 송동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들목조씨 집안에 현존하는 토지매매명문 중에서 수원 송동면에 소재한 땅을 산 명문과 배지[牌旨]가 다수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들목조씨는 자신들의 세거지와 선영 근처의 토지를 끊임없이 매매하며 대대로 수원 송동면에서 살아 왔음이 확인된다.

11) 정조 19년(1795) 조상존 준호구, 정조 21년(1797) 조상존 준호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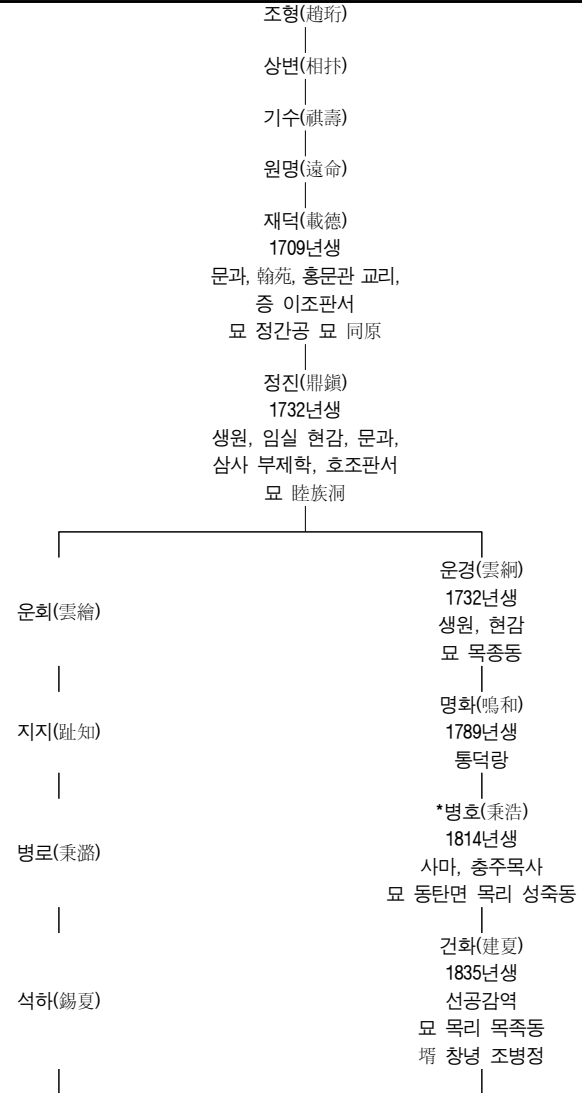
<표 2-11> 풍양조씨 도시공파(都事公派); 들목조씨 ②



조현양의 후손인 조만대, 조희목, 조덕재는 수원세거 과거합격자들이다. 조만대는 정조 14년(1790) 생원시, 조희목은 고종 25년(1888) 생원시, 조덕재는 고종 25년(1888)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조만대의 경우 정조 대에 7차례 수원 유생의 자격으로 응제시에 참여하여 사은(賜恩)을 받았다. 가장 이른 시기는 정조 14년(1790) 부(賦) 과목에서 차상(次上)을 맞아

미 7두를 받았다.<sup>12)</sup> 조현양의 후손들의 묘역은 화성군 매송면, 반월면으로 수원 일대이다. 이들 역시 수원에 세거하던 수원 출신 가문으로써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다.

<표 2-12> 풍양조씨 증 장령공(贈掌令公) 익상파(益祥派)



12) 『일성록』 정조 14년 12월 11일.

*동오(東五) 1874년생 진사 묘 동탄면 오산리 묘 화성군 반월면	*동관(東寬) 1843년생 묘 정보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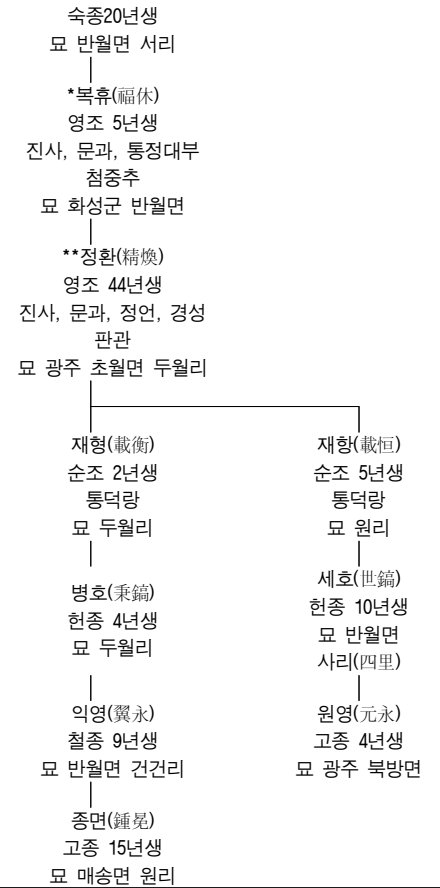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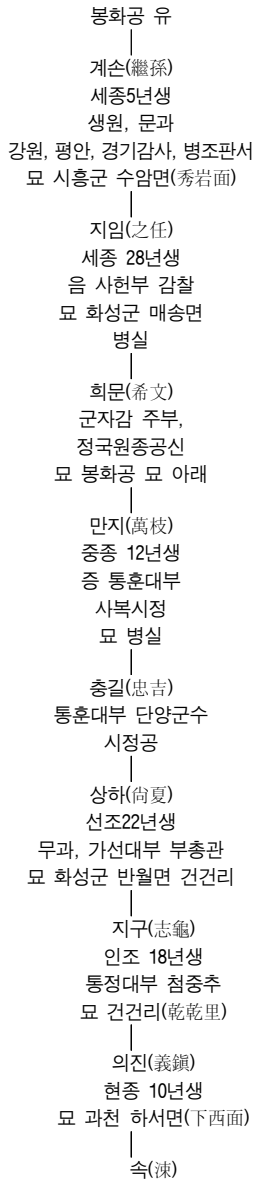
들목조씨 외에 수원에 세거하던 풍양조씨로는 증 장령공 익상파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조병호, 조동오, 조동관은 수원출신 과거(科擧) 입격자들이다. 조병호는 방목에 조연호(趙然浩)로 기재되어 있는데 철종 5년(1855)에 진사시, 조동오는 고종 31년(1894) 진사시, 조동관<sup>13)</sup>은 고종 1년(1864)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이들의 묘역은 동탄면 목리, 화성군 반월면으로 이들 역시 들목조씨처럼 수원에 묘역을 조성하며 살아 온 풍양조씨 가문으로 보인다. 조병호에게는 조건화라는 아들이 있는데 조건화의 사위는 창녕 조병정(曹秉楨)으로 조병정의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경승(慶承), 조부는 판서를 역임한 석여(錫興)이다. 이 계열은 조석여 → 조용진(曹龍振) → 조운대(曹允大) → 조명준(曹命峻) → 생父 조하망(曹夏望)인데 조하망은 화성세거 생·진사에 입격한 조홍진(曹鴻振)의 증조이다.

13) 방목에 나오는 조용(趙壩)이 조동관으로 추정된다. 방목에 따르면 조용은 출계(出系)하였는데, 생부는 조연호(趙然浩) 즉 조병호이다. 풍양조씨 족보에 따르면 조병호의 아들 셋 중 양자로 나간 사람은 조동관이다. 조동관의 양부는 조용하(趙庸夏), 조부는 조병천(趙秉天), 증조는 조건화(趙晉和)이다. 방목에 조용의 조부는 조연천으로 나오나 이는 조병천을 조연천으로 잘못 기재한 듯하다.

4. 여주이씨

<표 2-13> 여주이씨 ①



수원세거 과거 합격자인 이복휴, 이정환 부자는 수원 출신으로 특히 이정환은 진사시에 입격하는 정조 22년(1798)에 거주지가 화성이었다. 그 이전인 정조 16년(1792)에는 수원유생으로써 응제시에 응하여 부(賦) 과목에서 차상을 맞아 세찬미 5말을 하사받았고, 그 다음 해인 1793년에도 부 과목에서 차상을 받아 미 3말을 받았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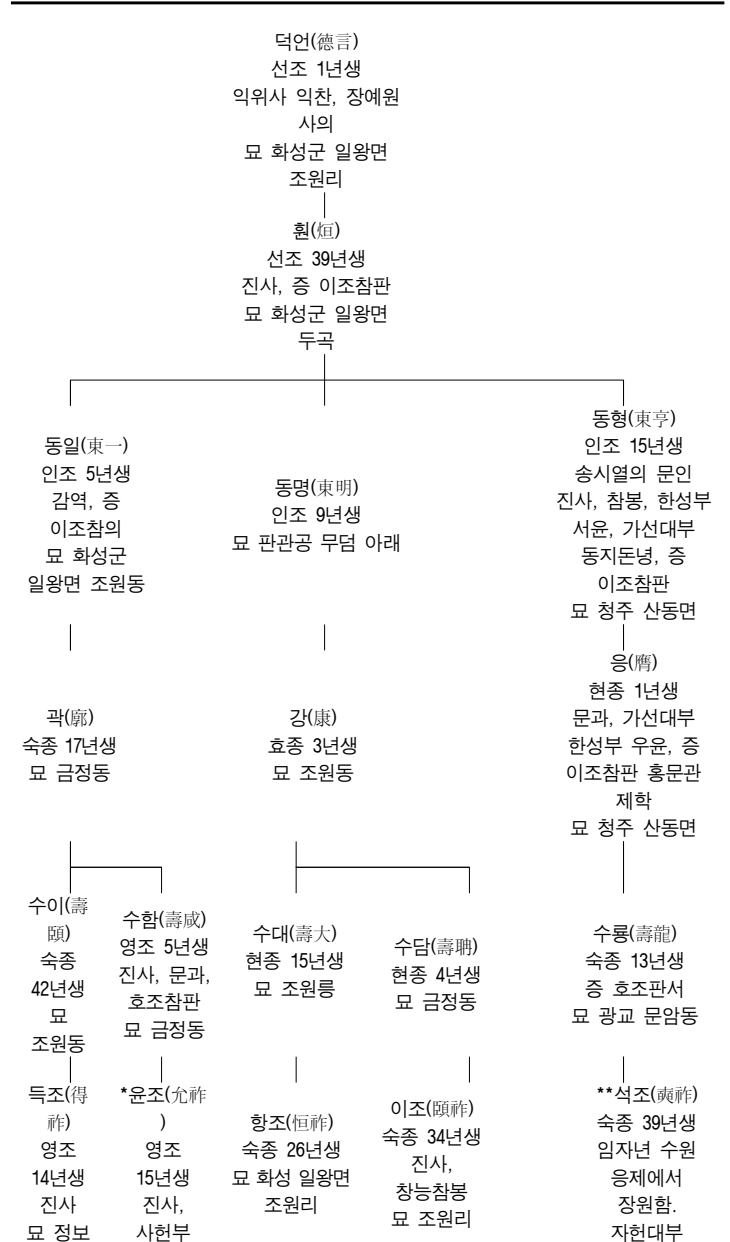
이정환은 곧 『국조방목』에 나타나는 이현장(李炫章)이라는 인물과 동일인물이다. 이현장은 화성을 세거지로 하여 순조 4년(1804)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국조방목』에 따르면 이현장의 아버지 이름도 이복휴이다. 이현장과 이정환은 생몰연대도 같고, 아버지 이름도 같을 뿐 아니라 『여주이씨 족보』에 이정환의 휘(諱)가 이현장(李炫章)으로 기록되어 있

14) 『일성록』 정조 16년 12월 13일, 정조 17년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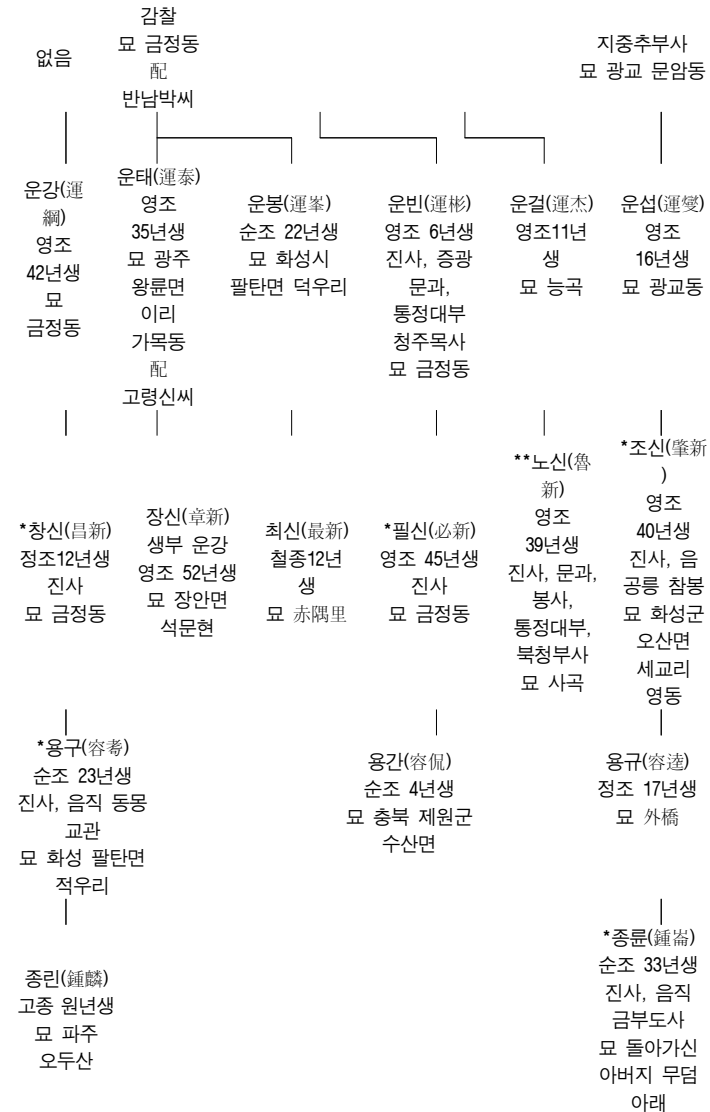
다. 그렇다면 이정환은 정조대뿐만 아니라 순조시기도 수원에서 세거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정환의 아버지 이복휴도 정조시기에 수원에 세거하고 있었다. 정조 14년(1790)에 정조가 감찰의 망단자[望筒]를 가지고 홍문영(洪文泳)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이복휴의 죄가 작을 뿐 아니라 당초에 특별히 내린 명령 또한 이복휴의 원래 거처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이니 어찌 그대로 낙사(落仕) 시키겠냐며 전 감찰(監察) 이복휴를 영임(仍任)하라고 하였다.<sup>15)</sup> 이를 통해 이복휴가 1790년 이전부터 세거지가 수원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이복휴 선대의 묘역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초기부터 이복휴 가문의 선영이 화성군 매송면, 반월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복휴 본인의 묘도 화성군 반월면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주이씨 이복휴 집안은 조선전기부터 수원, 화성일대에서 선영을 조성하고 세거해 온 집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14> 여주이씨 ②



15)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1월 23일.



청도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일왕면 일대에 자리하였다. 즉 이윤조 외 7명의 수원출신 과거 응시자들의 선조는 조선중기부터 선영의 묘역을 화성에 조성하면서 금양수호 해왔고, 본인들의 묘도 화성에 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5> 여주이씨 과거(科擧) 이력

성명	과거 종류	시기	세거지
이윤조	진사	순조(純祖) 1년(1801)	화성
이석조	문과	정조(正祖) 18년(1794)	수원
이창신	진사	순조(純祖) 13년(1813)	수원
이필신	진사	순조(純祖) 10년(1810)	화성
이노신	진사	정조(正祖) 22년(1798)	화성
	문과	순조(純祖) 5년(1805)	화성
이조신	진사	순조(純祖) 4년(1804)	수원
이용구	진사	고종(高宗) 17년(1880)	수원
이종륜	진사	고종(高宗) 2년(1865)	수원

이들 중 가장 먼저 세거지를 수원으로 하여 소과에 응시한 사람은 이노신으로 그 시기는 정조 22년(1798)이다. 그러나 응제시까지 합치면 이석조가 가장 먼저 수원 외촌 유생의 자격으로써 시험에 응시하였다.

『일성록』 정조 16년(1792) 기사에 따르면 외촌(外村)의 유생 시취에서 삼상을 맞은 유학 이석조는 만 80세의 노유(老儒)로 등제(等第)에서 삼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장원(壯元)이라고 쓰고, 내년 봄 행행(幸行)할 때에 전시(殿試)에 입격한 사람의 예에 따라 대(臺) 위에 따로 앉혀서 지어 바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석조에게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sup>16)</sup> 정조 21년(1797)에는 이노신이 명(銘) 과목에서 초삼하(草三下)를 맞아 감시 회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sup>17)</sup>

이상 방목과 일성록의 기록을 통해 보면 여주이씨 이휘의 후손들은 최소 정조 16년 이전부터는 수원과 그 외촌 지역에서 세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 선대의 묘역은 선조시기부터 화성일대에 있었다. 또한 응제시 기록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석조는 노유(老儒)였기 때문에 본인 당대에 이주했다고 보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정착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석조의 조부와 증조는 묘가 충청도에 있었으나 고조는 화성에 묘가 있었고, 아버지와 본인의 묘는 수원 광교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오랜 시간 이전부터 이석조 집안도 수원에 세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여주이씨 집안과 수원출신 과거합격자들의 집안은 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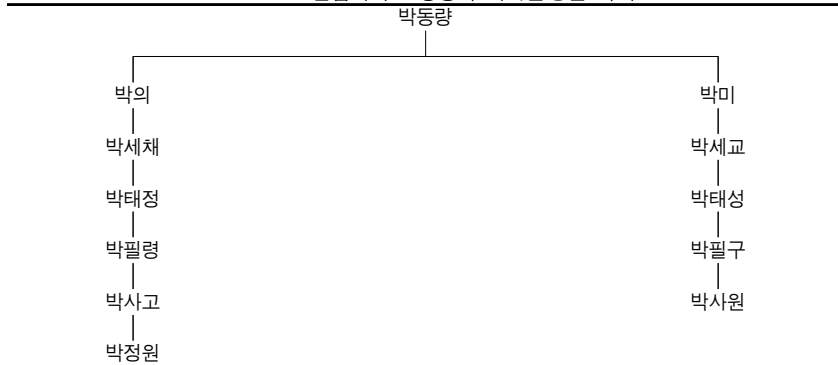
16) 『일성록』 정조 16년 12월 13일.

17) 『일성록』 정조 21년 9월 12일.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응시한 이윤조, 이석조, 이창신, 이필신, 이노신, 이조신, 이용구, 이종륜의 공통 조상은 17세 이휘이다. 이휘와 그 아버지 이덕언은 선조시기의 인물로 이덕언부터 묘가 화성군 일왕면에 자리하고 있다. 그 이후 후손들의 묘소는 간혹 충

이윤조의 처가는 반남박씨로 장인은 박사원(朴師元)이다. 이 박사원의 장인은 광주이씨 이회창(李會昌)이다. 이회창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령(令)을 지낸 신(薰)이며, 조는 만징(萬徵), 증조는 이존(以存)이다. 이이존은 수원을 세거로 과거에 급제한 이기형(李基馨)의 증조가 된다. 또한 수원출신 진사시 입격자인 박정원과 이윤조의 장인 박사원은 같은 반남박씨 오창공파로 이 둘은 13세 동량이 공통조상이다. 이 둘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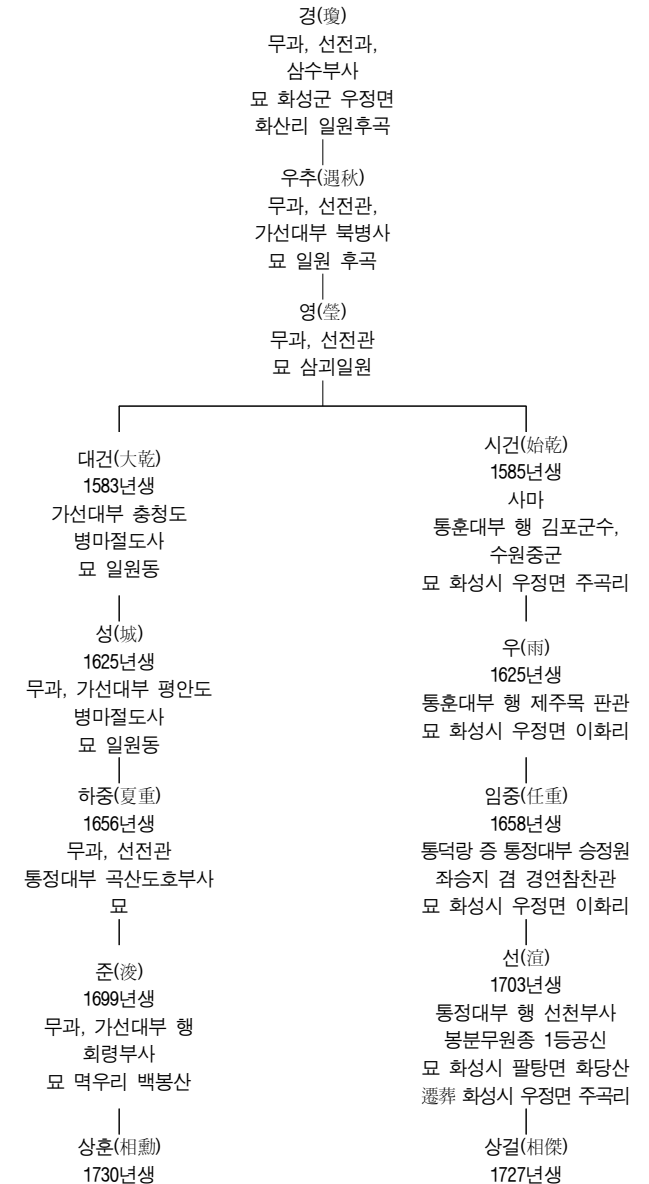
<표 2-16> 반남박씨 오창공파 박사원·정원 가계



윤조의 아들 이윤태의 배우자는 고령신씨 택권(宅權)의 딸이다. 신택권은 안산에서 활동한 문신으로 이용휴(李用休), 엄경응(嚴慶膺), 이광환(李匡煥), 유경종(柳慶種), 강세황(姜世晃), 조중보(趙重普), 이수봉(李壽鳳), 최인우(崔仁祐), 유중림(柳重臨), 허필(許泌), 임희성(任希聖), 안정복(安鼎福), 목만중(睦萬中), 체제공(蔡濟恭), 신광수(申光洙) 등과 함께 교류하여 ‘안산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로 불리었다.<sup>18)</sup> 안산과 수원은 근접한 지역으로 같이 교류한 인물 중에 체제공은 그 아들과 손자가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등제된 인물이다.

5. 해풍김씨

<표 2-17>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1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안산문화대전 참조.

무과, 통정대부 행 부사  
 묘 역동  
 |  
 혁(嬾)\*  
 1751년생  
 무과, 통정대부 수 충청도 병사  
 묘 수방리(水方里)  
 |  
 시철(時喆)  
 1771년생  
 묘 구수동  
 |  
 용(鏞)  
 1793년생  
 무과 선전관  
 묘 구수동  
 |  
 \*태승(泰昇)  
 1815년생  
 무과  
 묘 구창동(舊倉洞)  
 |  
 기모(麒模)  
 1853년생  
 묘 장안면 구수동(九水洞)  
 |  
 연응(然應)  
 1875년생  
 묘 쌍봉산(雙峰山)  
 |  
 석규(奭圭)  
 1893년생  
 묘 장안면 구수동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묘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  
 경(稟)  
 1746년생  
 무과, 비변랑  
 묘 우정면 봉오산 하패도리  
 |  
 \*은철(殷喆)  
 1775년생  
 무과, 통훈대부 행 사헌부 감찰  
 묘 고위묘(考位墓)  
 |  
 강(綱)  
 1798년생  
 무과 통정대부 행 객사군수  
 묘 우정면 일원세곡  
 |  
 태준(泰俊)  
 1818년생  
 묘 패도  
 |  
 홍모(鴻模)  
 1865년생  
 묘 우정면 호곡리  
 |  
 연기(然氣)  
 1893년생  
 묘소 정보 없음

수원에 세거한 해풍김씨 가문은 대대로 무과에 급제한 집안으로 조선전기부터 화성 우정면, 장안면 구창동 등지에 묘역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수원에 세거한 가문 가운데 이른 시기부터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급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김시건은 광해군 10년(1618) 생원시에 입격하는데 당시 거주지가 수원이었다. 비록 김시건의 아들 김우는 효종 2년(1651) 무과에 급제할 때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으나, 김시건의 증조 대부터 묘역이 화성에 조성되었고 김시건 본인도 거주지가 수원이며 아들 김우 또한 묘가 화성에 있으므로 수원은 본거지로 삼아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로 내려가면 정조 19년(1795) 무과에 급제한 김은철의 거주지가 화성이며, 김태승은 헌종 14년(1848) 무과에 급제하는데 당시 거주지가 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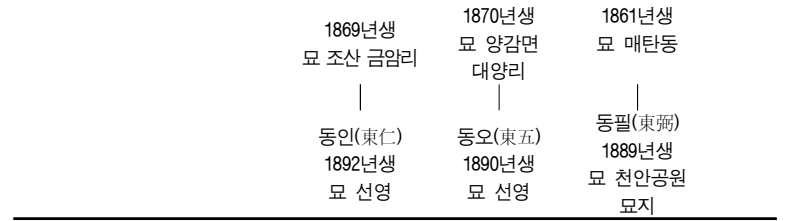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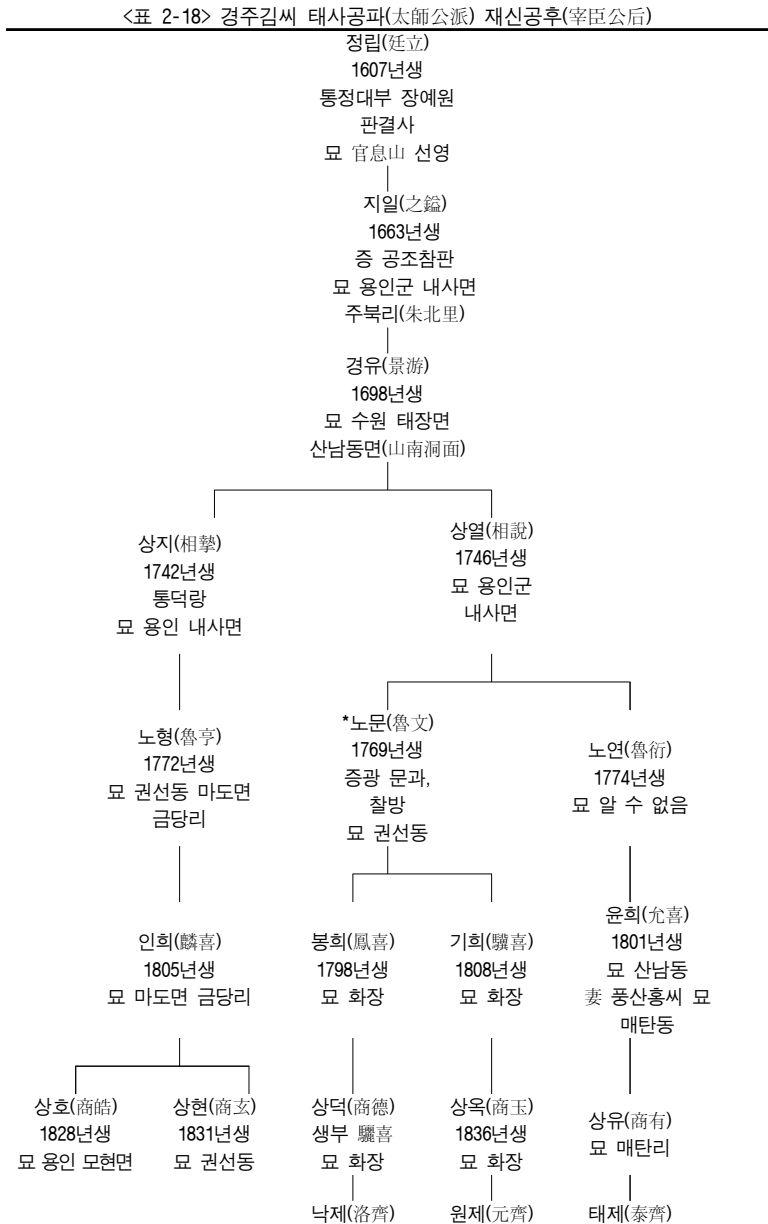
수원에 세거한 해풍김씨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이는 김태승의 증조인 김혁이다. 김혁은 무과에 급제하고 통정대부 수(守) 충청도 병사(兵使)를 역임하였는데, 정조 20년(1796)에 정조가 수원 화성 축성에 수고한 잡물책응도청중군(雜物策應都廳中軍) 김후(金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시상하라는 전교(傳敎)를 내렸다. 이 전교에 따르면 전 부사(前府社) 김혁(金嬾)·조운상(趙雲祥), 전오위장(前五衛將) 윤예기(尹芮基), 전영장(前營將) 김기승(金箕升), 현령(縣令) 정우태(鄭遇泰)를 아울러 승서(陞敘)하라고 하여 김혁이 포함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김혁 외 추가로 해풍김씨 가문의 무신 2명이 더 발견된다. 바로 앞선 전교에도 등장하는 김후(金曄)와 김희(金熾)이다. 김후는 영조 47년(1771) 무과에 급제하여 정조 18년(1794) 2월 화성 성역에서 별감동의 직위를 맡았는데, 화성 성역이 1794년 1월에 착수 되었으므로 김후는 경기 중군에 있다가 화성 성역에 바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감동은 성역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대신, 실무의 총책임자인 감동대신, 도청, 책응도청의 다음 자리로서 성역을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김후의 별감동 직임의 근무 일수는 886일로 화성성역에 참여한 10명의 별감동 중 가장 긴 근무 일수를 기록하였다. 김희는 동장대에서 감동관 및 감관을 비롯하여 서리, 각종 장인 등 2천 여 명에게 밥과 국, 생선 자반을 지급하는 별군직을 담당하였다.<sup>19)</sup>

19)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무신의 길, 그 오백년의 발자취』, 화성사·화성문화원, 2008, 45-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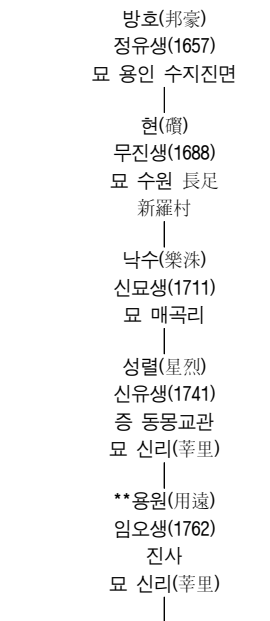
6. 경주김씨 태사공파(太師公派), 계림군파(金鎭君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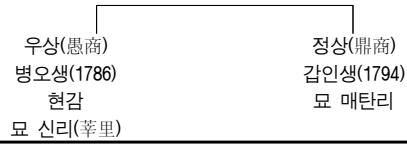


경주김씨 태사공파 인물 중 김경유의 분묘가 수원 태장면 산남동에 위치하게 된 뒤로 그 후손들의 분묘 또한 그 인근 지방인 용인 내사면이나 수원 권선동 마도면 금당리, 매탄동에 자리 잡고 있다. 용인은 수원의 동쪽 방향으로 수원과 가까운 지역이다.

태사공파 사람 중 화성을 거주지로 과거에 급제한 자는 순조 1년(1801) 문과에 급제한 김노문이다. 김노문의 아버지인 김상열의 묘는 용인 내사면이나 김노문의 조부 김경유 및 본인 그리고 조카 윤희와 조카 며느리, 사촌 김노형, 5촌 조카 김인희의 묘가 모두 수원 권선동, 산남동, 매탄동에 있다. 이를 미루어 경주김씨 태사공파 사람들은 수원 및 용인에 터를 잡고 세거한 집안으로 추정된다.

<표 2-19>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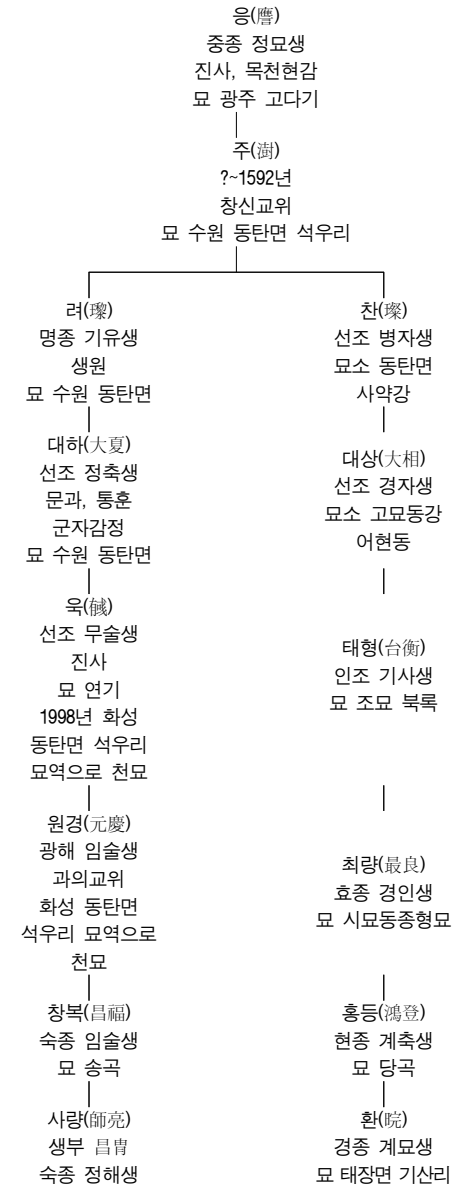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용원은 순조 25년(1825)에 진사시에 수원거주자로 입격한다. 김용원은 응제시에도 참여하는데 정조 22년(1798)에 부 과목에서 초삼하(草三下)를 맞아 2분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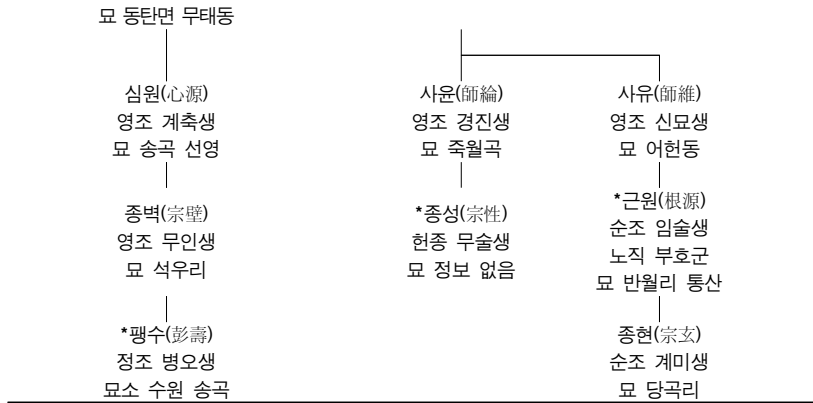
김용원의 선영은 고조 김방호의 분묘가 용인 수지에 있었다. 용인은 수원의 동부권 방향으로 수원의 인접 고을이다. 김용원의 증조부터 묘가 수원에 조성된다. 증조 김현의 묘는 수원 장죽 신라촌에 있었고 조부 김낙수의 묘는 수원 팔탄면의 매곡리에, 부 김성렬의 묘는 화성 태안읍 신리(莘里)에 있었다. 본인의 묘도 신리에 자리하며 아들의 묘도 모두 신리와 매탄리에 있다. 종합하면 김용원의 가문은 적어도 증조 김현 시절부터 수원에서 세거하면서 수원에서 과거도 치르고 분묘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20) 『일성록』 정조 22년 2월 8일.

7. 반남박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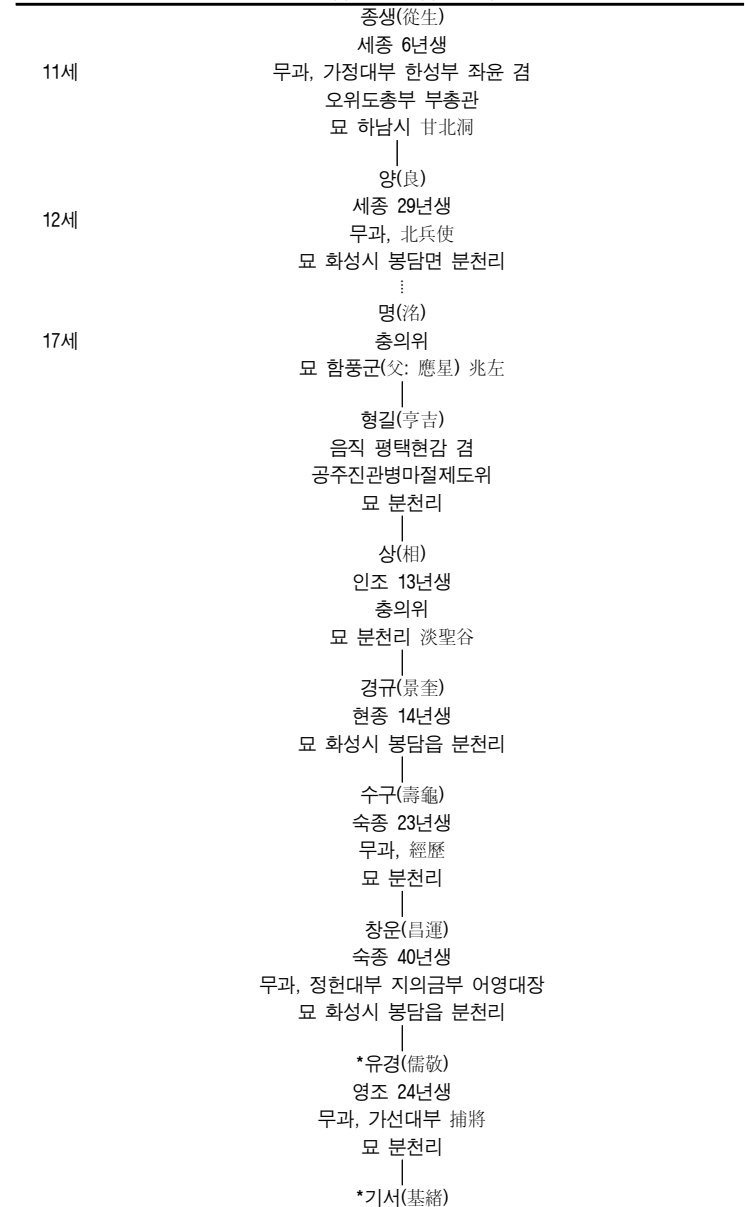
<표 2-20> 반남박씨 세양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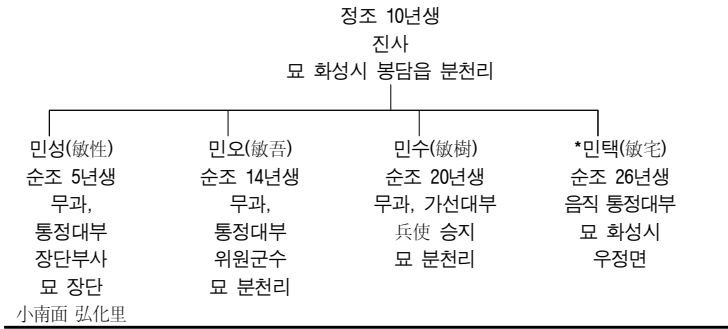
8. 함평이씨 함성군파

<표 2-21> 함평이씨 함성군파 ①



박종성, 박근원, 박팽수는 모두 수원을 거주지로 하는 입격자들이다. 박종성은 고종 1년(1864) 진사시, 박근원은 순조 25원(1825) 생원시, 박팽수는 순조 22년(1822)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이 세 명은 박주를 공통조상으로 하는데 박주의 묘는 수원 동탄면 석우리이다. 이후 후손들의 묘소는 대대로 수원 등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방목에서는 박팽수의 직계 조상인 박려와 박옥의 세거지가 기록되어 있다. 박려는 선조 15년(1582) 생원시에 입격할 당시 거주지가 한성이며, 박옥은 인조 20년(1642) 생원시에 입격하는데 박옥 또한 거주지가 한성이다. 그러나 이는 선대부터 있어왔던 관직생활과 이들의 과거 응시에 따른 결과의 부산물로 보이며, 대대로 선영이 수원에 있는 점, 묘가 현대에 들어서서 화성 동탄면 석우리 묘역으로 천묘(遷墓)된 점으로 보아 한성과 수원을 왕래한 흔적이 있으나 그 후손들은 한성보다 수원을 중심으로 세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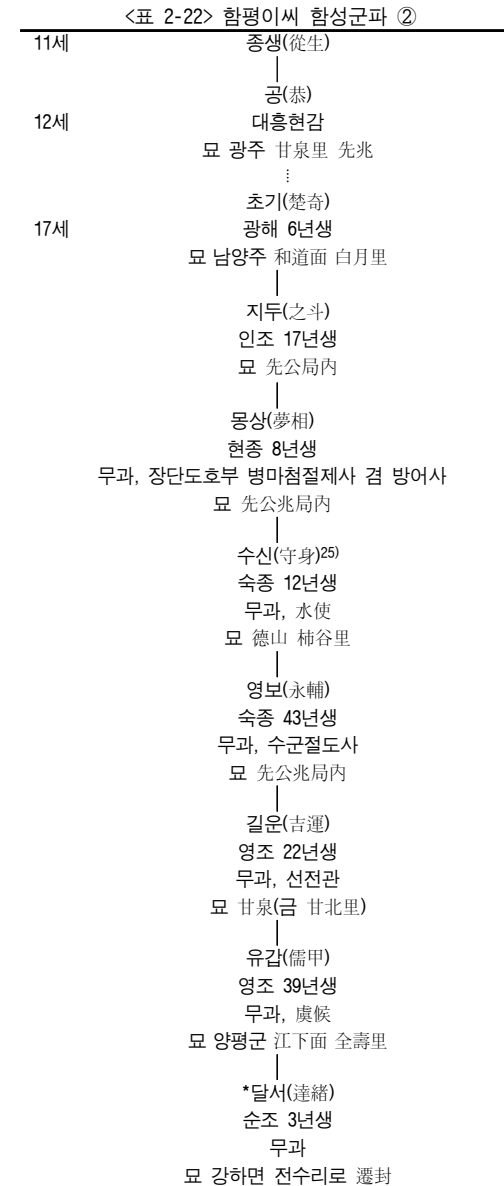


함평이씨 함성군과의 세거지인 봉담은 분천리(汾川里)는 조선시대 삼봉면 분천리에 해당한다. 이곳에 대대로 세거해 온 함평이씨 함성군과는 전통적인 무반집안으로 알려졌다. 이 가문이 본격적으로 무반 가계를 형성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인데, 이처럼 함성군과가 무반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는 함성군 이종생에서 비롯되었다.

이종생은 세종 5년(1423)에 출생하여 세조 6년(1460) 별시 무과의 을과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 세조 12년(1466) 이시애의 난 때에는 위장(衛將)으로 적을 대파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록 되고 함성군의 군호를 받았다. 함성군 이종생은 이양과 이공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장남 이양이 분천리의 입향조(入鄕祖)가 되면서 대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세가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즉 입향하는 시기는 조선조 연산군대이다.<sup>21)</sup>

이 가문의 입향은 분묘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2세 이양부터 그 후손들의 묘는 화성 분천리 일대에 위치한다. 또한 23세 이유경은 정조 19년(1795) 2월 기사에서 전(前) 승지(承旨) 이유경이 지금 수원에 있다는 기사가 있으며<sup>22)</sup>, 이유경은 수원 화성 축조와도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정조 19년, 20년에 화성의 축성 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기사<sup>23)</sup>와 체제공 등 화성 축성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시상한 기사<sup>24)</sup>에 이유경도 포함된다. 이런 바탕 위에 이기서가 순조 14년(1814)에 수원 거주자로서 진사시에 입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서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이민택은 뒤에서 살펴 볼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인물 중 수원 출신 과거 합격자인 윤종걸의 장인이기도 하다. 이기서 이후의 후손들도 분묘가 화성시 봉담면에 자리한다.

21) 『분화전에 뿌리 내린 장군의 후에 함평 이씨 함성군과 종손가』 14-29쪽, 2011.  
 22) 『승정원일기』 정조 19년(1795) 2월 17일.  
 23) 『정조실록』 정조 19년 윤2월 13일.  
 24) 『정조실록』 정조 20년 9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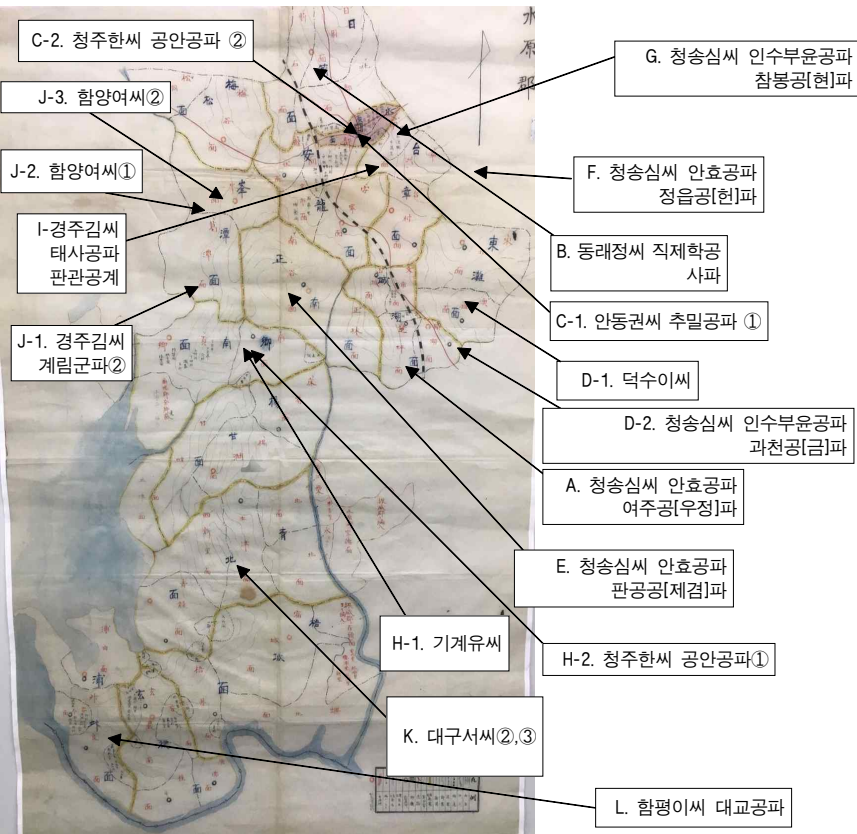


25) 19세 이수신의 무과 합격 기록은 『신묘문과방목(辛卯文科榜目)』에서 확인된다. 이수신은 숙종 37년(1711) 신묘 식년시에서 병과(丙科) 61위로 합격하였다. 이 당시 세거지는 한성으로 나온다. 이를 통해 이종생의 아들 이공 후손들은 이양 후손들과는 달리 한성 및 경기도 중부권에서 세거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 수원 이주 가문의 분포와 특징

## 제1절 수원 이주 가문의 분포 현황

타 지역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가문 중에서 수원에 정착하여 수원에 세거한 가문의 분포 위치는 크게 성호면(A), 일형면(B), 신흥동(C), 동탄면(D), 정남면(E), 산의실[山義谷](F), 고동동(G), 향남면(H), 장주면(I), 봉담면(J), 토진면(K), 포승면(L)로 구별된다.



<표 3-1> 수원 이주 가문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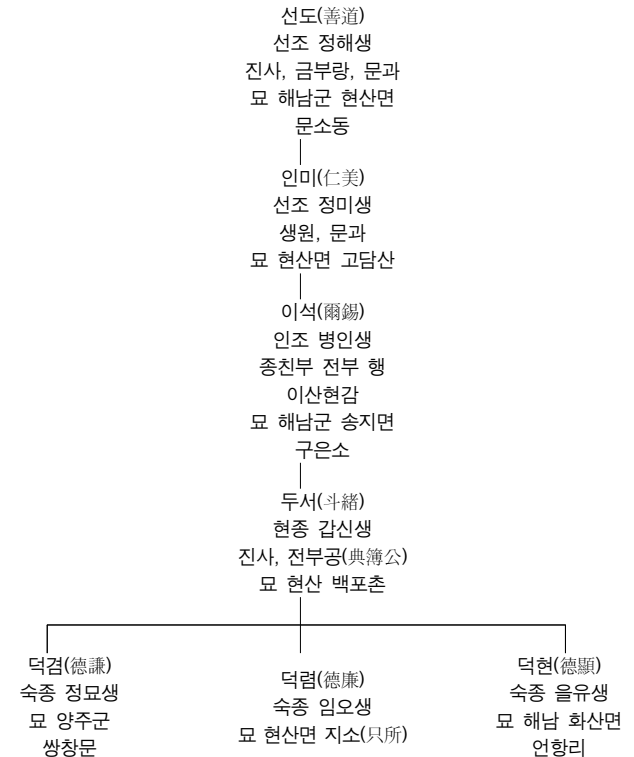
## 제2절 수원 이주 가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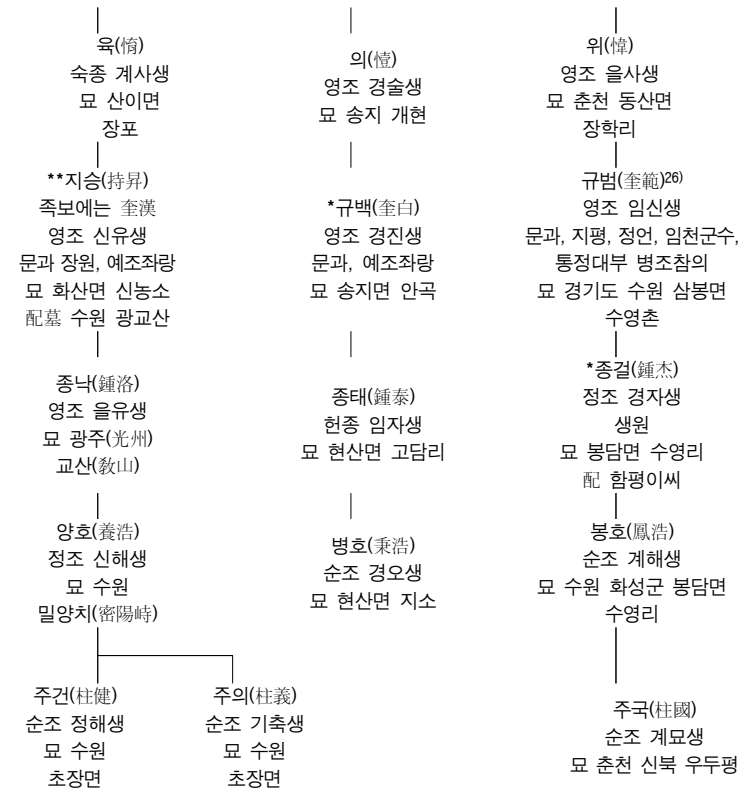
수원이주 가문으로는 청송심씨, 평강채씨, 한양조씨 등이 있다. 이주 가문 중 상당수의 연원은 본래 한성출신이었다. 이들은 과거라는 제도를 매개로 하여 일차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고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혼인으로써 관계를 맺게 된다. 이주가문은 세거가문처럼, 같은 본관을 가진 집안이라도 파(派)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주해 온 지역을 기준으로 각 파(派)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성지역

#### 1) 해남윤씨

<표 3-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산면, 송지면 등 해남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선도의 6대손 대에 접어들면 기존과는 양상이 달라진다.

수원 삼봉면에 처음으로 묘가 형성되는 사람은 윤규범(尹奎範)이다. 이외에도 윤지승(尹持昇)과 윤규백(尹奎白)은 각각 정조 18년(1794), 순조 3년(1803)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수원이었다. 윤규범의 아들 윤종걸도 순조 16년(1816)에 생원에 입격을 하는데, 거주지가 수원이다.

이처럼 윤규범의 묘가 처음으로 수원에 자리 잡은 것은 아들 윤종걸의 영향으로 보인다. 윤종걸의 처가는 수원 세거 가문인 함평이씨 함성군파로, 윤종걸의 장인은 함평 이유노(李儒魯)다. 이유노는 화성 분천리에 대대로 세거해온 이양의 후손이다. 윤규범의 분묘 위치 또한 화성군 봉담면인데 봉담면은 함평이씨의 세거지이다. 이로 미루어 윤종걸은 자신의 처가를 따라 수원 화성군 봉담면 일대에 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지승, 윤규백, 윤종걸 이 세 사람은 모두 거주지가 수원이나 이들 및 후손들의 묘 양상은 다른 양상을 띤다. 먼저 윤지승의 묘는 여전히 해남 화산면이나 부인인 풍산홍씨의 묘는 수원 광고산이다. 아들 종낙은 전라도 광주에 묘가 있으나 손자와 증손은 묘가 수원에 위치한다. 윤규백과 그 후손들은 묘가 해남에 위치한다. 윤종걸은 자신의 아버지와 본인, 아들까지는 수원 삼봉면, 봉담면에 묘가 있으나 손자 대에는 묘가 춘천에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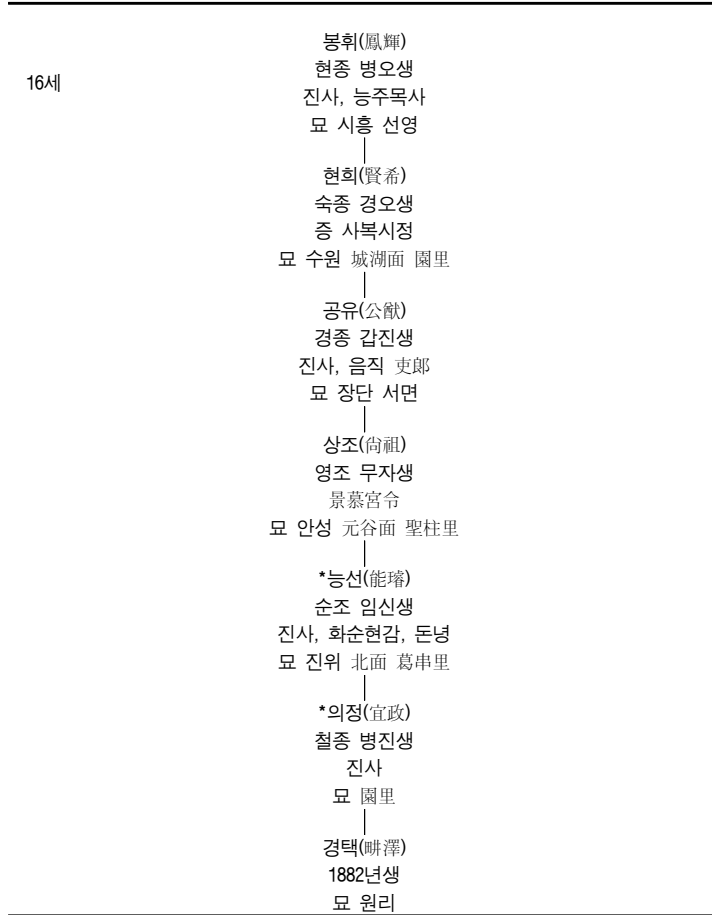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는 어초은 윤효정(尹孝貞)이 해남정씨 정귀영(鄭貴瑛)의 딸과 혼인하면서 해남 백련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따르면 윤효정의 아들 윤구(尹衢)와 손자 윤홍중(尹弘中)의 세거지는 해남이다.

그러나 윤홍중의 아들 윤유기(尹惟幾)의 거주지는 선조 13년(1580) 문과에 급제할 당시 한성[京]이었다. 윤유기의 아들 고산 윤선도(尹善道)는 인조 11년(1633)에 문과에 급제를 하나 거주지는 미상이다. 다만 아버지 윤유기의 세거지가 한성이고, 아들 윤인미(尹仁美) 역시 인조 8년(1630) 생원시·현종 3년(1662) 문과 급제 때 거주지가 한성이므로 윤선도 또한 1633년 당시 거주지는 한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尹斗緒) 또한 숙종 19년(1693) 진사시에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한성이다. 이렇게 윤효정의 후손들이 연달아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서 이들은 한성에 세거하게 되나 이들의 분묘는 여전히 해남 현

26) 서울 청과동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1768년(영조 44) 해남으로 낙향하였다.

2) 청송심씨 안효공파 여주공[우정]파

<표 3-2> 청송심씨 안효공파 여주공[우정]파



청송심씨 안효공파 여주공 우정의 후손인 심능선, 의정 부자(父子)는 수원에 거주하며 진사생원시에 입격한 사람들이다. 심능선(沈能璿)은 철종 3년(1852) 수원에 거주하였고, 심의정(沈宜政)은 고종 22년(1885)에 수원에 거주하였는데 특히 심의정은 묘도 수원 성호면(城湖面) 원리(園里)에 있어, 수원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응시하고 묘도 수원에 있는 사례이다.

심능선<sup>27)</sup>과 심의정 선대의 세거지를 살펴보면 대를 이어 한성에서 살았다. 심능선의 조

부 심공유(沈公猷)는 영조 23년(1747)년, 고조 심봉휘(沈鳳輝) 숙종 3년(1677), 5대조 심한주(沈漢柱)는 숙종 3년(1677), 6대조 심유(沈攸)는 인조 20년(1642)에 모두 한성에 세거하면서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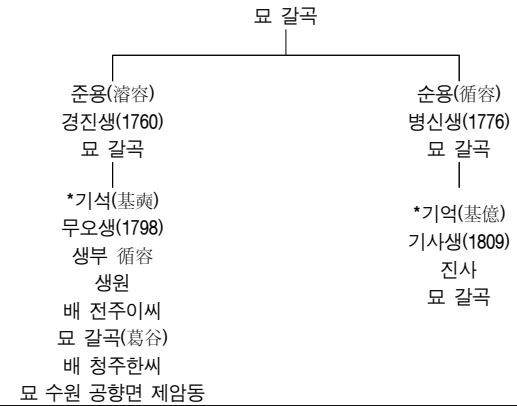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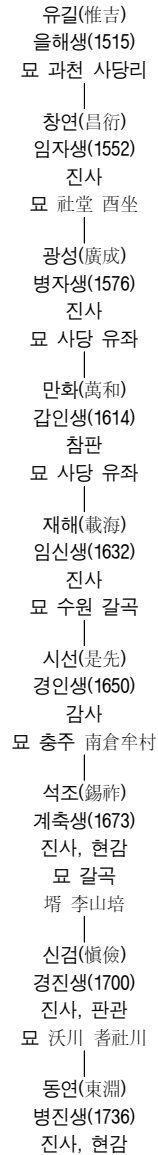
선대의 선영 위치는 경기도 시흥, 수원, 장단군, 안성군, 진위군으로 다양하나 16세 심봉휘 이전에는 장단, 통진, 보십곶(浦十串) 등 경기도 서북부에 있었다. 처음 수원에 묘를 쓴 경우는 심능선의 증조인 심현희이다. 심능선의 아버지 심상조는 순조 14년(1814)에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의 령(令)에 임명되기도 하였다.<sup>28)</sup> 수원과 이런 인연으로 심능선과 의정이 수원에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정의 아들 경택도 묘가 수원 성호면 원리에 있다.

27) 『승정원일기』 고종 5년 12월 9일 기사에 화순현감(和順縣監) 심병규(沈炳奎)의 이름을 능선(能璿)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고장(告狀)이 접수되자 이조에서는 전례에 따라 예문관으로 하여금 첩(帖)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계목(啓目)을 올렸고 왕이 이를 윤허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승정기원후4임자식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壬子式司馬榜目)』에는 심병규(沈炳奎)의 아버지 이름이 심상조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송심씨 족보에 기재된 심능선과 수원에 세거하며 진사시에 입격한 심병규는 동일인물로 확인된다.

28) 『승정원일기』 순조 14년 12월 25일 기사 참고.

3) 동래정씨 직제학공 사파(賜派)

<표 3-3> 동래정씨 직제학공 사파



정기석과 정기억은 수원출신 과거합격자로 정기석이 정준용에게 출계(出系)하였으나, 본래 둘은 정순용의 아들로 친형제기간이다. 정기석은 현종 3년(1837)에 정유 식년시에서 생원 3등 16위로 합격하였으며 정기억은 현종 12년(1846) 병오 식년시에서 생원 3등 66위로 합격하였다. 이들의 선조는 대대로 한양에서 세거하였다. 방목에서 확인되는 이들 선조의 세거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4> 동래정씨 과거(科擧) 이력

이름	시험과목	세거지
정유길	[문과] 증종 33년(1538) 무술 알성시	한성
정창연	[진사] 선조 12년(157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한성
	[문과] 선조 12년(157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정광성	[문과] 선조(宣祖) 36년(160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미상
광성 弟 광경	[생원] 광해군 4년(161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한성
	[문과] 광해군 4년(1612) 임자(壬子) 증광시(增廣試)	
정만화	[생원] 인조 13년(1635) 을해(乙亥) 증광시(增廣試)	한성
	[문과] 효종 3년(1652) 임진(壬辰) 증광시(增廣試)	
정재해	[진사] 효종 5년(165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한성
	[문과] 효종 8년(165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정석조	[진사] 숙종 25년(1699) 기묘(己卯) 증광시(增廣試)	한성
정신검	[생원] 영조 14년(173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한성
정동연	[생원] 영조 39년(1763) 계미(癸未) 증광시(增廣試)	한성

동래정씨 직제공파는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는데 방목에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정유길부터이다. 정유길부터 정동연에 이르기까지 9대의 세거지는 한성이다. 정창연의 아들



정광성의 경우 1603년 문과 합격 당시의 거주지는 미상이나, 광성의 동생 정광경이 1612년에 생원시와 문과에서 한성을 거주지로 급제하였다. 이로 미루어 이들 집안은 누대 과거에 합격하면서 한성에서 세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영의 분묘 위치를 살펴보면 정유길부터 정만화에 이르기까지는 과천 사당리에 선영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재해 때 처음 수원 갈곡에 분묘가 위치한 후로 손자 정석조 및 정재해의 4대손인 정동연 이후로는 모두 분묘가 수원 갈곡에 위치한다. 이는 선영이 처음에는 과천에 조성되었다가 이후로는 수원으로 옮겨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과 동래정씨 직제공파의 연결고리는 분묘의 위치 외, 혼인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묘가 수원 갈곡에 있는 정석조의 사위는 전의 이산배(李山培)이다. 이산배는 사직(司直) 이덕수(李德壽)의 아들로, 이덕수는 영조 7년(1731)에 부사과 이덕재(李德載) 등과 함께 상소를 올린다.<sup>29)</sup>

그 상소 내용 중에는 이들의 10세조 평간공(平簡公) 예장(禮長)은 바로 세조(世祖)조에 정난공신으로 그 종손들은 수원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덕수와 그 선조들은 여러 차례 과거에 급제하였기 때문에 방목에 이들의 거주지는 한성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류(源流)는 수원과 연관이 깊었다. 또한 기석의 손녀사위인 대구 서상조(徐相肇)의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서채순(徐采淳)으로 서상조와 서채순은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합격한 대구서씨 집안과 같은 집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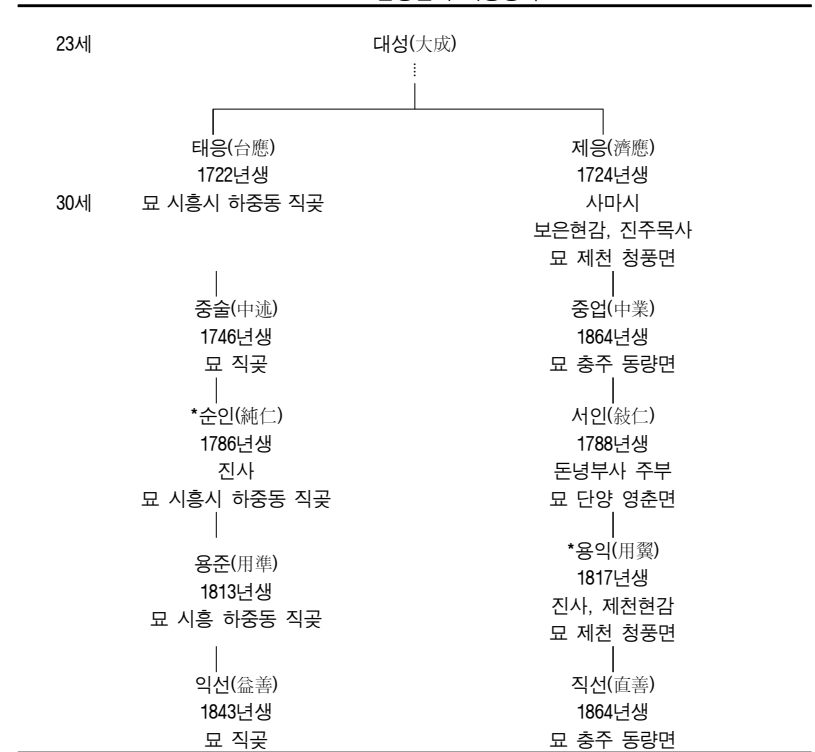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관련을 바탕으로 이들 동래정씨 직제학공 사파가 한성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동래정씨 집안의 선영은 오래전부터 수원에 조성되었고, 분묘가 수원에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수원 출신 집안들과 혼맥으로도 이어졌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정기석, 정기익 형제가 수원을 거주지로 하여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충청·경기지역

충청·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가문은 수원에 세거하며 과거에 급제하거나 응제시(應製試)에 응시한 자들 중에서 선대의 세거지는 충청 혹은 경기인 경우이다. 이들 중 상당수도 방목에서 선대의 세거지가 한성으로 나오나 해당윤씨 어조은파의 사례와 같이 여러 대 한성에 세거한 것이 아니라, 선영이 조성된 충청 지역 혹은 경기 지역과 한성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청·경기 지역에 포함시켰다.

1) 안동권씨

<표 3-5> 안동권씨 시중공파



안동권씨 시중공파 23세 권대성(權大成)의 후손 중 32세 순인(純仁)과 33세 용익(用翼)은 각기 30세 태응(台應)과 제응(濟應)의 후손으로, 권순인은 순조 28년(1828) 수원에 거주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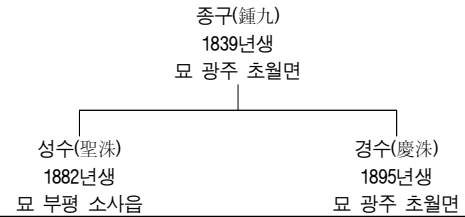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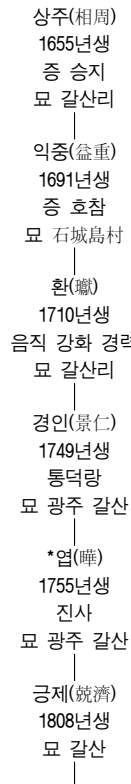
29) 『승정원일기』 영조 7년 7월 5일.

서 일부(一賦) 과목에 응시하여 진사로 입격하였다. 권용익은 현종 12년(1846) 수원에 거주하면서 일부(一賦)에서 진사로 입격하였다.

권순인의 조부와 손자까지의 묘역은 시흥시 하중동 직곶(職串)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안산군 초산면 지역이었다. 권순인의 증조인 복성(復性)은 인천 신현(新峴)에 묘가 있으며 복성의 아버지 경(景)은 충주, 경의 아버지 상우(尙友)는 시흥시 하중동이다. 대체적으로 권순인 집안의 선영은 경기 지역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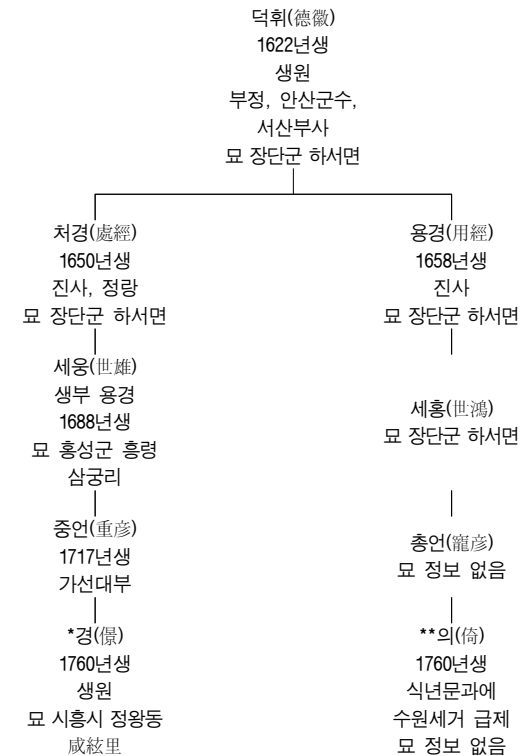
권용익의 아버지 권서인은 순조 22년(1822)에 진사시에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청풍으로 권용익의 집안은 대대로 충청도에 거주한 집안이었다. 이는 이들의 묘소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권제웅부터 권용익의 아들 직선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제천, 충주 일대에 선영을 이루었다.

<표 3-6> 안동권씨 참의공파(參議公派)



권엽(權曄)은 안동권씨 침의공파 인물로, 순조 4년(1804) 진사시에서 수원거주로 입격한다. 권엽의 증손 권성수(權聖洙)의 묘는 부평군 소사읍(素沙邑)이나 그 외 선대와 후대 묘소의 위치는 광주(廣州) 갈산(葛山)과 초월면(草月面) 일대다. 권엽의 집안은 시중공파 권순인처럼 경기도 지역에서 선영이 시작되어 본인 당대에는 수원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선영은 수원 근방 경기도 지역이다.

<표 3-7> 안동권씨 추밀공파 ①



장헌(長憲)  
1787년생  
묘 안성시 竹川里  
↓  
인수(麟壽)  
1805년생  
묘 안성 所晩  
↓  
⋮  
이후 후손 缺嗣

이헌(頤憲)  
족보에 정보 없음  
↓  
난수(鸞壽)  
족보에 정보 없음  
↓  
영규(英奎)  
족보에 정보 없음  
↓  
동옥(東玉)  
1887년생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에서  
태어나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죽음  
火葬  
↓  
이석(彝錫)  
1920년생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에서 나서  
같은 곳에서 죽음

시 진사로서 시(詩) 과목에 응제하였으나 격식을 위반하여, 다시 시취할 때 삼중을 맞아 향유산(香藹散) 2첩(貼)이 사급된 기록에서 확인된다.

『국조방목(國朝榜目)』과 『일성록(日省錄)』을 통해 권경과 권의 당대인 정조대에는 수원에 거주하며 응제에 응시하거나 과거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권경의 묘는 시흥이며 그 자손의 묘는 안성에 있고, 권의의 경우 아버지 권총언 이래 4대까지는 족보에 묘소 정보가 없어 분묘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권의의 4대손인 동옥과 그 이후 후손들은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에서 태어나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응제와 과거를 치를 때 권의가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도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방목에 따르면 추밀공과 권덕휘와 덕휘의 아들 용경(用經)과 처경(處經)의 거주지는 한성이다. 권덕휘는 효종 3년(1652) 생원시에, 권용경은 숙종 15년(1689) 권처경은 숙종 5년(1679) 진사시에 입격한다. 즉 1652~1679년 동안 이들 부자는 한성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와는 별개로 권덕휘 집안의 선영은 경기도 북서부 지방인 장단군 하서면으로, 권덕휘 집안은 한성과 경기도 지역을 왕래하며 살아온 가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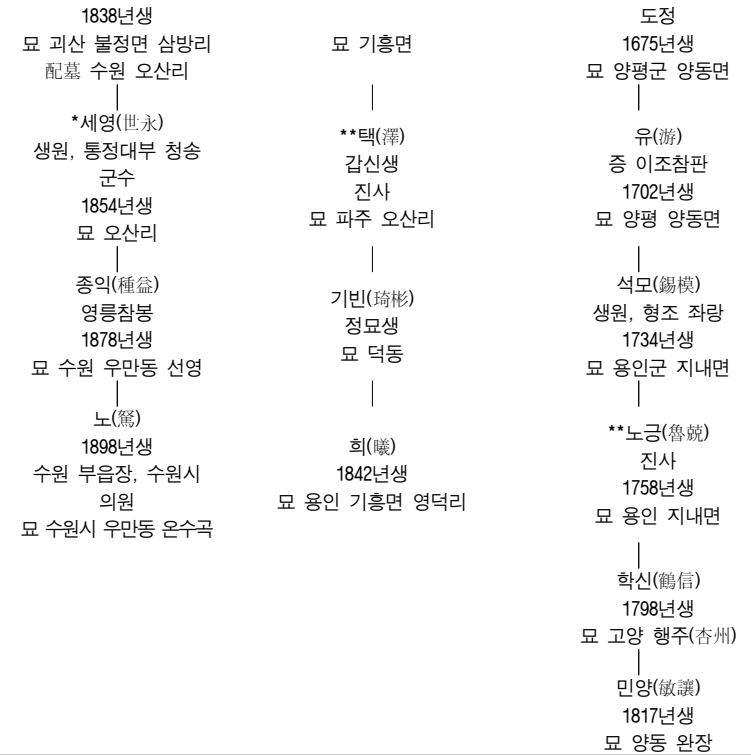
권처경의 증손 권경(權僿) 또한 순조 13년(1813) 생원시에 입격하는데 이때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으나, 『일성록(日省錄)』 정조 14년(1790) 5월 6일 기사에는 권경이 수원 읍내의 유생으로 표 과목에서 초삼하(草三下)를 맞아 필 2지, 목 1정, 선자 1병을 받은 기록이 있다.

권용경의 증손 권의(權倚)는 정조 16년(1792) 식년시 문과가 치러질 때 거주지가 수원이다. 그러나 1792년 이전부터 권의는 수원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는 정조 14년(1790) 『일성록(日省錄)』의 기사 중 권의가 고시 과목에서 삼상이(三上二)를 맞아 《팔자백선》 1건과 차장지 1권을 받은 기록과<sup>30)</sup> 동년 6월 7일에 수원부(水原府) 부치(府治)의 유생을 시취할 때 당

30) 『일성록(日省錄)』 14년(1790) 5월 6일.

2) 덕수이씨

<표 3-8> 덕수이씨



덕수이씨 이세영(李世永), 이택(李澤), 이노공(李魯公)은 모두 수원과 화성에 거주하면서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이들이다. 먼저 이택은 정조 14년(1790)년 진사시에 합격할 때 수원에, 이노공은 순조 3년(1803)년 진사시 때 화성에, 이세영은 고종 10년(1873)년 생원시 때 거주지가 수원이다.

이들은 모두 9세 이추(李抽)의 후손으로 각기 이추의 아들인 의번(宜蕃), 의무(宜茂), 의석(宜碩)의 후손들이다. 의번의 후손 즉 이택의 선조인 이통, 이경중, 이치는 『사마방목(司馬榜目)』, 『증광생원진사방목(增廣生員進士榜目)』에 의하면 거주지가 한성이다. 따라서 이택의 4~6대조들은 선조 15년~인조 13년(1582~135) 동안 한성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응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증조 이희동, 조부 이견, 부 이안진의 경우는 방목에 기록이 없어 이들의 거주지를 알 수 없다. 이택 집안의 선영은 광주군(廣州郡) 대왕면(大旺面) 고들리(高登里)에 묘가 있는 이통을 제외하고는 용인 기흥면이다. 이를 통해 이택의 집안은 한성과 경기도 인근 특히 용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문으로 볼 수 있다.

이택의 증조부터 아버지 대에 이르기까지 거주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언제부터 수원에 거주하였는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이택은 『일성록』 정조 14년(1790) 12월 11일자에 수원부의 유생을 시취할 때 표 과목에서 차상(次上)을 받아 미 7두를 사급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또 정조 15년(1791) 4월 3일에도 진사 이택이 수원 읍내 유생으로서 응제시 부(賦) 과목에 응시하여 점수가 차하(次下)를 맞아 소어염 2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성록』에서 확인되는 이택의 수원 유생 시취 기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9> 덕수이씨 이택의 수원 유생 시취

응시자	연도	과목	성적	사은(賜恩)
이택(李澤)	정조14년(1790) 5월 6일	표	초차상(草次上)	선자 1병
	정조14년(1790) 12월 11일	표	차상(次上)	미 7두
	정조15년(1791) 4월 3일	응제시	차하	소어염 2급
	정조15년(1791) 12월 23일	부	차상(次上)	《백력(白曆)》 1건
	정조16년(1792) 9월 9일	부	삼하(三下)	식물과 미 5말
	정조16년(1792) 9월 20일	부	삼하	《정음통석(正音通釋)》 1건
	정조16년(1792) 12월 13일	부	초차상(草次上)	세찬미 4말

즉 이택의 선조들은 한성 혹은 용인에 거주하며 묘역을 이루어 오다가 이택 당대에는 수원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노공은 이의무의 후손으로 묘역은 대대로 양평군 양동면과 용인군 지내면(枝內面)에 위치한다. 방목에서 확인되는 선조들의 거주지는 13세 이섭(李涉), 15세 이식(李植), 16세 이면하(李冕夏), 18세 이형진(李衡鎭)이 한성이다. 이노공의 아버지인 20세 이석모(李錫模)의 경우 영조 44년(1768) 생원시에 입격할 때 거주지가 지평(砥平)이다. 지평은 곧 양평군으로 고을의 범위에 양동면도 포함된다. 즉 이노공의 아버지는 선영이 있는 곳에 거주한 것이다.

이노공 선대의 거주지를 종합하면 한성 혹은 선영이 있는 양평에 근거지를 두었다. 이노공은 이런 바탕위에 수원으로 옮겨 가서 순조 3년(1803) 진사시에 응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노공이 언제부터 수원에서 살았는지 그 실마리는 이노공의 응제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표 3-10> 덕수이씨 이노공의 응제 현황

응시자	연도	과목	성적	사은(賜恩)
이노공	정조18년(1794) 5월 6일	부	초차상(草次上)	칠별선 1자루

(李魯兢)	정조18년(1794) 12월 8일	표	초차상(草次上)	세찬미 2말, 백력 1건
	정조19년(1795) 2월 9일	부	삼중(三中)	식물과 미 5말
	정조19년(1795) 3월 10일	부	삼중(三中)	점심미(點心米) 5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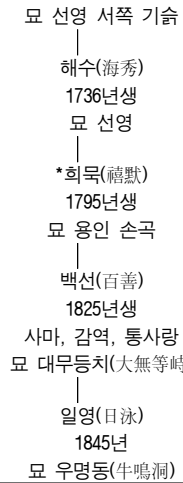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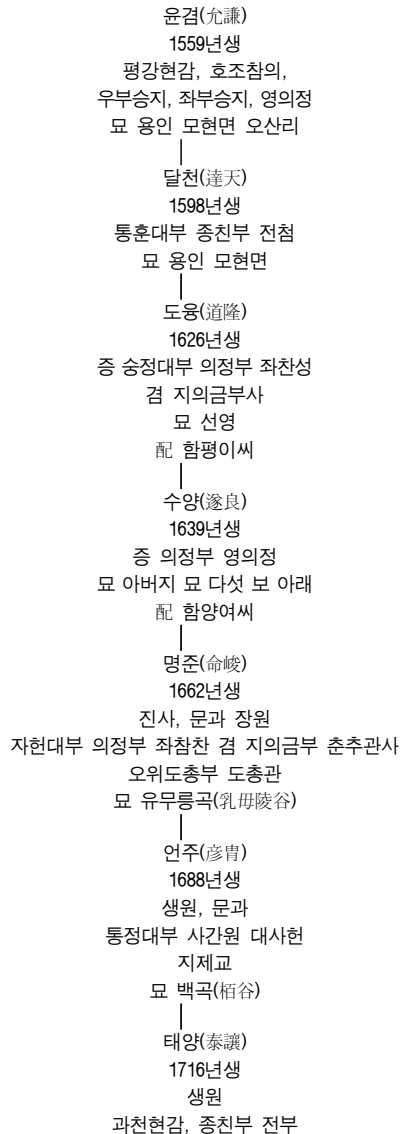
순조 3년 이전부터 이노공은 수원·화성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위 표는 『일성록』에서 확인되는 이노공의 응제 기록으로, 정조 18년(1794) 5월에 수원 유생의 응제 시권(試券)을 체점하고 상전(賞典)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이노공은 초차상을 맞아 칠별선 1자루를 받았다.

당시에는 수원부와 화성부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3월 15일 기사에 화성부 유학들이 여말(麗末) 정치가 혼란할 때 수원부 광고산 남쪽 기슭 탑산(塔山)으로 물러가 거주한 이고(李阜)의 사원 건립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이때 이노공은 화성부에 거주하는 유학들과 함께 이 소를 올렸다. 이를 통해 이노공은 단순히 수원(화성)에 거주한 것만이 아니라 수원(화성) 지역의 유생들과 연대하며 지역 활동을 전개한 유학자로 판단된다.

이세영(李世永)은 고종 10년(1873) 생원시에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수원이다. 이세영의 선조는 포천과 광주 돌마면(突馬面)에 묘가 있었으나 이세영의 5대조 이오(李澳)의 묘소가 화성군 태장면 인계동에 자리하며 덕수이씨 족보에는 이오 때부터 비로소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나온다[始居水原]. 분묘의 위치 또한 이오 이후부터 수원 태장면, 동탄면에 조성되었으며 이세영의 아버지 이민정의 묘는 비록 괴산 불정면에 있었지만 이세영의 어머니는 수원 오산리에 묘역이 있다. 그러므로 덕수이씨 이후의 후손 중 이세영의 집안이 가장 먼저 수원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가문이며, 이후 후손들도 수원에 거주하며 선영을 금양수호해왔다.

3) 해주오씨

<표 3-11> 해주오씨 추탄공파



오희묵은 순조 31년(1831) 수원에 거주하며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그러나 조부 오태양은 영조 26년(1750) 용인에 거주하며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오희묵의 아들 오백선 역시 고종 4년(1867)에 용인에 거주하면서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이처럼 이들이 용인에 세거한 것은 선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오희묵의 8대조 오윤겸부터 묘소가 대대로 용인에 있었다. 따라서 오희묵이 1831년 생원시를 볼 때 왜 수원에 거주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수원과 용인은 인접한 지역이므로 지역적 근접성이 과거 응시에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오희묵의 증조와 고조는 용인이나 수원이 지역이 아닌 한성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조 오명준은 숙종 10년(1684) 진사시와 동왕(同王) 20년(1694) 문과에서 거주지가 모두 한성이었다. 증조 오언주도 숙종 41년(1715) 생원시, 영조 5년(1729) 문과에 급제할 때 거주지가 한성이다. 이를 통해 오희묵의 선대 중 일부는 한성에 거주지를 두기도 하였으나, 원래 이들은 대대로 용인에 묘소를 조성하고 세거해 왔음을 살필 수 있다.

오윤겸의 선대인 오희보(吳希保)가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내기위해 용인 원삼면에 처음 정착하면서 후손들이 원삼면 죽농리와 목신리, 학일리 일대에서 세거하며 동족촌을 이루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모현면 오산리 일대에 이거하여 집성촌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추탄공파이다. 해주 오씨가 오산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오윤겸의 아버지 오희묵이 처향을 따라 오산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터로, 오윤겸을 필두로 후손들이 문과에 급제하여 현달하자 오윤겸의 현손대에 이르러 이들은 용인의 해주 오씨 중에서도 오윤겸을 파

조를 하는 소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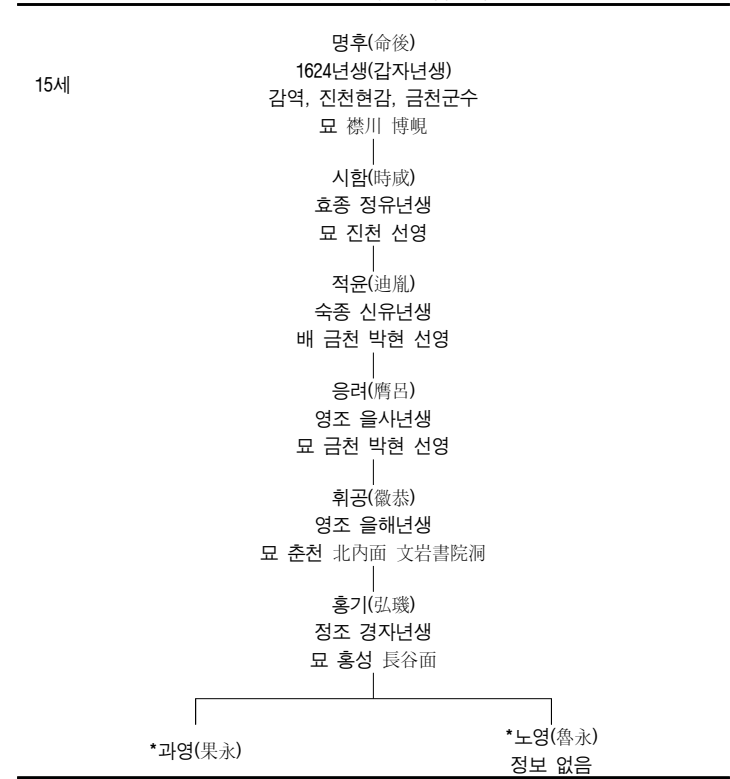
이러한 오희목 가문의 선대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대조 오도용과 5대조 오수양의 처가는 모두 수원출신 가문들과 연관된다. 먼저 오도용의 장인은 함평 이호(李濤)로 이호는 함성군파 17세로, 같은 파(派)인 과거합격자 24세 이달서(무과)와는 11세 이종생이 공통조상이다. 또한 이호의 사위는 대구 서문재(徐文在)인데 서문재의 아버지는 서정리(書正履)로 수원출신 대구서씨 과거급제자들의 직계조상인 서정리(徐貞履), 서진리(徐晉履)와 형제이다.

5대조 오수양의 장인은 함양 20세 여성제(呂聖齊)로, 여성제와 수원출신 과거급제자인 23세 여선용(생원), 26세 여창섭(무과)은 모두 17세 여순원의 후손이다. 또한 오수양의 장인 여성제는 뒤에서 살펴 볼 수원 이주 가문인 여주이씨와 관련이 있는데, 이경신(李敬臣)의 장인 여익제(呂翼齋)와 여성제는 형제관계이다.

4) 평강채씨

<표 3-12> 평강채씨 소감공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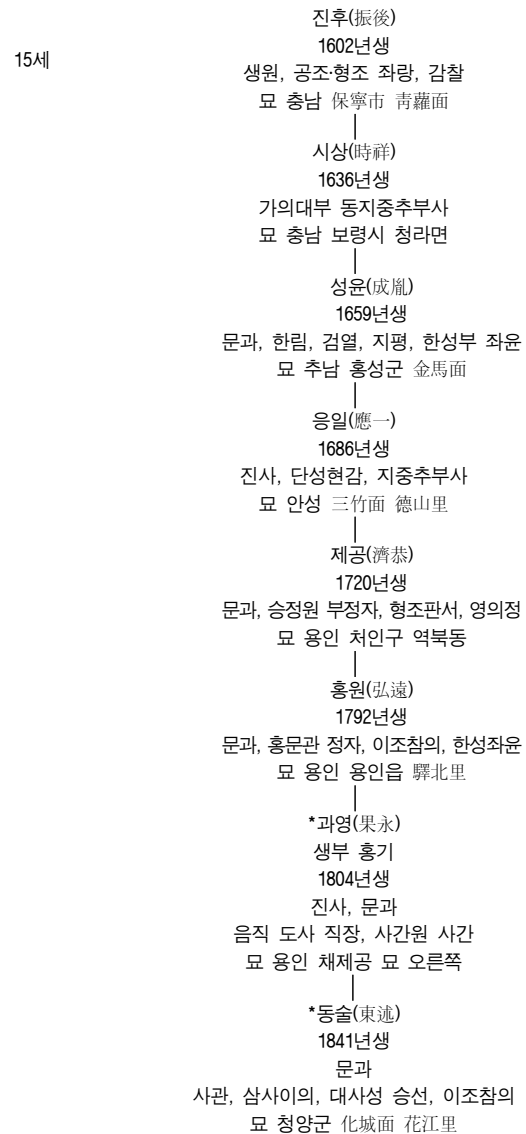


채노영은 고종 1년(1864) 진사시에 3등 1위로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수원이다. 나중에 채과영은 동종(同宗)인 채홍원에게 출계(出系) 되나 본래 생부는 채홍기로 채노영과는 친형제간이다. 채과영 또한 거주지가 수원으로 나오는데 현종 12년(1846) 진사시와 철종 3년(1852) 문과 거주지 기록에서 확인된다.<sup>32)</sup> 채과영과 채노영의 선대는 현 안양 지역인 금천(襟川) 박현과 충북 진천, 강원도 춘천, 충남 홍성으로 다양하나 대체적으로는 경기지역과 충청도 일대이다.

32) 채과영의 수원 거주는 방목 외에도 『승정원일기』 철종 3년 9월 3일자 기사에서 확인된다. 대사간 박종휴(朴宗休)는 채과영이 이 당시 수원에 거주하는데 역마를 타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는 일이 어떠한지 유지(諭旨)를 내려달라고 계청(啓請)하고 있다.

31)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164쪽.

<표 3-13> 평강채씨 소감공파 ②



앞서 살펴보았듯이 채과영은 1846~1852년에 수원에 거주하였으며, 채과영의 아들 채동술 역시 철종 12년(1861)에 문과에 합격하는데 거주지가 수원이다. 채과영, 채동술 선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채홍원은 정조 16년(1792) 문과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며, 채응일은 숙종 43년(1717) 진사시 때 거주지가 홍양(洪陽), 채성윤은 숙종 10년(1684)에 문과에 합격할 때 거주지가 보령(保寧)이며, 채진후는 인조 11년(1633) 생원시 때 거주지 한성이다. 즉 방목에 기인하여 채과영의 선대는 충청남도 지역과 한성을 바탕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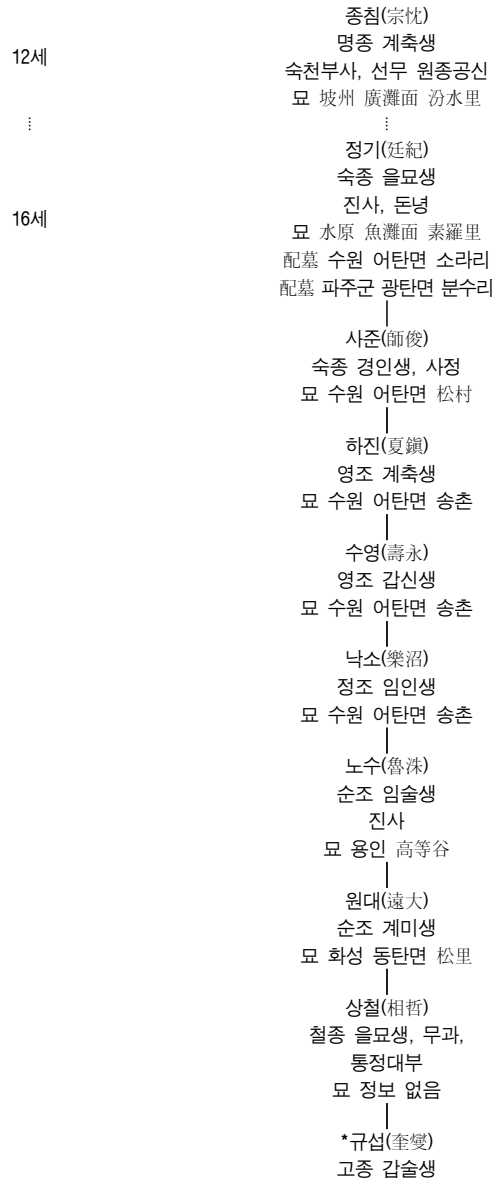
선영을 바탕으로 이들 집안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15세 채진후와 16세 채시상, 17세 채성윤의 묘역이 충남 보령, 홍성으로 방목을 통해 살펴 본 거주지와 일치한다.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묘역이 바뀐 시점은 18세 채응일로, 채응일의 분묘 위치가 안성이며 그 이후 체제공부터는 누대 용인에 묘역이 조성되었다.

용인은 수원의 동쪽 근방으로 용인과 수원은 근접지역이다. 따라서 용인에 선영을 꾸리면서 인접 지역인 수원과 용인을 왕래한 것으로 보인다. 채과영과 채동술이 수원에 거주한 요인은 응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청송심씨

<표 3-14>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 과천공[금]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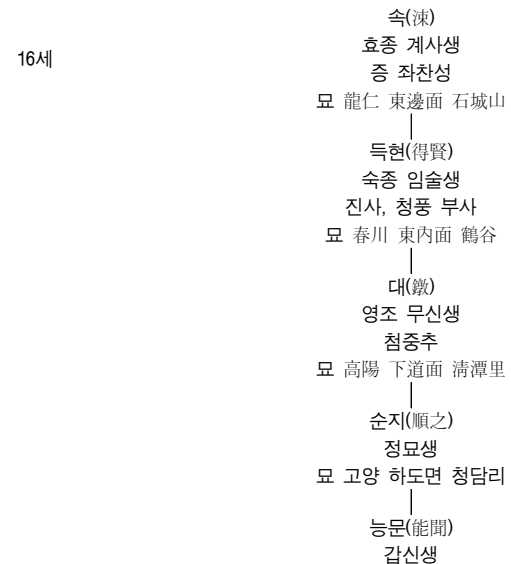
진사  
묘 陰城 陰城面 所余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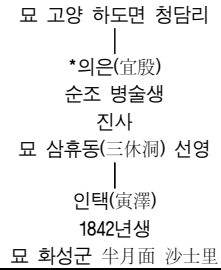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 24세손 심규섭(沈奎燮)은 고종 31년(1894) 수원에 거주하며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심규섭의 아버지 심삼철은 고종 10년(1873)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으로 나온다. 심규섭의 8대조인 16세 심정기도 경종 1년(1721) 진사시에서 한성이 거주지며, 9대조 심익성(沈益成)도 마찬가지로 진사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으로 나온다.

그러나 심규섭의 선영은 12~15세까지 파주 광탄면(廣灘面) 분수리(汾水里)이며, 16세 심정기와 첫 번째 부인 한산이씨, 두 번째 부인 전주이씨의 묘소 위치는 수원(水原) 어탄면(魚灘面) 소라리(素羅里)이다. 다만 심정기의 세 번째 부인인 밀양박씨의 묘는 파주군 광탄면으로 기존에 선영들이 묻힌 곳에 안장되어 있다.

이후 17~20세의 묘역은 수원 어탄면 송촌에 자리하며 심규섭의 증조인 21세 심노수의 묘소만 용인에 있다. 용인은 수원 어탄면의 동쪽 방향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이다. 따라서 수원 어탄면을 중심으로 묘역이 조성되면서 그 인접 지역에 심노만의 묘가 묻힌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는 파주에서 수원으로 묘소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런 흐름 위에서 심규섭이 수원에 거주하며 진사시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5> 청송심씨 안효공파 온양공[인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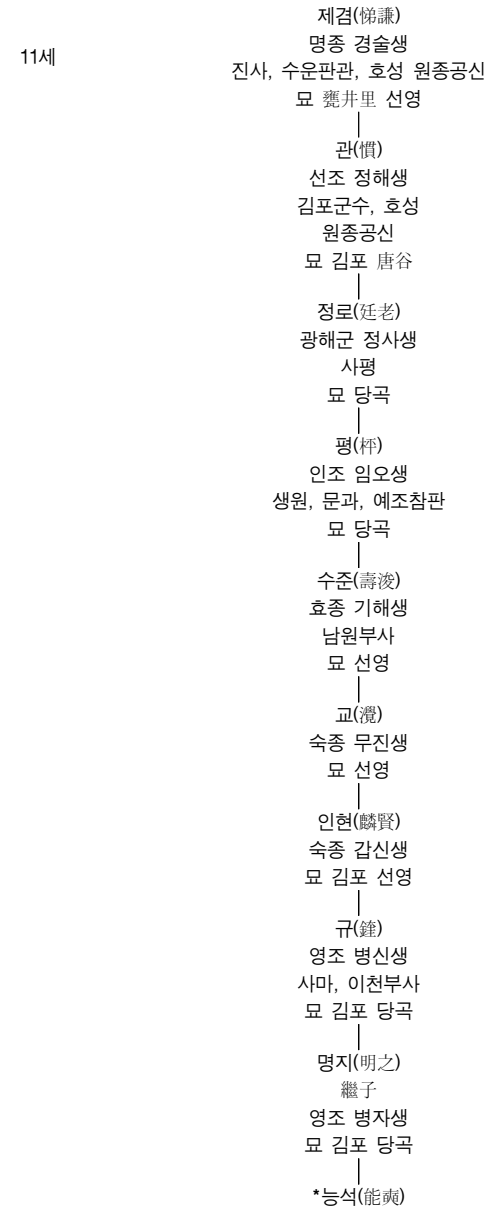


본래 청송심씨 안효공파의 선영은 통진부(通津府) 웅정리(甕井里)로 이들은 대대로 웅정리 선영에 묻혔다. 따라서 16세 심숙의 아버지 심약명(沈若溟)의 묘도 웅정리로 단정되나, 심숙의 묘는 용인 동변면(東邊面) 석봉산(石城山), 심득현(沈得賢)은 춘천, 심대(沈鑑)-심능문(沈能聞)은 고양으로 분산되어 묘소가 경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심의은 집안이 언제 수원으로 이주하였는지 시기를 추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심의은은 고종 22년(1885) 진사시에 3등 190위로 입격하는데 이때 거주지가 수원이며, 심의은에 장남 심인택의 묘는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에 있다. 심인택의 아들 심상익(沈相益)은 묘가 화장되어 위치를 알 수 없고, 심상익의 아들 심원섭(沈元燮)은 묘는 당진군 가교리(佳喬里)이다. 이로 미루어 소급적용을 하면 최소 심의은부터 그 아들 인택까지는 수원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심의은의 차남 심정택(沈定澤)과 그 후손의 묘는 안성 삼죽면 용월리, 당진, 부여로 분산되며, 심의은에 삼남 심준택(沈峻澤)과 준택 후손은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청송심씨 안효공파는 심의은 당대와 장남 심인택은 수원에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원 인근 지역인 타 경기 지방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6> 청송심씨 안효공파 판관공[제겸]파



정조 경신생  
진사  
묘 화성군 正南面 官頭里  
皇谷

심능석(沈能奭)은 철종 10년(1859) 수원에 거주하면서 생원에 입격하였다. 심능석의 선대 묘역은 여타의 안효공파와 마찬가지로 11대 이전까지의 묘역은 통진부 옹정리에 있었으며, 12~19대까지는 대대로 김포 당곡에 있었다. 심능석의 조부 심규(沈錕)와 6대조 심평(沈攄)은 방목에 거주 기록이 남아 있어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둘은 영조 30년(1754)과 숙종 6년(1680)에 한성에서 살았다.

심능석의 묘소와 방목 기록을 종합하면 한성과 경기도 김포를 왕래하며 살았고, 심능석이 수원에 이주하게 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심능석 이후 자손들의 묘가 황곡 또는 화성군 봉담면 마하리임을 감안하면 심능석을 기점으로 수원에 묘역을 조성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묘 수원 만화현  
수원시 二儀洞으로  
이장(1964년)  
|  
종하(鍾河)  
경종 갑진생  
묘 수원시 二儀洞으로  
이장(1979년)  
|  
\*진공(晉恭)  
영조 신묘생  
묘 수원 蘊峴  
수원시 二儀洞으로  
이장(1964년)  
|  
규응(奎膺)  
정조 신해생  
묘 司猛公 묘 왼쪽 언덕  
이의동으로 이장(2000)  
|  
\*후선(厚善)  
순조 갑신생  
응제문과, 정언  
묘 小內洞

<표 3-17> 청송심씨 안효공파 정음공[현]파

11세

대항(大恒)  
선조 갑술생  
강서현령  
묘 山義谷 小寺洞  
|  
유(瀏)  
광해군 계축생  
묘 山義谷 小寺洞  
|  
서형(瑞珩)  
인조 계유생  
묘 수원 萬和峴  
수원시 二儀洞으로  
이장(1964년)  
|  
희득(喜得)  
현종 병오생  
묘 수원 만화현  
수원시 二儀洞으로  
이장(1964년)  
|  
수성(壽星)  
숙종 병자생  
채홍원 행장 씌

심후선(沈厚善)이 현종 9년(1843) 문과에 급제할 당시 거주지는 수원이다. 선조의 묘소는 용인, 산의곡(山義谷)에 있었지만 심후선의 6대조 심서형부터 심후선의 아버지 심규웅까지 연달아 묘소가 수원 만화현(萬和峴), 운현(蘊峴) 등지에 있다. 병기할만한 점은 현대에 와서 13대 심서형의 묘부터 심후선의 손자대까지의 묘를 수원시 이의동으로 이장한다는 점이다.

15대 심수성은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의 봉사손으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한성부 서부(西部)에 거주하는 효자로 나온다.<sup>33)</sup> 그러나 강서현령을 지낸 11대 심대항을 제외하고는 심후선의 직계 선조 중 특별히 입사(入仕)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들이 굳이 한성에서만 살았다고 보기보다는 한성과 경기 일대를 오고가며 살다 수원에 누대 묘소를 조성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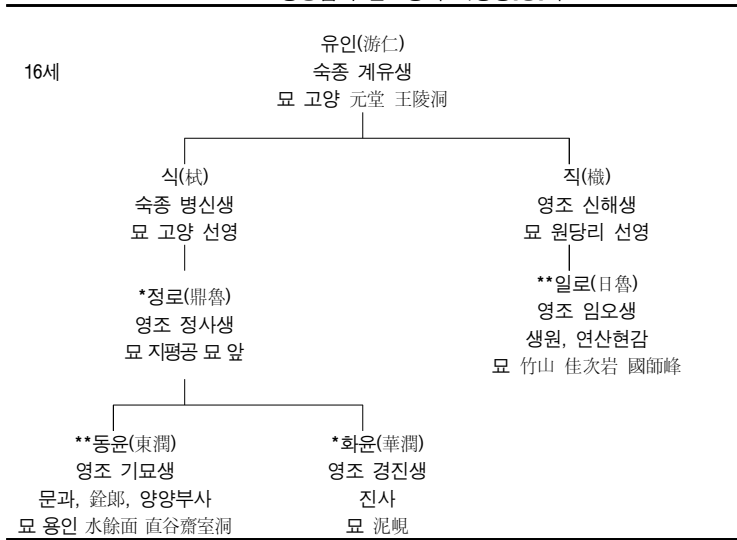
특히 심수성의 행장을 채홍원(蔡弘遠)이 작성해 주는데, 심수성은 효행으로 인해 지평(持平)에 증직 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관직에 나간 적이 없다. 따라서 채홍원이 심수성의 행장을 지어준 것은 채홍원 가문도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인연으로 추정된다.

심후선의 조부 심진공은 정조 15년(1791)에 수원부내(水原府內) 유생으로서 부(賦) 과목에

3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2월 15일, 『일성록』 정조 10년 11월 11일.

서 차중(次中)을 맞아 미 2두, 선 1병, 소어 1급을 받았고, 정조 16년(1792)에도 부 과목에서 차상(次上)을 맞아 미 2말, 대구 1마리를 받았다.<sup>34)</sup> 즉 심후선 집안은 최대 수원에 선영을 조성한 13대 심서형부터, 최소로는 심진공이 응제시에 참여한 시점부터는 수원으로 이주한 집안이다.

<표 3-18> 청송심씨 안효공파 사평공[응]파



화성거주 생원 입격자 심일로와 수원거주 문과 합격자 심동윤·생원 심화윤은 5촌간이다. 심일로는 정조 19년(1795) 화성에 거주하였고, 심동윤은 순조 13년(1813)에 수원에 살았다. 이들이 언제부터 수원에 거주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심일로가 수원에 거주하고 수원부내(水原府內) 유생의 자격으로 응제시에 참여하였으며 심정로, 심동윤, 심화윤 부자도 응제시에 응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 심정로, 심일로 형제 대부분은 수원에 거주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승정 3년 경술증광사마방목(崇禎三庚戌增廣司馬榜目)』에 보면 심화윤은 정조14년(1790) 한성에 거주하며 생원시를 치른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로부터 4년 뒤에 심화윤은 수원 읍내의 유생으로서 수원 응제에 참석한다. 이에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심화윤이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한성에 거주하다 이후에 수원으로 이주하였거나, 심화윤

34) 『일성록』 정조 15년(1791) 5월 2일, 정조 16년(1792) 9월 13일.

이 아버지 심정로와 함께 한성에서 살다 특정 시기 이후에 함께 수원으로 이주한 것일 수도 있다.

심화윤의 아버지 심정로가 수원유생의 자격으로 응제시에 참여하는 시기는 정조 16년(1792)부터이다.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심화윤이 한성에서 독립하며 살았다기보다는 1790년까지는 심정로와 심동윤, 심화윤 부자가 함께 한성에서 살다 그 이후에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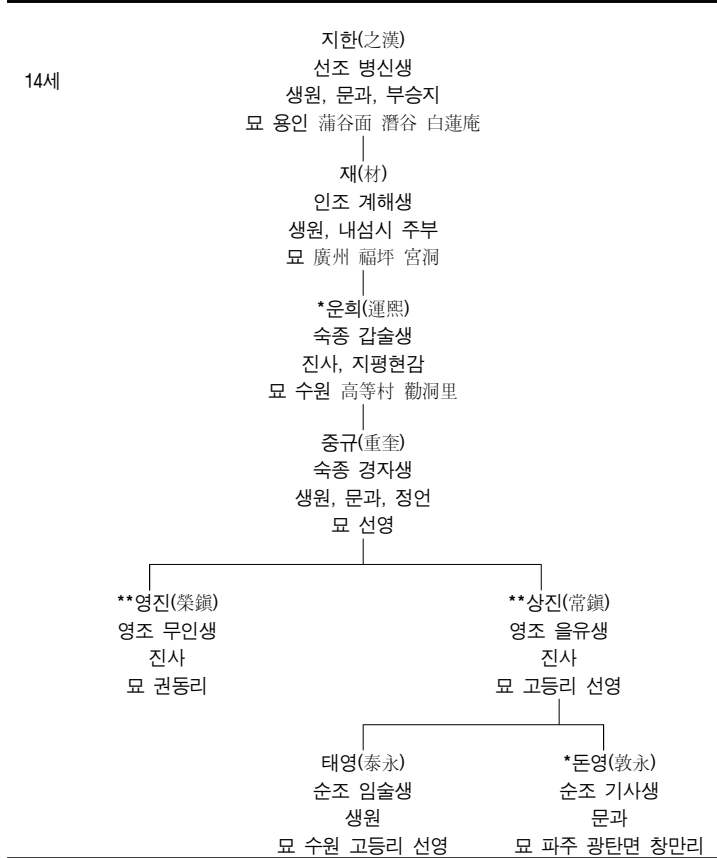
이 집안의 선영(先塋) 위치를 살펴보면 이들의 선대는 누대 고양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선대 중 과거에 등제(登第) 되었던 사람들의 거주지에 대해 살펴보면, 심정로·심일로의 증조 심수근(沈壽根)은 숙종 15년(1689) 한성에 거주하였고, 6대조 심택(沈澤) 또한 인조 13년(1635)에 한성에서 살고 있었다. 즉 심정로, 심일로 집안은 한성과 경기도 지역을 왕래하며 때로는 과거에 응시하고 묘역을 조성한 것이다.

이들 네 명의 응제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9> 청송심씨 심정로·심일로·심동윤·심화윤의 응제 현황

응시자	연도	과목	성적	사은(賜恩)
심정로	정조16년(1792) 9월 13일	부	차상(次上)	미 2말, 대구 1마리
	정조16년(1792) 9월 12일	부	삼중사(三中四)	종이 1권
	정조16년(1792) 9월 13일	부	차상(次上)	미 2말, 대구 1마리
	정조17년(1793) 2월 14일	시	삼하(三下)	미 3말, 대구어 1미
	정조17년(1793) 4월 20일	부	차상(次上)	붓 2자루와 먹 1홀
	정조17년(1793) 12월 26일	부	차상(次上)	미 3말과 백력 1건
	정조18년(1794) 6월 19일	부	초차상(草次上)	선자(扇子) 2자루
	정조18년(1794) 11월 21일	표	삼중	자모 1넝
	정조18년(1794) 12월 8일	표	초차상	세찬미 2말, 백력 1건
		부	삼중이(三中二)	소과(小科) 급제의 자격
부		更試 수석	《주서백선(朱書百選)》 1건	
심동윤	정조19년(1795) 2월 9일	부	초차상(草次上)	붓 2자루, 먹 1홀
	정조17년(1793) 12월 26일	시	초삼하	미 4말
	정조18년(1794) 6월 19일	부	초차상(草次上)	선자(扇子) 2자루
	정조18년(1794) 11월 21일	비교	삼하(三下)	쌀 3말
심화윤	정조18년(1794) 12월 8일	부	초차상	세찬미 2말, 백력 1건
	정조18년(1794) 5월 6일	부	초차상(草次上)	칠별선 1자루

<표 3-20>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 참봉공[현]파



정조 19년(1795) 진사시에 합격한 심영진과 정조 22년(1798) 진사시에 합격한 심상진은 형제로 거주지가 화성이며, 심영진의 경우 이미 정조 17년(1793) 12월에 수원 유생으로 응제시 부 과목에 응시하여 삼중(三中)을 받은 기록이 있다.<sup>35)</sup> 심상진은 진사시에 합격한 그해(1798)에 응제시 부 과목에서 삼하를 받았다.<sup>36)</sup>

심영진, 상진 집안은 조부 심운희 대부터 선영이 수원에 있으며 이 둘의 묘도 수원에 있다. 심운희는 수원으로 들어온 입향조로 판단되는데 숙종 43년(1717) 수원에 거주하면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심운희 이전 선대들의 거주지는 심지한의 경우 인조 2년(1624) 생원에

입격할 당시 거주지가 한성이며, 심재는 효종 2년(1651)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다. 묘역의 위치는 심지한의 부 심탁(沈倬)은 묘가 광주 서문(西門) 밖 마천판문리(馬川板門里)이며, 대대로 광주 중대면(中臺面), 광주 궁동(宮洞), 풍양 건천면(乾川面), 용인 포곡면(蒲谷面)으로 경기 중앙부에 묘역이 조성되었다. 즉 심영진과 심상진 집안은 한성과 경기도 중앙 지역을 왕래하다가 수원으로 이주한 집안이다.

심영진과 상진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의 양상은 다르다. 심영진의 자손은 충청도 서산군 평신(平薪)에 자리 잡은 반면 심상진의 후손 중 심태영은 묘가 수원 고동리 선영에 그대로 있었다.

특기할 것은 수원에 묘가 있는 심태영의 경우 헌종 9년(1843) 생원시에 입격 할 때는 거주지가 한성이며, 동생 심돈영 역시 헌종 2년(1836) 문과에 급제하는데 거주지가 한성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심돈영은 문과 급제 이후인 철종 4년(1853)에 수원에 거주하는 인물로<sup>37)</sup> 확인된다. 이는 증조 심운희가 수원에 입향한 이래 심태영, 돈영 손자 대에는 상황에 따라 다시 한성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성과 수원 양쪽을 오고가면서 거주하였던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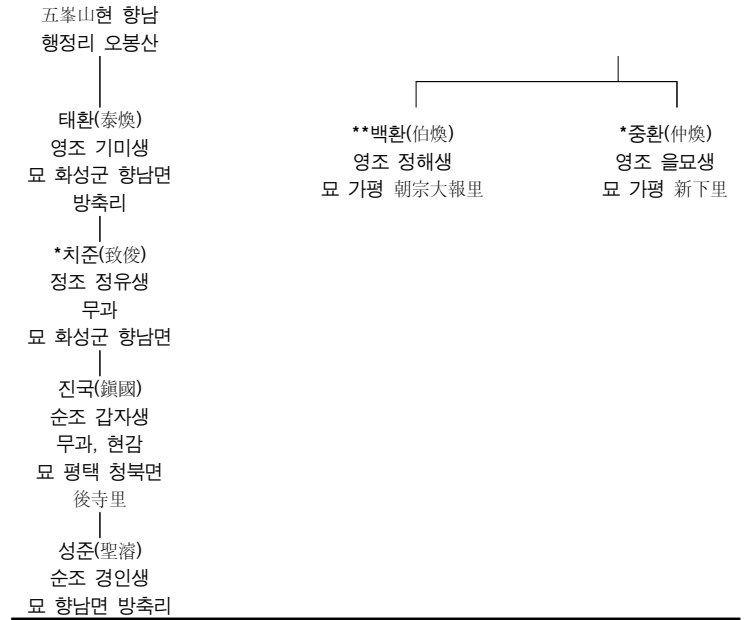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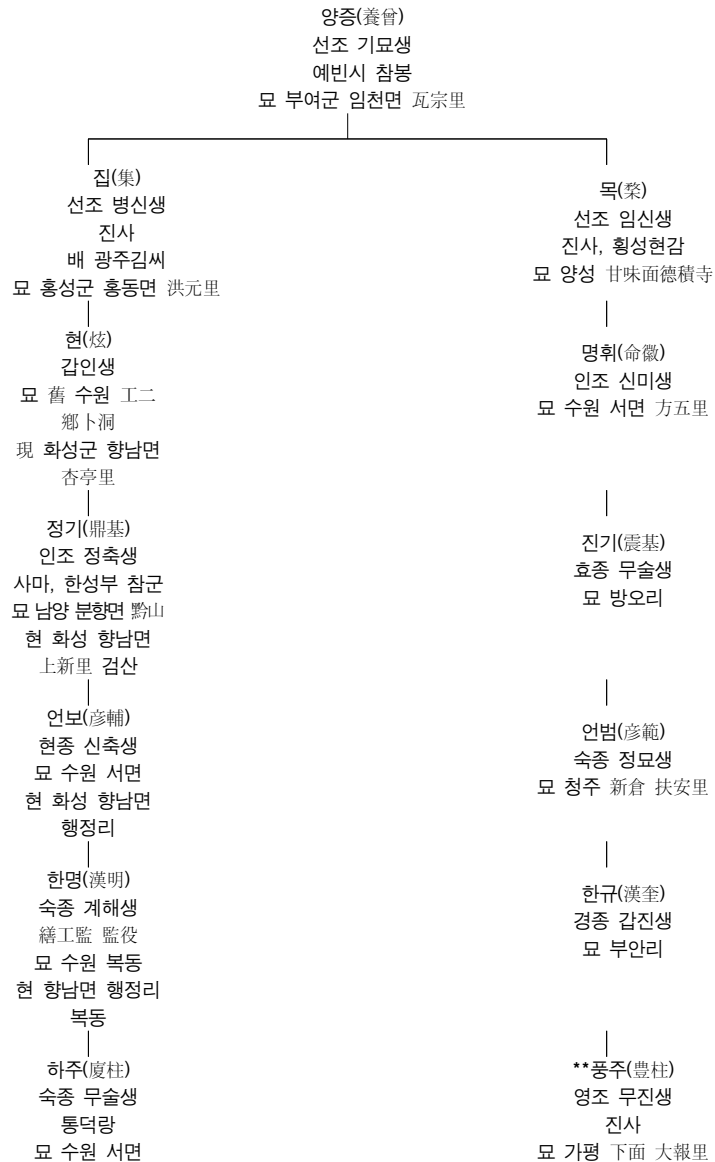
35) 『일성록』 정조 17년 12월 26일.

36) 『일성록』 정조 22년 2월 8일.

37) 『승정원일기』 철종 4년 9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심돈영이 좌승지로 이 당시 수원에 있으므로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啓)하자 철종이 벼슬을 갈아주고 전망단자(前望單子)를 들여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853년에 심돈영이 수원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기계유씨

<표 3-21> 기계유씨



수원, 화성 거주자이면서 무과 및 진사시 출신인 유치준, 유풍주, 유백환은 공통 조상이 유양중이다. 유양중의 아들인 유집과 유목 대에서 유치준과 유풍주 집안이 갈라지는데 유치준은 유집의 아들이고, 유풍주는 유목의 아들이다. 묘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유양중과 유집의 묘소는 충청도에 있으나 유목의 묘는 경기 지역인 양성에 있었다.

유치준은 순조 9년(1809)에 거주지를 수원으로 하여 무과에 급제한다. 유치준의 거주지가 수원인 요인은 유집 이후 후손들의 묘가 모두 화성 향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할 것으로 추정되며, 유치준은 이런 흐름 위에서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준 집안은 충청 지방에서 수원으로 묘역을 옮기면서 이주한 집안이다.

반면 유풍주의 조상 유목의 묘는 양성 감미면으로 양성군 감미면은 1906년 칙령 제49호에 의해 양성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되는 만큼 수원과 경계가 인접하다. 따라서 유목의 아들 유명휘와 손자 유진기의 묘도 인근인 수원 서면 방오리에 놓여 있으나 유진기의 아들 유언범과 그 아들 묘는 청주에 있다.

수원에 거주한 유풍주와 그 두 아들 유백환, 유중환의 묘역은 경기도 가평이다. 이렇듯 유풍주 집안은 묘역이 충청도와 경기도 사이를 오고가며 선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응시할 즈음에는 묘역이 경기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조시기 수원, 화성 응제에 참

여를 많이 하는데 유평주와 유백환, 유중환 부자의 응제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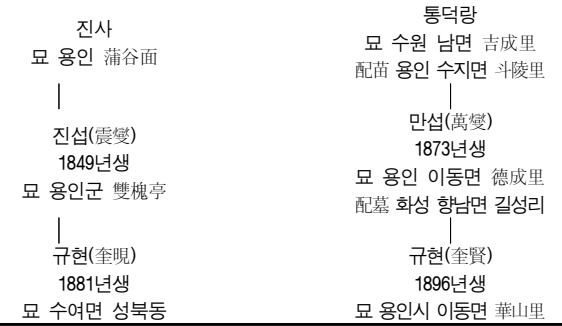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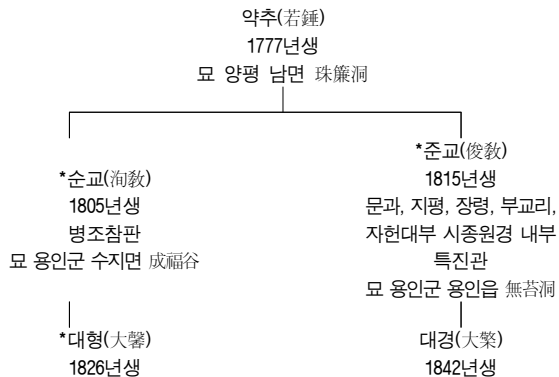
<표 3-22> 기계유씨 유평주·유백환·유중환 응제 현황

응시자	연도	과목	성적	사은(賜恩)
유평주	정조15년(1791) 2월 25일	부	삼중(三中)	초장지(草壯紙) 1권
유중환	정조 15년(1791) 4월 3일	응제시(應製詩)	차하	소서염 2급
	정조 17년(1793)8월 1일	시	차상	붓 3자루와 먹 1홀
	정조 17년 10월 20일	부	삼중	백면지 2권, 붓 2자루
	정조 17년 12월 26일	부	차상	미3말과 백련 1건
	정조 18년(1794) 6월 19일	부	초차상	선자 2자루
	정조 18년 11월 21일	부	차상	자모(紫帽) 1넝
	정조 18년 12월 8일	부	초차상	세참미 2말, 백력 1건
유백환	정조 19년(1795) 2월 9일	시	초차상	붓 2자루, 먹 1홀
	정조 14년(1790) 5월 6일	고시(古詩)	초차상	선자1병
	정조 14년 12월 11일	부	차상	미 7두

이 세 부자는 모두 수원과 화성 유생으로서 응제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응제시에 응시한 시기는 1790년부터 1795년에 걸친다. 유평주가 진사사에서 입격하는 정조 7년(1783)에서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평주가 수원으로 이주한 것은 1783년 이후로 추정된다. 유백환은 정조 22년(1798) 진사사에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화성이다. 따라서 응제시 이후인 1798년에도 여전히 수원, 화성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7) 나주정씨 월헌공파

<표 3-23> 나주정씨 월헌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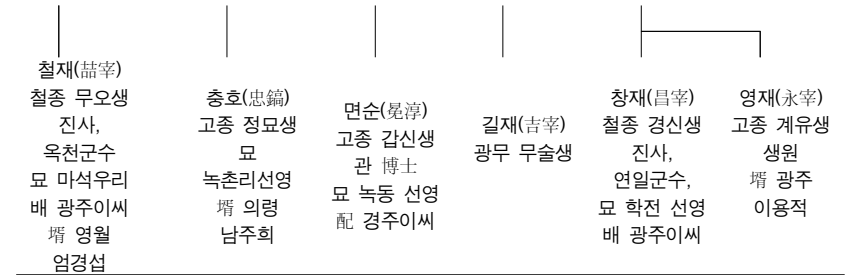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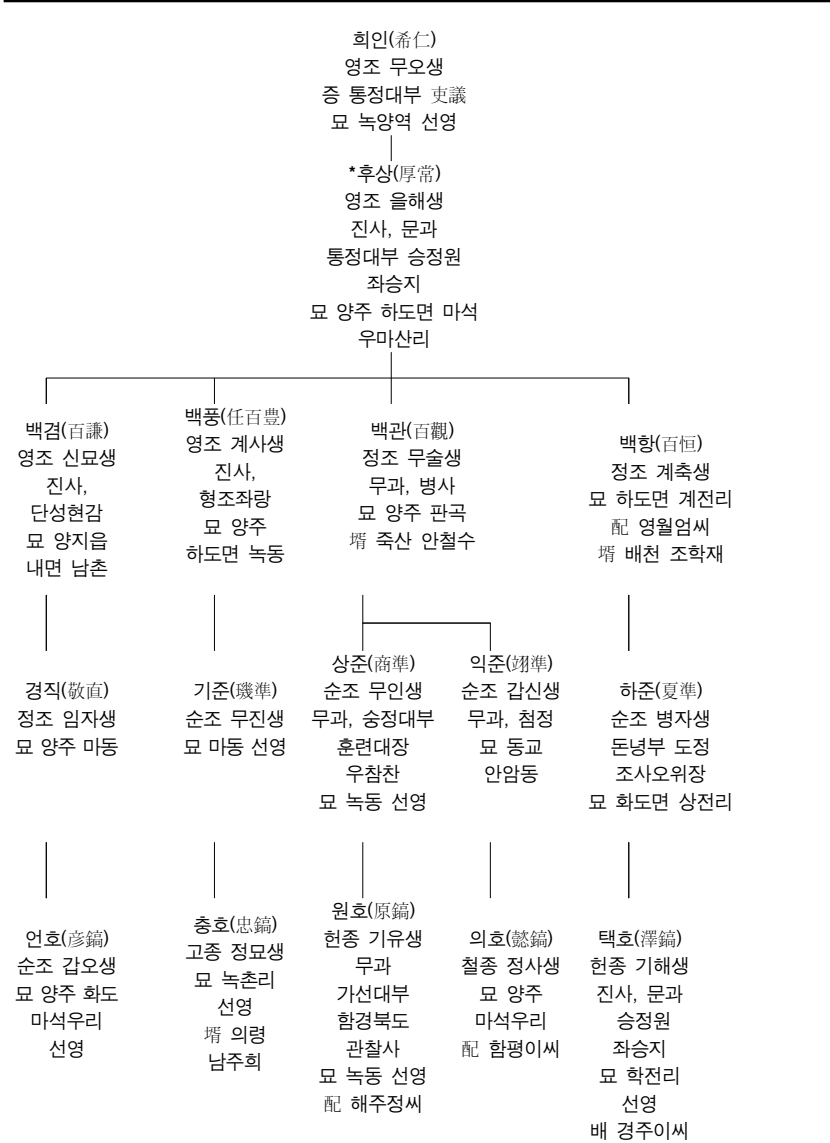


정순교와 정준교 형제는 정약추의 아들로 이들은 다산 정약용은 조카이다. 정순교는 고종 27년(1890)에 기로응제시(耆老應製試) 문과에 급제하고, 정준교는 개명 전 이름이 정학준(丁學浚)으로 고종 4년(1867) 문과에 합격하는데 두 형제는 급제 당시 거주지가 수원이다. 정대형은 정순교의 아들로 정대형 또한 수원에 거주하면서 고종 16년(1879) 생원시에 입격한다.

정약추의 묘는 양평 남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곳은 정약추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현 재로는 남양주인 지역과 근접한 곳이다. 정약추의 아버지 정재원도 영조 38년(1762)에 생원시에 입격하는데 거주지가 광주였다. 그러므로 정약추의 묘소는 자신의 고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들 정순교와 정준교 대에 들어서면 묘역이 용인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묘역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들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응시하고 있다.

8) 풍천임씨

<표 3-24> 풍천임씨 ①



임후상은 정조 16년(1792) 1월 25일에 수원부 읍내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시취에서 삼하일(三下一)을 맞아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그 해에 문과에 합격하는데 거주지가 수원이다.

임후상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 셋째 아들인 임백관의 사위 죽산 안철수(安喆壽)의 외조는 함평 이유경(李儒敬)이다. 이유경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진사시에 합격하는 이기서(李基緜)의 아버지이다. 임백관의 손자 임의호 또한 함평이씨 집안과 혼인으로 연결된다. 임의호의 장인은 함평 이민택(李敏宅)으로, 이민택은 수원거주 과거합격자인 이기서의 아들이다.

임백관의 손자 임원호는 해주정씨 정광시(鄭匡始)의 딸과 혼인을 했다. 부인인 해주정씨의 외조는 영월 엄석양(嚴錫良)으로 엄석양은 수원에 거주한 영월읍씨 집안의 인물이다. 풍천임씨, 해주정씨의 인연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원호의 장인인 정광시의 아버지는 정천화(鄭天和)라는 인물로 정천화의 어머니가 임희후(任希厚)의 딸이다. 임희후는 수원출신으로 진사시에 합격하고 응제시 출신인 임우상(任禹常)의 아버지이다.

넷째 아들 임백항의 장인은 영월 엄기(嚴耆)로 엄기 또한 수원에 거주하며 과거에 급제한 엄석정의 아버지이자 엄돈영, 엄조영의 조부가 된다. 또한 임백항의 사위는 배천 조학재(趙鶴在)로 조학재는 철종 9년(1858)에 수원에 거주하면서 생원시에 합격한 자이다. 이처럼 수원이 거주지이면서 과거에 합격한 임후상의 자손들과 수원출신 과거 등제 가문들 간에 연고가 보인다.

이처럼 풍천임씨 가문은 여타 수원으로 이주하여 과거에 급제한 다른 집안들과 혼맥(婚脈)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백겸의 증손자 임철재의 사위는 영월 엄경섭(嚴經燮)으로 엄경섭은 수원거주 과거합격자인 엄조영의 손자이다. 임백풍의 자손 중 임충호의 사위는 의령 남주희(南胄熙)로 남주희의 아버지는 참관을 지낸 남정규(南廷奎)이다. 이 남정규는 수원출신 가문인 영월 엄종섭(嚴鍾燮)과 매부관계이다.



임택호와 7촌간인 임면순은 처가는 모두 경주이씨이다. 임면순의 장인 이규승(李圭昇)의 아버지는 이겸주(李謙周)로, 이 이겸주가 바로 이택호의 장인이다. 풍천임씨와 연결되는 이경주이씨 가문은 대대로 무과에 응시한 무관 집안이다.

임택호의 아들 임영재의 사위는 광주 이용적(李容迪)이다. 이용적은 수원 출신 과거 급제자인 배천 조관재의 손자 조택수의 장인이다. 광주이씨는 풍천임씨 집안과 겹사돈을 맺고 있는데, 8촌간인 임철재와 임창재의 장인은 이용근(李容根)으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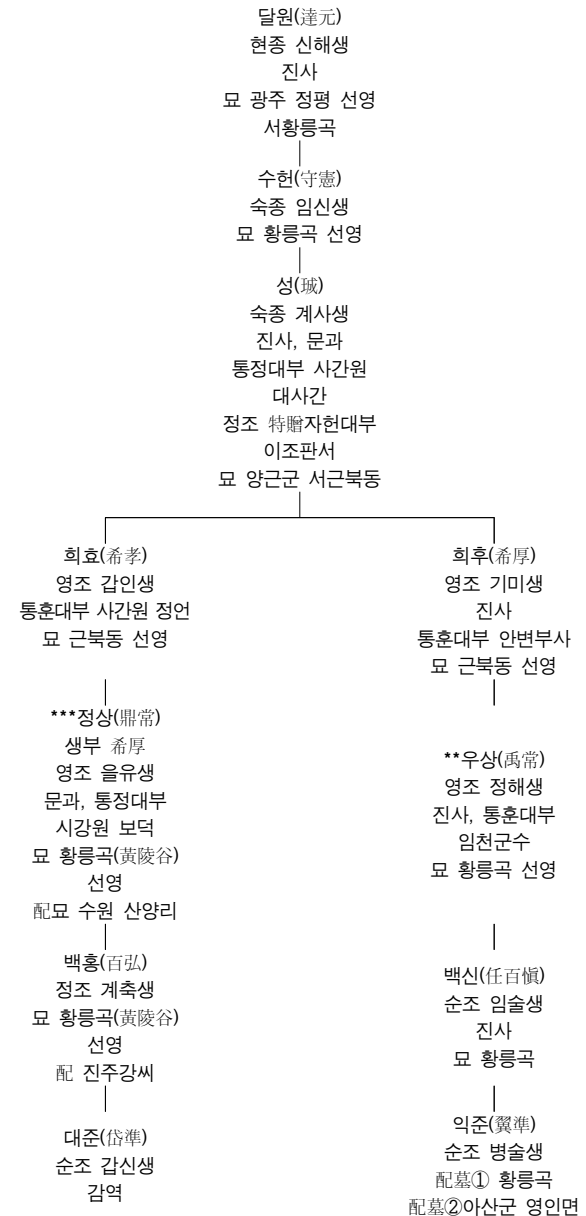
임후상 집안의 선영을 살펴보면, 선대와 후대 모두 대대로 양주 녹양역, 하도면, 마동 등 양주에 자리를 잡고 있다. 임후상의 증손자인 임택호는 방목 기록에 고종 22년(1885)에 문과에 합격할 때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으며, 임택호의 아들 임창재도 고종 17년(1880) 진사시에 입격을 하는데 거주지가 한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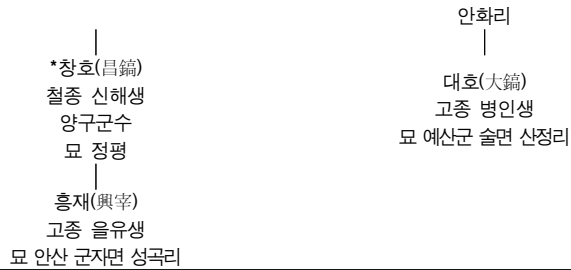
이렇듯 임후상의 자손 중에는 수원에 거주하며 과거에 응시한 자들 외에도, 한성에 머무르면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보인다. 이들은 같은 한성 출신 가문들과 혼인을 하거나 다른 경기 지역 출신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앞서 살펴본 임택호의 장인 이겸주는 한성출신 무과 급제자이며, 택호의 손자 흥순(興淳)은 한성출신 문과 합격자인 전주 이순하(李舜夏)의 딸과 혼인하였다. 택호의 아들 영재(永宰)의 경우 청송 심영경(沈英慶)의 딸과 혼인하는데 심영경은 강화 출신 진사 입격자이다. 즉, 임택호와 혼인 관계로 이어지는 가문들은 모두 과거(科擧)를 매개체로 하는 가문으로 대부분 한성 출신이며, 이를 풍천임씨 집안 전체로 확대하면 풍천임씨 집안과 혼인으로 연결되는 가문들은 주로 한성 출신 과거 급제자 집안과 수원 출신 과거 급제자 집안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상 임후상 집안의 묘역과 혼인관계, 과거 이력을 종합하면 임후상의 집안은 경기도 양주에서 묘역을 조성하면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여타의 수원출신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서도 때로는 한성 출신의 과거 합격자들과 혼인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풍천임씨 임후상의 후손은 한성과 경기도 지역 중 수원을 오고간 가문으로 추정된다.

<표 3-25> 풍천임씨 ②





임우상, 임정상, 임창호는 수원출신 과거합격자들이다. 임우상은 순조 10년(1810) 수원출신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임정상은 순조 7년(1807) 화성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하였다. 임정상의 증손자인 임창호는 고종 16년(1879)에 생원시에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세거지가 수원이었다.

임우상과 임정상은 4촌 사이로 모두 수원, 화성유생 자격으로 정조대에 응제시에 응시하였다. 임우상과 임정상의 응제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6> 풍천임씨 임우상·임정상 응제 현황

응시자	연도	과목	성적	사은(賜恩)
임우상	정조14년(1790) 12월 11일	표	삼하(三下)	미 8두(斗)
	정조15년(1791) 12월 23일	시	삼하(三下) 차상(次上)	《정음통석(正音通釋)》 1건 《백력》 1건
	정조16년(1792) 9월 7일	부	삼하(三下)	붓 2자루, 먹 1홀
	정조16년(1792) 9월 12일	부	삼중일(三中一)	《정음통석(正音通釋)》 1건(件)
	정조16년(1792) 9월 13일	부	차상(次上)	미 2말, 대구 1마리
	정조16년 (1792) 9월 20일	부	차상(次上) 삼중(三中)	장지 1권 《필자백선》 1건
	정조16년(1792) 12월 13일	부	차상(次上)	세찬미 5말씩
	정조17년(1793) 2월 14일	시	삼상(三上)	미 4말, 대구어 2미
	정조17년(1793) 8월 1일	시	차상(次上)	붓 3자루와 먹 1홀
	정조18년(1794) 6월 19일	부	초차상(草次上)	선자(扇子) 2자루
	정조19년(1795) 2월 9일	시	초차상(草次上)	식물과 미 2말
	정조21년(1797) 9월 12일	시	차상(次上)	소본 《규장전운》 1건
임정상	정조14년(1790) 6월 7일	고시	차상	선자 2병
	정조14년(1790) 12월 7일	시	차상	지 1권, 황장력 1건
	정조14년(1790) 12월 11일	표	삼하(三下)	미 8두(斗)
	정조17년(1793) 6월 18일	부	차상	부채 3자루
	정조17년(1793) 8월 2일	부	삼하	백면지(白綿紙) 각 1권
	정조18년(1794) 6월 19일	부	초차상(草次上)	선자(扇子) 2자루
	정조18년(1794) 12월 8일	표	초차상	세찬미 2말, 백력 1건
	정조19년 (1795) 3월 10일	시	삼하일(三下一)	점심미 5말

임우상과 임정상은 1790년부터 1797년까지 이들은 수원 유생으로 자격으로 때로는 화성 유생의 자격으로 응제시에 끊임없이 응시하였다. 임우상의 아버지 임희후는 진사에 합격하여 『사마방목』에 거주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영조 38년(1762)에 한성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임희후의 아버지 임성 또한 영조 11년(1735) 진사시 때와 영조 31년(1755) 문과 급제 때의 거주지가 한성이다. 임희후의 증조인 임달원 또한 숙종 25년(1699)에 진사에 합격하는데 거주지가 한성이다.

즉 17세기 후반과 18세기까지 임우상과 임정상의 선대는 주로 한성에서 거주하고 묘역은 경기도 광주에 조성하였다. 따라서 언제부터 수원으로 이주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응제시 이후에도 임우상, 임정상 이 두 사람은 과거에 등제되는 1807년과 1810년에도 여전히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임우상은 순조 13년(1813)에 수원부 유생으로 응제에 합격한 기록이 있다.<sup>38)</sup>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수원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 수원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790년 2월에 입격한 유생들이 정조를 입시(入侍)할 때 정조는 임우상에게 임성(任誠)의 손자인지를 물으며 임우상의 숙부가 수원에 우거(寓居)하고 있기 때문에 응제 때 언달아 시권을 올렸으나, 임우상은 서울에 있어 응제에 응하지 못했냐고 묻자 임우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어 정조는 임우상의 집안은 다른 집안과는 다른데, 임우상의 숙부가 가족을 거느리고 곧장 내려 와서 살아 수원에 들어온 기한이 잦다고 말하였다.<sup>39)</sup>

이렇게 2월까지의 한성에 거주하던 임우상은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유생으로 응제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다 2월과 12월 사이에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조와 임우상의 대화에 등장하는 숙부는 임희존(任希存)으로 추정<sup>40)</sup>되는데 이를 통해 1790년 이전에 이미 임희존은 가족들을 데리고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임정상의 생부 임희후는 순조 17년(1817)에 지평이었는데 이 당시 수원에 사는 것으로 나온다.<sup>41)</sup> 또한 본인의 묘는 광주에 있으나 부인 풍산심씨의 묘가 수원 산양리에 있고, 증손자 임창호가 고종 대에 수원에 거주하며 과거에 응시하는 것으로 보아 수원에 이주한 이래 수원에 정착한 사례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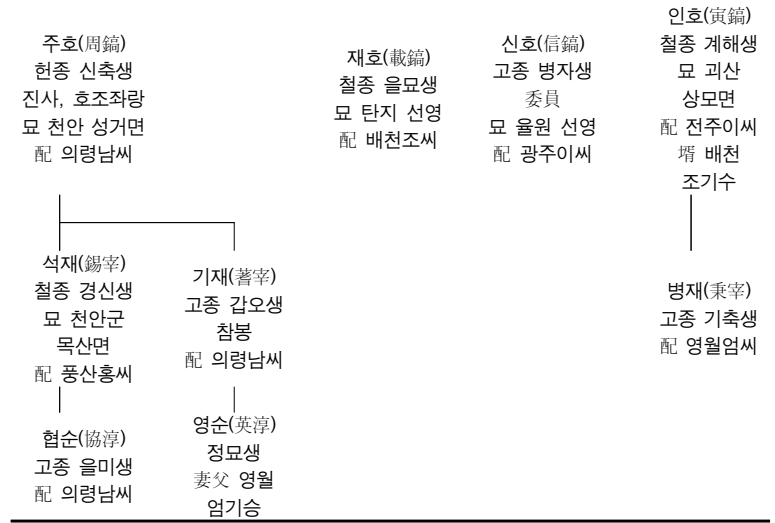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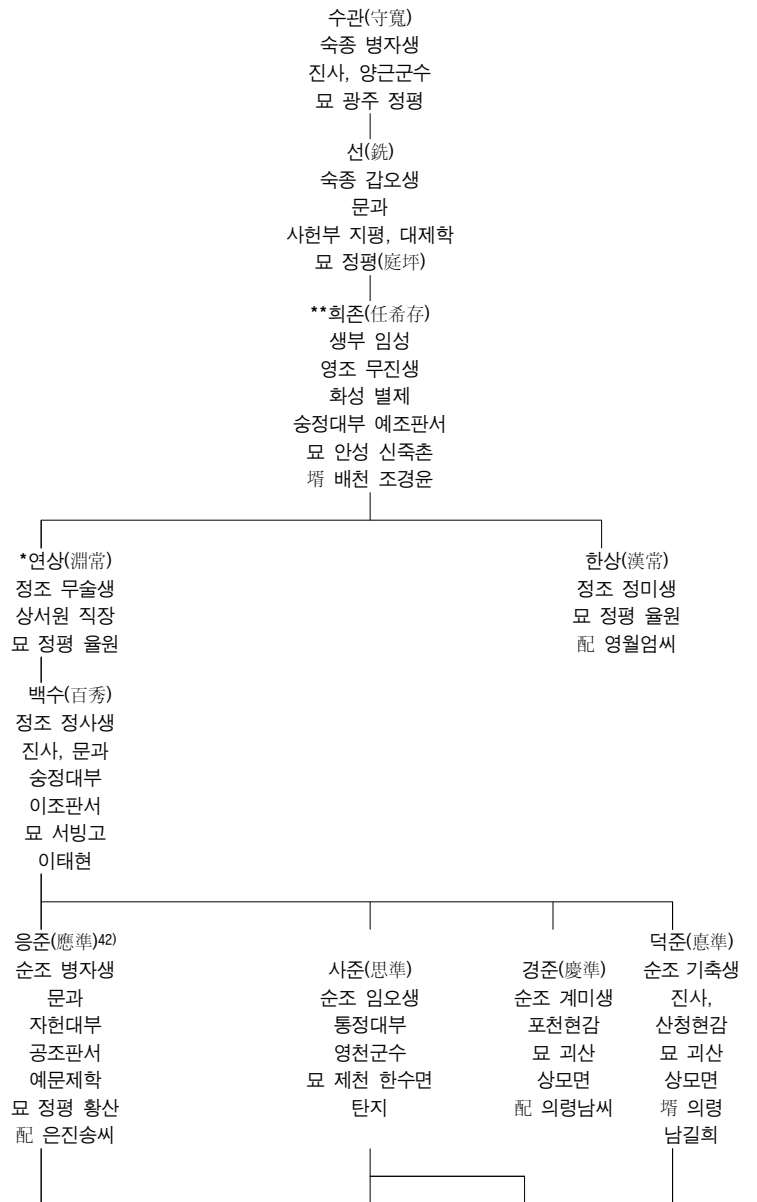
38) 『승정원일기』 순조13년(1813) 9월 10일.

39) 『승정원일기』 정조14년 12월 6일.

40) 『일성록』 정조 15년(1791) 1월 17일자에 따르면 정조가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입격 유생들을 소견할 때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진사 임희존이었다. 정조는 임희존에게 너는 임성의 아들로서 수원에서 과거에 합격하였다며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심정을 토로하고는 임성의 사우(嗣宇)도 수원에 있는지 묻자 임희존이 가족들은 이미 데려왔지만 사우는 서울에 있는 옛 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정조가 임성에 주목한 것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 할 때 임성이 그 잘못을 빌며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정조와 임희존의 문답을 통해 정조와 임우상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숙부는 임희존임을 알 수 있다.

41) 『승정원일기』 순조 17년 8월 19일.

<표 3-27> 풍천임씨 ③



임희존은 생부가 임성으로 정조 18년(1794) 문과에 급제하는데 거주지가 화성으로 나온다. 임희존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친아버지 사우드 한성에 있었고 계(系) 조부 임수관 또한 숙종 45년(1719) 진사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수원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한성에서 세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희존은 수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여 수원에서 치러지는 응제시에 응하는데 정조 14년(1790) 6월 7일 응제 기록이 가장 이른다.

임희존의 사위는 배천 조경운(趙庚胤)으로 조경운의 손자 조학재(趙鶴在)는 수원거주 생원시 입격자이다. 또한 조경운의 사위는 영월 엄석명(嚴錫明)인데 엄석명은 엄경하(嚴慶遐)의 4대손으로, 이 엄경하는 수원거주 과거 합격자인 엄석리, 엄석정, 엄돈영, 엄조영, 엄시의 조상이다. 임희존의 며느리는 영월 엄기(嚴耆)의 딸이다. 엄기는 수원 거주 과거합격자인 엄석정의 아버지이자 마찬가지로 수원거주 급제자인 엄돈영·조영의 조부이다. 임희존의 증손자인 임경준의 부인은 의령 남헌교(南獻敎)의 딸이자 외조는 영월 엄기이다.

이외 임희존의 5대손인 임병재의 배우자도 영월 엄주흥(嚴柱興)으로 엄주흥에 증조는 엄석희다. 엄석희는 수원출신으로 과거에 응시한 엄규의 아들이며, 엄주국의 조부이다. 임희존의 6대손인 임영순은 영월염씨 엄기승(嚴基承)의 사위로, 엄기승은 수원거주 문과 합격자인 엄돈영의 증손자이다. 이 인연은 임희존의 6대손까지 이어진다. 임희존의 6대손 임협순

42) 현종(憲宗) 14년(1848) 문과 합격 시 세거지 한성

은 의령 남상오(南相五)의 딸과 혼인을 맺는데, 부인의 외조는 영월 엄세영(嚴世永)이다. 엄세영은 수원 출신 엄시의 손자이다. 이처럼 임희존의 후손들은 수원에 거주하며 과거에 급제한 영월엄씨파 연결되어 인연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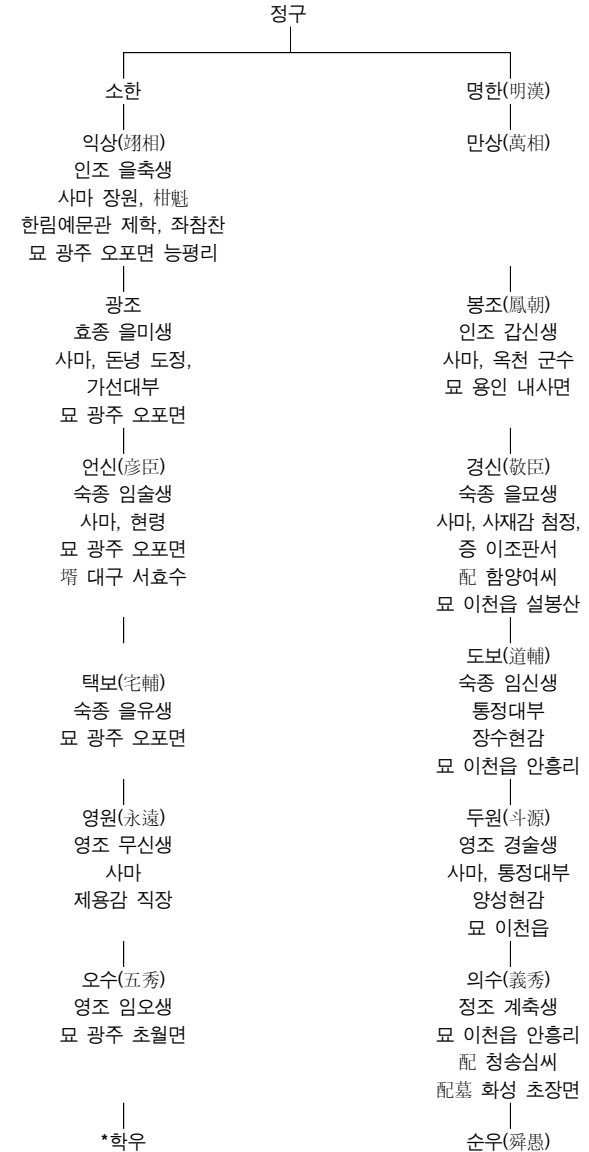
임희존의 아들 임연상은 순조 5년(1815)에 화성에 거주하며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임연상의 아들 임백수가 순조 25년(1825) 진사, 헌종 5년(1839) 문과에 합격할 때 거주지가 한성이며, 임백수의 아들 임응준 또한 헌종 14년(1848) 문과 합격 시 거주지가 한성이다. 이로 보아 임희존이 수원에 정착한 후 그 아들 임연상은 수원에 거주하며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거나 임희존의 손자 대에는 다시 기존에 살던 한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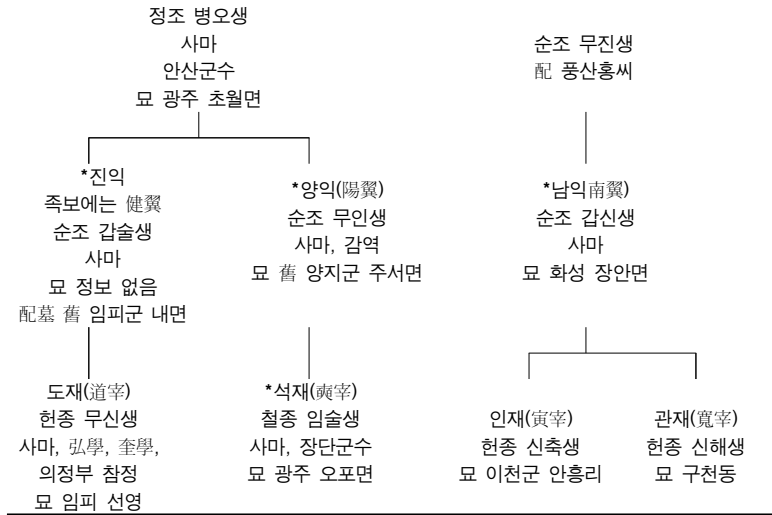
임응준의 장인은 송주화(宋宙和)로 송주화의 조부는 판서를 지낸 송영(宋鏞)이다. 송영은 임희존의 아들 임한상 부인의 외조가 된다. 임응준의 장인 송주화는 또한 응준의 조카인 임신희 부인 광주이씨의 외조부이다. 이런 사례는 임경준과 임기재와 임주호-임인호, 임덕준-임협순 사이에서도 보인다. 임경준의 장인 의령 남헌교는 임기재 아내의 증조가 되며, 임주호의 장인은 의령 남정순(南廷順)으로 임인호(任寅鎬) 아내 외조와 동일 인물이다. 임협순의 부인 의령 남상오(南相五)의 딸은 증조가 남정현(南廷顯)이다. 남정현은 곧 임덕준의 사위인 남길희(南吉熙)의 아버지이다.

이 집안은 영월엄씨 외에도 수원거주 과거합격자 집안인 배천 조씨와 관련이 깊다. 임재호의 장인은 배천 조익재(趙翊在)로 조익재는 수원거주 입격자인 조학재, 조관재와 사촌이다. 또한 임재호의 딸은 조관재의 아들 조종명(趙鍾鳴)과 혼인하였으며 임인호의 사위는 배천 조기수로 조기수(趙箕洙)는 곧 조학재의 손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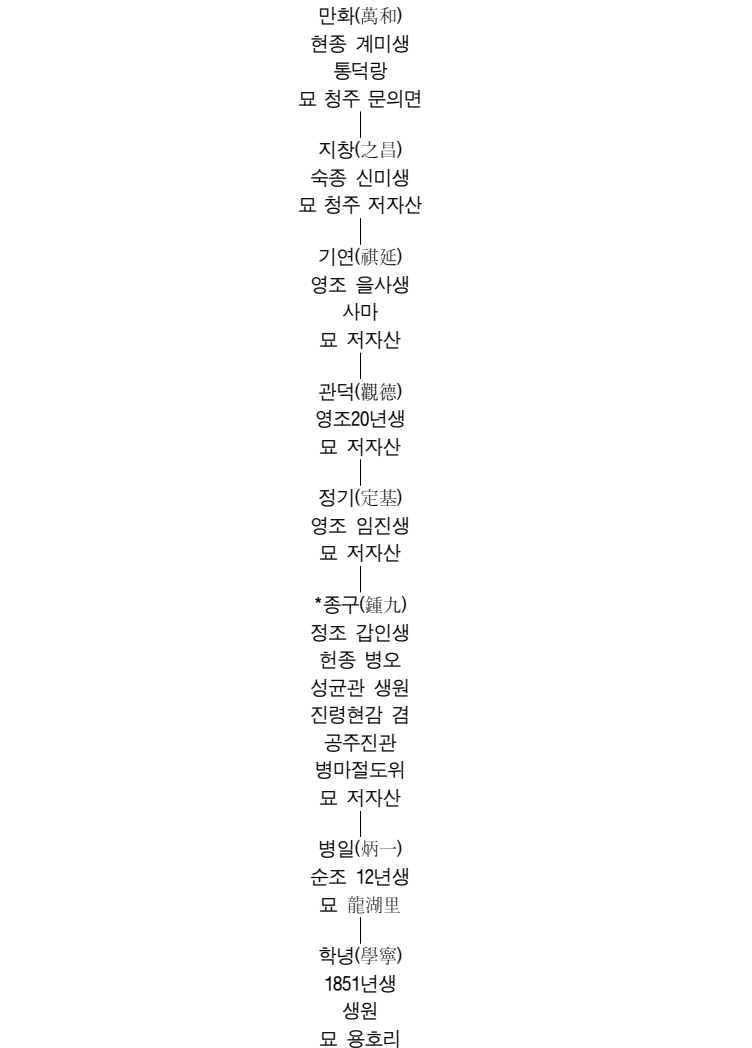
9) 연안이씨

<표 3-28> 연안이씨 금곡공파(琴谷公派)





<표 3-29> 연안이씨 첨사공파(詹事公派)



이학우는 순조 34년(1834) 생원시, 이학우의 아들 이진익과 이양익은 각각 현종 12년(1846) 진사시, 고종 13년(1876) 생원시에 입격하며, 이양익의 아들 이석제는 고종 22년(1885)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이양익과 16촌인 이남익은 고종 10년(1873)에 진사시에 입격한다. 따라서 이들의 입격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학우가 1834년에는 수원으로 이주하였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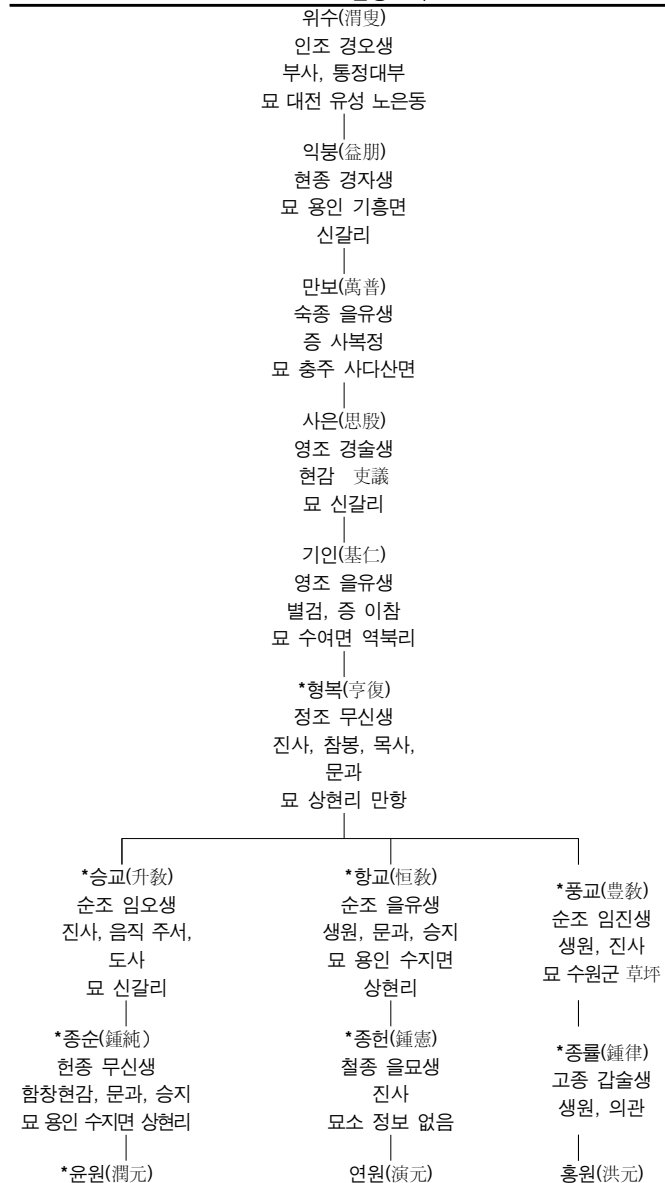
이학우의 조부 이영원은 영조 50년(1744)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조 이언신은 영조 3년(1727)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다. 6대조 이익상은 현종 1년(1660) 문과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며, 익상의 조부 이정구(李廷龜)는 선조 23년(1590)에 문과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다.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이학우 집안은 묘역은 경기도 광주에 조성하고 선대들은 누차 한성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남익의 선대 묘역은 6대조 이봉조는 묘역이 경기도 용인에 있으나 그 이후에는 경기도 이전에 있다. 이남익의 조부 이의수에 들어와서는 이의수 본인의 묘는 여전히 이전에 있으나 배우자 청송심씨의 묘가 화성 초장면에 있다. 이남익의 아버지 이순우 부인은 풍산 홍성모(洪性謨)의 딸로, 홍성모는 수원출신 진사 입격자이다. 따라서 이남익 집안은 이남익의 아버지 대에는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구는 수원출신으로 현종 12년(1846)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이종구의 선대 묘역은 충청북도 청주 문의면, 저자산 일대며 아들과 손자 묘역도 충북 옥천에 있는 용호리이다. 이로 미루어 이종구 집안은 충청도 일대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집안으로 확인된다.

10) 한양조씨

<표 3-30> 한양조씨



족보에는 洛元으로 기재됨. 고종 갑술생 진사 묘 용인 수지면 상현리	무오생(1918) 배 의령남씨(부: 廷爽) 묘소 정보 없음	고종 정미생 배 광산김씨 묘소 정보 없음
---	---	------------------------------

수원거주 한양조씨들은 조광조(趙光祖)의 후손으로 조형복이 순조 10년(1810) 진사시, 현종 1년(1835) 문과에 급제하는데 당시 세거지가 수원이었다. 조형복의 세 아들 조승교, 조항교, 조풍교도 모두 거주지가 수원으로 소과에 입격하거나 대과에 급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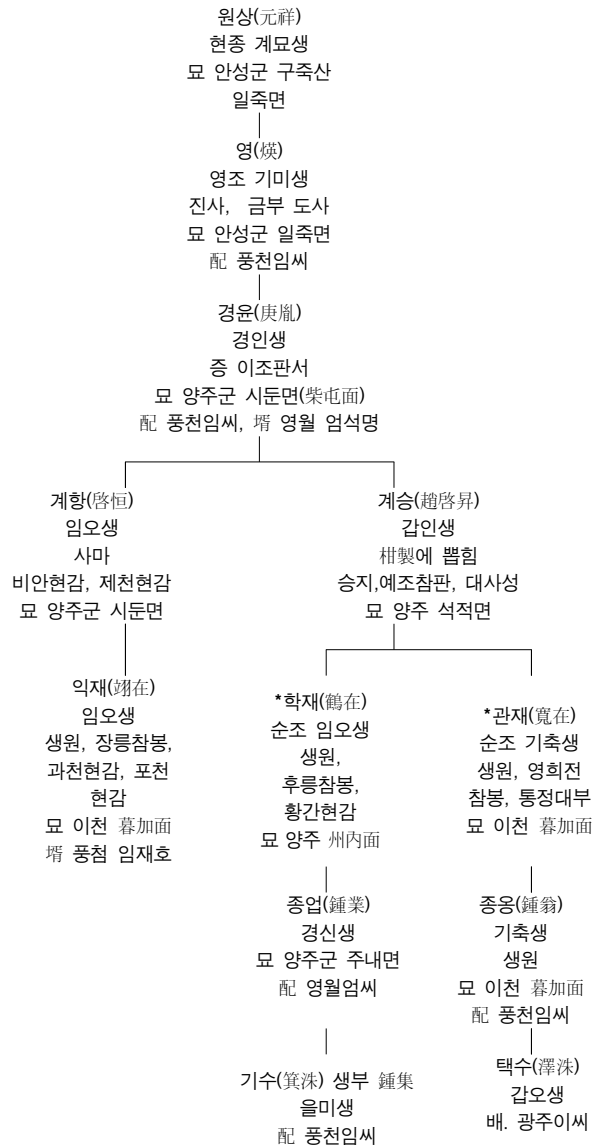
조승교는 조형복의 장남으로 현종 12년(1846)에 진사가 되었으며, 차남 조항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현종 14년(1848)에 생원시에서 입격하였고, 삼남 조풍교는 고종 4년(1867)에 생원에 입격하였다.

조형복의 손자 대 이후에도 수원에 거주하는데 조승교의 아들 조종순은 고종 22년(1885)에 문과, 조종순의 아들 조윤원은 고종 28년(1891) 생원에 입격한다. 조항교의 아들 조종헌은 고종 25년(1888) 진사시에, 조풍교의 아들 조종률은 고종 31년(1894) 생원시에 입격한다. 이들 모두 사마방목에서 거주지가 수원으로 확인되는데 조형복이 처음 1810년에 수원에서 진사시에 입격한 이래 그 후손들이 19세기말까지 계속 수원을 근거지로 하여 과거에 입격 또는 급제한 것이다.

한양조씨의 묘역은 조위수의 묘와 조만보의 묘가 충청도에 있으나 대체적으로 용인에 선영을 조성하였다. 이는 수원을 거주지로 과거에 응시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조풍교는 묘가 수원군 초평에 있어 수원출신 과거 합격자이면서 묘도 수원에 있는 경우이다.

11) 배천조씨

<표 3-31> 배천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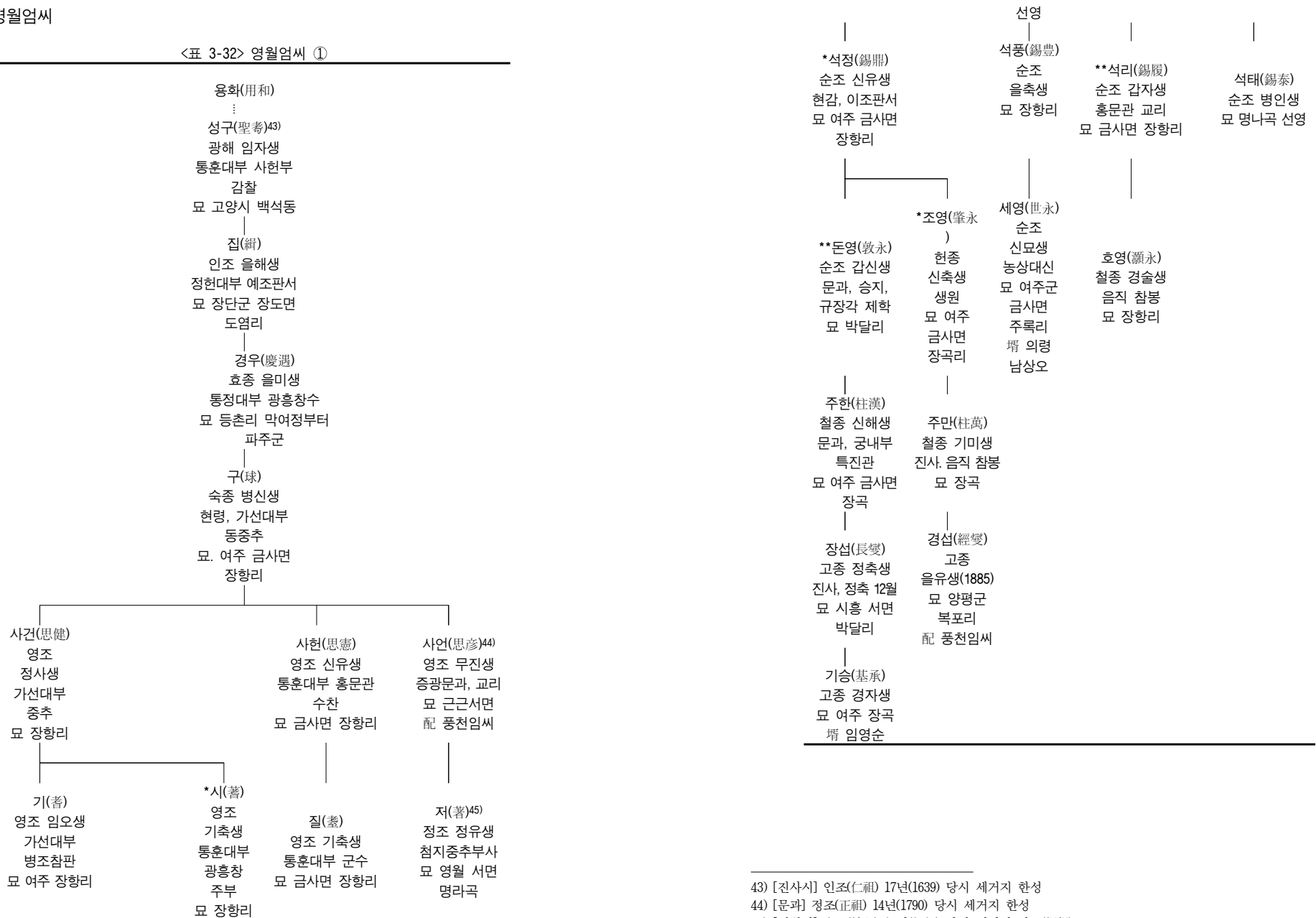


조학재와 조관재는 수원출신 생원 입격자이다. 조학재는 철종 9년(1858), 조관재는 철종 10년(1859)에 수원에 거주하면서 생원이 되었다. 두 형제의 아버지 조계승은 정조 4년(1780) 진사, 순조 25년(1825) 문과에 합격할 당시 거주지가 한성이었다. 조학재와 조관재의 형인 조용재(趙容在)도 아버지 조계승처럼 현종 12년(1846) 진사에 입격이 될 때 세거지가 한성으로 되어있다. 조계승의 조부 조영 또한 정조 4년(1780) 진사 합격 시 세거지가 한성이었다.

조학재 선대의 묘역을 살펴보면 안성군, 양주군으로 경기도 남쪽과 서울의 동북부 지방이다. 이렇듯 조학재 형제 가문은 선대는 과거를 치를 때는 한성에 세거하였고, 묘소는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에 자리 잡았다. 언제 이 집안이 수원으로 이주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형제가 함께 수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 조계승 말년에 수원으로 이주한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12) 영월읍씨

<표 3-32> 영월읍씨 ①



43) [진사시] 인조(仁祖) 17년(1639) 당시 세거지 한성  
 44) [문과] 정조(正祖) 14년(1790) 당시 세거지 한성  
 45) [생원시] 순조(純祖) 10년(1810) 당시 세거지 양근(楊根)



엄시, 엄석정, 엄석리, 엄돈영, 엄조영은 수원출신 과거합격자들이다. 엄시는 순조 27년(1827) 진사시, 엄석정은 순조 28년(1828) 생원, 엄석리는 동년 문과, 엄돈영은 철종 3년(1852) 문과, 엄조영은 고종 1년(1864)에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수원이다.

그러나 엄석정의 경우 문과에 등과(登科) 되던 헌종 10년(1844)에는 거주지가 한성이었다. 이처럼 엄석정은 생원시에 합격하던 1828년과 문과에 급제하던 1844년에 거주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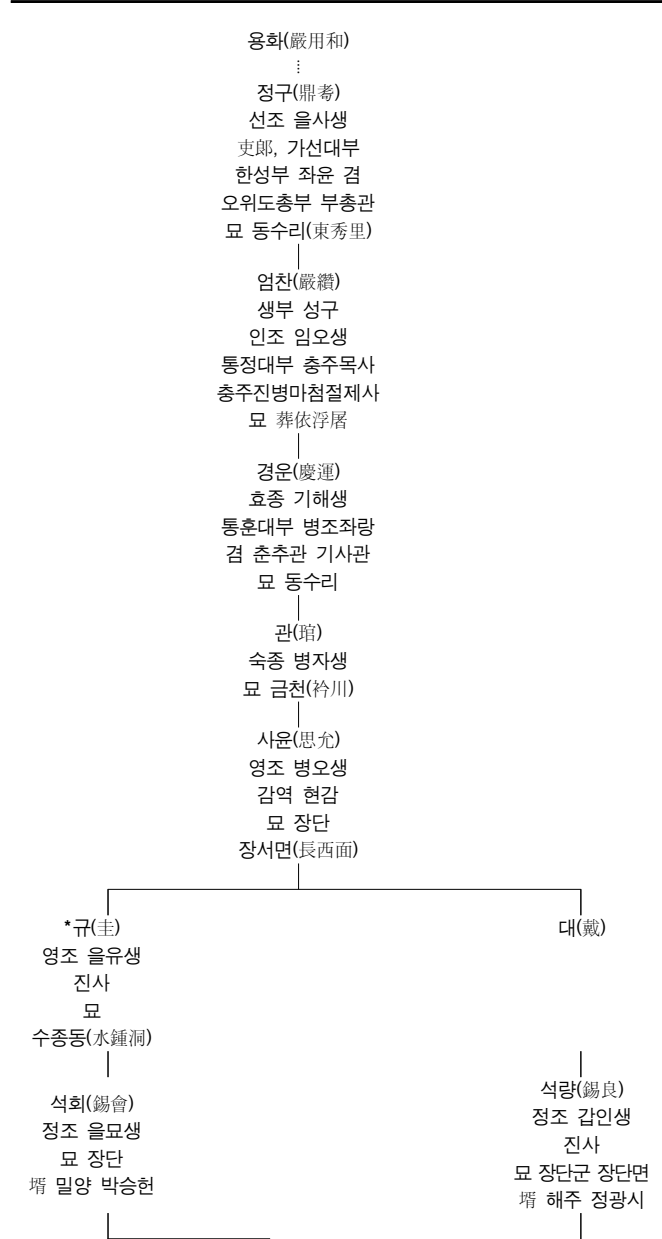
그러나 엄석정의 자손들은 엄석정이 문과에 급제한 1844년 이후에도 여전히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엄석정의 아들 엄돈영과 엄조영의 방목기록을 살펴보면 1852, 1864년에 거주지가 수원이다. 엄석정과 같은 해에 수원에서 살며 문과에 응시하였던 6촌 엄석리도 1833년에 수원에서 살았는데, 이는 시강원에서 새로 제수된 설서(說書) 엄석리가 지금 수원에 있으나, 서연(書筵)을 입직하는 일은 긴요하므로 역마를 타고 속히 오게 하도록 아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sup>46)</sup>

이를 미루어 엄석정이 1844년에 한 때 한성에서 살았으나 그 아들 둘 모두 수원에 거주하였고, 가까운 친척도 수원에서 살았음을 감안하면 한성과 수원에 각각 경제(京第), 향제(鄕第)를 짓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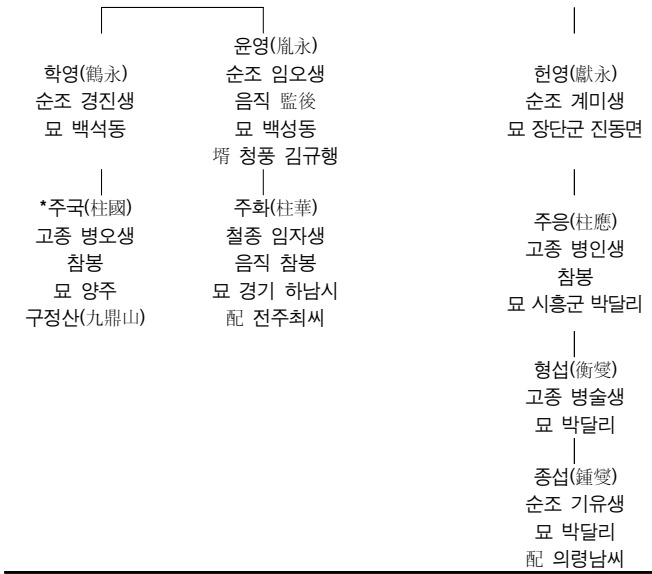
엄돈영은 철종3년(1825) 철종이 건릉·현릉원으로 전알(展謁)하고 유생 응제를 행할 때, 부(賦) 과목에서 수위를 차지한 진사 채과영(蔡果永)과 함께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은택을 받게 되었다.<sup>47)</sup> 채과영은 체제공의 아들로 채과영과 그 아들 채동술은 수원에서 거주하며 과거에 합격한 이들이다. 이 채과영이 엄돈영과 같은 해 응제시에 응시한 것이다. 이후에도 엄돈영은 수원에 있었는데 철종9년(1858)에 홍문관에서 수찬(修撰) 엄돈영이 수원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뢴 기사가 있다.<sup>48)</sup>

영월엄씨의 혼인 관계는 풍천임씨 집안과 연결된다. 엄구의 아들 엄사언은 임빈(任嬪)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 임빈의 아버지는 임수관(任守寬)으로 임수관은 수원출신의 과거합격자인 임희존의 조부이다. 또한 앞서 풍천임씨 편에서 살펴 본 엄기승은 사위가 수원출신 과거 합격자인 임연상의 후손 임영순이며, 엄경섭은 자신의 장인이 수원출신 과거 합격자 임후상의 후손인 임철재(林喆宰)이다.

<표 3-33> 영월엄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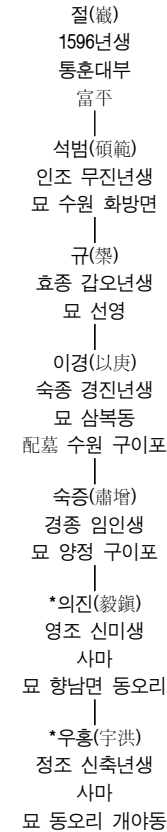


46) 『승정원일기』 순조 33년 4월 8일  
 47) 『조선왕조실록』 철종3년 2월 26일  
 48) 『승정원일기』 철종 9년 3월 10일



13) 청주한씨 공안공파

<표 3-34> 청주한씨 공안공파 ①



한의진, 한우홍 부자는 각기 정조 7년(1783)과 순조 25년(1825)에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우홍 후손들의 묘역 위치는 신유곡(申柳谷), 유곡(柳谷), 화성 봉담읍 수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선대의 묘소는 한절이 인천 즉 부평(富平)에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원 화방면, 삼복동, 화성 양정 구이포, 향남면 동오리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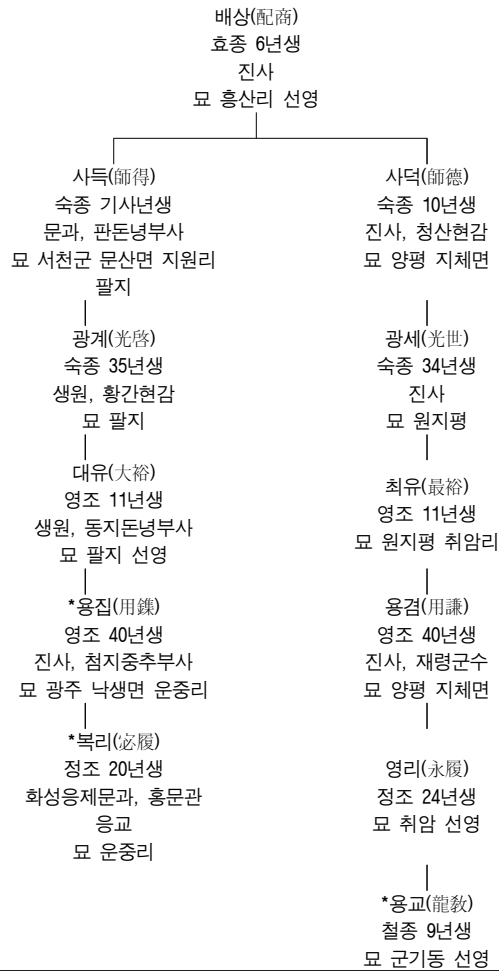
이로 미루어 이 집안은 한절 이후에 수원과 화성으로 이주하여 묘역을 조성하면서 거주해온 집안으로 파악된다.

엄규와 엄주국은 각각 수원출신 진사, 생원 입격자로 엄규의 증손자가 엄주국이다. 엄규는 순조 25년(1825)에, 엄주국은 고종 22년(1885)에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엄규 가문의 묘역을 살펴보면 금천, 장단으로 경기도 일대이다.

엄규의 아들 엄석희에 사위는 밀양 박승헌(朴承獻)으로, 박승헌의 아버지 박일회(朴日會)는 현종 9년(1843)에 거주지가 한성이었다. 엄석희의 아들 엄윤영의 사위는 청풍 김규행(金奎行)으로 김규행은 고종 29년(1892) 문과 합격 당시 거주지가 양주였다. 그러나 김규행의 아버지 김봉호(金鳳鎬), 조부 김서교(金序敎), 증조 김희화(金熙華)는 모두 거주지가 한성이었다. 이렇듯 사위들의 집안은 한성을 중심으로 세거하던 가문으로 엄규와 엄주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수원과 인연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엄규의 집안은 수원출신의 집안들과 관련이 깊다. 엄주국의 사촌 엄주화의 장인은 전주최씨 최승래(崔升來)이다. 최승래는 수원거주 과거합격자인 최정래(崔正來)의 동생이다. 또 풍천임씨 편에서 보았듯이 엄규의 조카 엄석량의 사위는 해주 정광시(鄭匡始)로 정광시의 조모가 임희후의 딸이며, 엄석량의 고손인 엄종섭은 임충호의 사위인 남주희와 매부관계였다.

<표 3-35> 청주한씨 공안공파 ②



한용집, 한복리, 한용교는 23세 한배상을 공통 조상으로 하는 자손들이다. 한배상은 속종 10년(1684) 진사시에 거주지가 한성으로 나오며 한용집의 증조인 한사덕도 영조 14년(1738) 생원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이다.

그러나 한용집 선대의 묘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일대에 있다. 따라서 충청도와 한성을 왕래한 집안으로 보인다.

어느 시기에 이 집안이 수원으로 이주한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용집이 순조 4년(1804)진사시에, 한복리는 순조 28년(1828)에 문과에 급제할 때 거주지가 수원으로 확인된다. 둘은 부자 관계로 한용교가 진사시에 합격한 해에 한복리는 8세였다. 당시 한복리는 어린 나이이었

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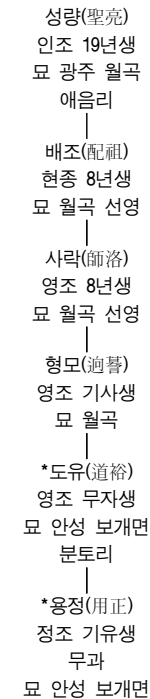
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다. 한복리가 문과에 합격하는 해는 33세이다. 따라서 한복리의 경우 수원에서 나고 자랐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용교 때에는 수원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용교는 철종 10년(1859)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이 당시 거주지가 수원이다. 선대의 묘소는 양평 원지평, 취암리로 양평에 묘가 누대 있었으나 본인 대에 묘가 수원 군기동에 있

으며 용교의 아들 중 명석(命錫)과 그 아들 회수(繪洙)도 묘가 군기동 선영에 있다.

한용겸의 조부 한용겸은 정조 19년(1795) 진사시에서 거주지가 한성이었으며, 고조 한광세는 영조 5년(1729) 한성을 거주지로 하여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마찬가지로 5대조 한사덕도 속종 37년(1711)에 한성출신으로 사마방목에 등장한다. 이를 종합하면 한용교 집안은 한성과 양평에 세거하다가 한용교 당대에 수원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자손들 중 몇몇은 그대로 수원에 정착한 가문으로 추정된다.

<표 3-36> 청주한씨 공안공파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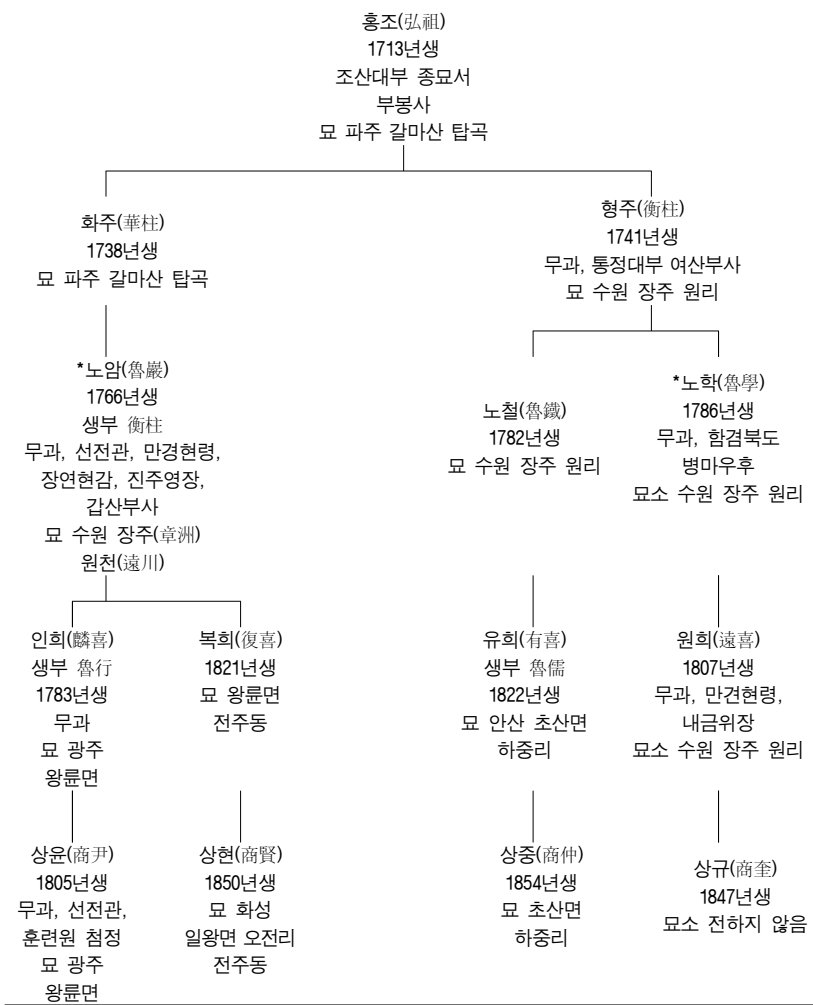
한도유와 한용정은 수원출신 무과 합격자이다. 한도유는 정조 19년(1795)에 화성, 한용정은 순조 13년(1813)에 수원에서 살았다. 한도유, 용정 부자의 선대 묘역을 살펴보면, 한도유의 고조부터 아버지 때까지 경기도 광주에 선영이 한도유의 고조부터 아버지 때까지 조성되었다. 그러나 한도유 본인과 아들 및 이후 자손들의 묘소는 안성이다.

청주한씨 공안공파 인물 중 수원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한의진, 한도유, 한용교, 한용집의 관계를 정리하면, 한도유와 한용집·용교의 공통 조상은 21세 수원(壽遠)이며, 한용집·용교와 한의진의 공통조상은 14세 치인(致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 경주김씨 태사공파 좌랑공후, 계림군파(김도원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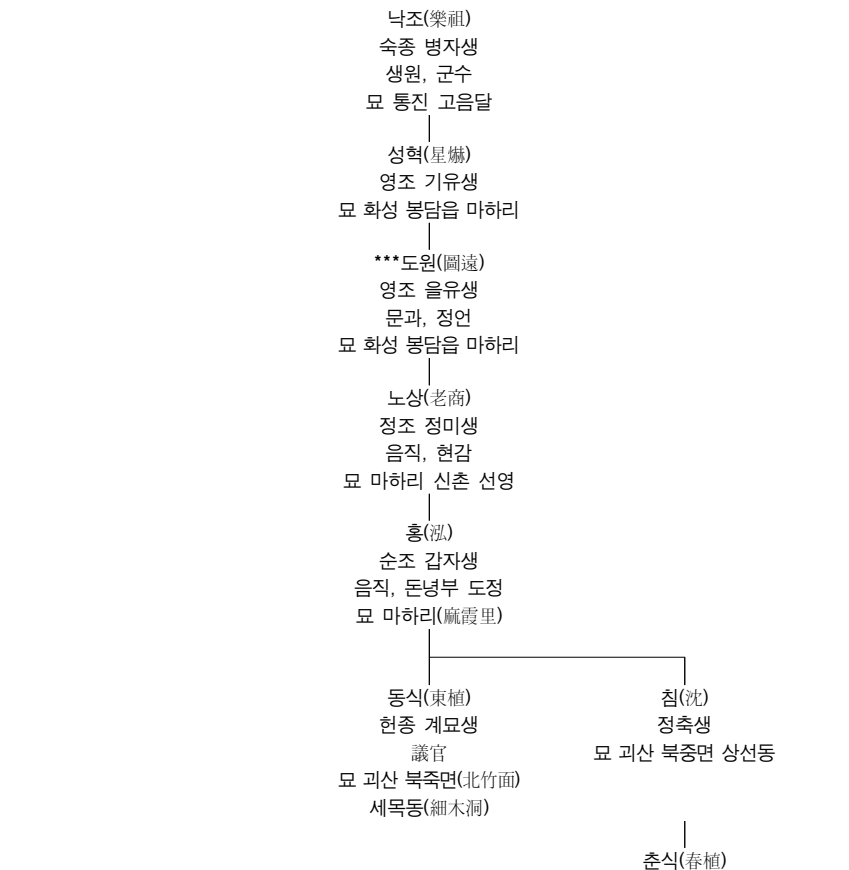
경주김씨 태사공파 계열 중 앞선 송제공계와는 다른 계열인 판관공계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표 3-37> 경주김씨 태사공파(太師公派) 좌랑공후(佐郎公后)



태사공파 판관공계의 김노암과 김노학은 모두 화성을 거주지로 하여 과거에 합격하였다. 김노암은 정조 19년(1795)에 무과에 합격을 하였고, 김노학은 정조 22년(1798) 무과에 급제하는데 방목에는 김노혁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노암의 경우 생부가 형주(衡柱)로 이 둘은 서로 친형제지간으로써 함께 화성 거주자로 과거에 합격한 경우이다. 이들의 선대 분묘 위치를 살펴보면 경기 북부인 파주 갈마산에 묘가 있고, 아버지 김형주의 묘는 수원 장주(章洲)에 조성되었다. 그 이후 김형주의 아들 김노암과 김노철, 김노학의 묘도 수원에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김형주가 처음 수원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김노암과 김노학이 화성 거주자로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8>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②



묘 화성군 봉담면  
수직리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도원은 순조 3년(1803)에 화성 세거자로 문과에 급제한다. 김도원의 수원 거주는 방목 외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에서도 확인된다.<sup>49)</sup> 정조 15년(1791)에 김도원은 수원 유생으로 부(賦) 과목에서 차상(次上)의 성적을 맞아 쌀 5두, 『백력』 1권을 받았다. 순조 4년(1804)에는 승릉참봉(崇陵參奉)이 보고한 내용이 접수되는데 새로 제수된 별검(別檢) 김도원은 바야흐로 수원에 있고, 승릉의 기신제사(忌辰祭享)를 치를 날은 채 하룻밤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기한에 맞추어 올라오기 힘들다고 보고하자 이에 예조에 서 김도원 대신 서울에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구전 차출(口傳差出)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순조에게 여쭙는 기사가 있다.

이상 정조 시기부터 김도원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 유생으로써 응제에 참여하였고, 출사(出仕) 한 후 말은바 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거주지인 수원에 머물렀음이 확인된다.

김도원 선영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조부 김낙조는 통진에 묘가 있으나 아버지 김성혁의 분묘는 화성 봉담읍 마하리에 있고 김도원과 아들 및 손자 대도 묘가 마하리에 있다. 중손 때에는 충청도 괴산에 묘가 조성되나 다시 고손 대에 묘가 화성 봉담면으로 올라온다. 이는 김도원의 집안이 김도원 이후에도 수원에 연고를 가지고, 여타의 지역으로 왕래하였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49) 『일성록』 정조 15년 12월 23일, 『승정원일기』 순조 4년 12월 4일.

15) 반남박씨 오창공파

<표 3-39> 반남박씨

오창공파

세채(世采)

태정(泰正)  
효종 갑오생  
묘 파주 만장리

필렴(弼廉)  
숙종 임신생  
감역

묘 수원 동북면  
장주리

사고(師古)  
숙종 무자생  
묘 동북면

장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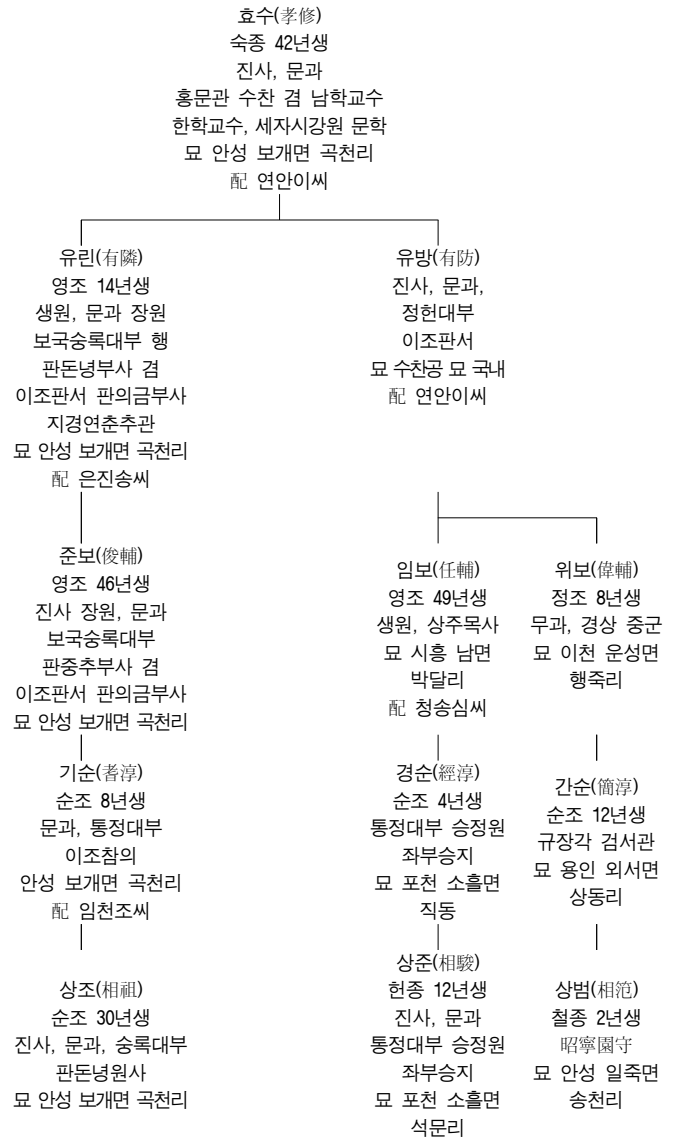
\*정원(景源)  
영조 경진생  
진사

묘 강화 삼흥리

박정원은 순조 3년(1803)에 화성을 거주지로 하여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박정원 조부와 아버지의 분묘는 수원 동북면 장주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박정원 본인의 묘는 강화 삼흥리에 있으며 박정원 후소의 묘는 용인 고매리, 강화 능내리, 파주 광탄면, 강화면 남상도면, 강화 길상면, 김포 등지로 매우 다양한 편이나 대체적으로 강화도에 자리 잡았다. 박정원은 조부 혹은 아버지 대에는 수원으로 이주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대구서씨

<표 3-40> 대구서씨 ①



대구서씨 인물 중 수원과 연고가 있는 가계는 크게 3개로 나뉘볼 수 있다. 모두 14세 서성(徐滯)의 후손들이며, 작계는 16세 서형리(徐亨履)의 후손들과 서진리(徐晉履)의 후손으로 구분 된다.

먼저 살펴볼 20세 서효수는 서형리의 후손이다. 서효수의 직계 후손 중에는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입격 혹은 합격한 사람은 없다. 특히 서효수, 서유린, 서준보 3대는 영조 14년(1738) 진사시부터 정조 18년(1794)까지 과거에 응시하면서 거주지가 한성으로 기입되어 있다.<sup>50)</sup>

그러나 서효수의 후손들은 수원을 거주지로 삼아 과거에 응시하였던 여타의 수원 세거 및 이주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다. 먼저 서효수의 처부는 이언신(李彦臣)이다. 이언신은 앞서 살펴본 연안이씨 금곡공파(琴谷公派) 인물로 영조 3년(1727)에 거주지를 한성으로 하여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이 이언신의 4대손 이학우(李學愚)와 이학우의 아들 5대손 이진익(李震翼)은 수원 출신의 생원이다.

21세 서유린의 장인은 은진 송재희(宋載禧)로, 영조 48년(1772) 거주지를 한성으로 하여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 송재희와 수원출신 과거합격자 송덕인은 모두 송세훈(宋世勳)의 후손이다. 23세 서기순의 장인은 임천 조학은(趙學殷)으로 수원 거주 과거출신자인 조덕수, 조재성과 한 집안이다.

5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송정재무오식년사마방목(崇禎再戊午式年司馬榜目)』, 『을유식년사마방목(乙酉式年司馬榜目)』, 『문음진신보(文陰縉紳譜)』 참조.

〈표 3-41〉 대구서씨 ②

낙수(樂修)  
 숙종 46년생  
 묘 수원 북면  
 육백리(六栢里)  
 |  
 유신(有愼)  
 영조 45년생  
 묘 은양  
 남상면(南上面)  
 유곡리(楡谷里)  
 |  
 인보(麟輔)  
 정조 17년생  
 묘 공주군 유구면  
 신달리  
 配 거창신씨  
 壻 청송 심주택  
 |  
 \*돈순(敦淳)  
 순조 9년생  
 진사  
 묘 평택군  
 청북면(靑北面)  
 토진리(土津里)  
 配嘉 화성 양감면  
 |  
 상천(相天)  
 1857년생  
 진사  
 묘 토진리

서낙수는 16세 서진리의 후손으로 낙수의 증손 서돈순은 헌종 15년(1849)에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서돈순의 아버지는 서인보이며 어머니는 거창 신의묵(愼宜默)의 딸이다.

신의묵은 수원출신 과거합격자인 신의학<sup>51)</sup>과 친형제 관계이다. 또한 서인보의 사위는 청송 심주택(沈周澤)으로 심주택은 고종 28년(1891) 문과에 합격 당시 세거지는 용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종 31년(1894)에 응교(應敎) 심주택이 수원에 살고 있다[在水原]는 심주택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sup>52)</sup> 또한 심주택의 아버지는 심의

윤(沈宜允)인데 심의윤의 묘가 화성 오산면 원리에 있고, 심주택의 분묘 또한 화성 오산면 원리이다. 용인과 수원은 인접한 지역으로 이로 미루어 심의윤과 심주택 부자도 수원에서 분묘를 조성하며 벼슬에 나간 이후에도 수원에서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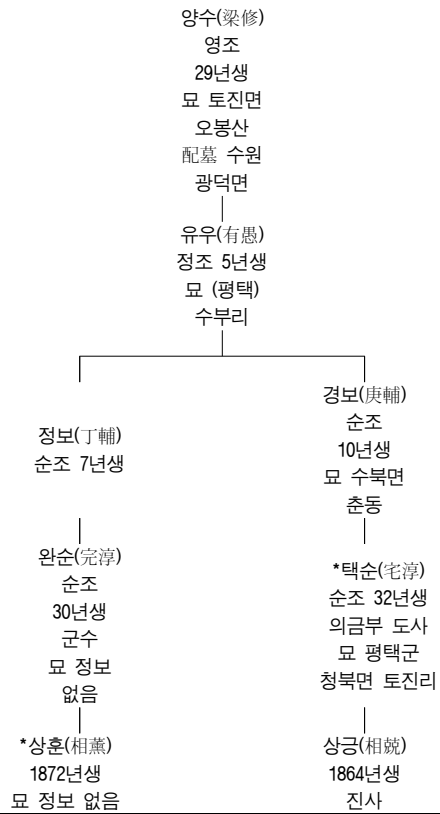
즉 서돈순의 외가는 수원 출신 과거합격자 가문일 뿐 아니라 매부 또한 수원 출신 가문이다. 이러한 영향 아래 서돈순의 가문 또한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입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돈순 가문의 분묘 위치를 살펴보면 20세 서낙수의 묘가 수원 북면 육백리(六栢里)에 위치해 있으나 이 당시부터 수원에 세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서낙수의 아들과 손자의 묘가 충청도 일대에 있고 서돈순 본인의 묘 또한 평택군 청북면(靑北面) 토진리(土津里)으로 수원에 묘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토진리는 수원과 인접 지역으로 수원 관할권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서돈순의 부인의 묘는 화성 양감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수원 인근 지역에서 수원 출신 가문들과 혼인으로 연결되면서 평택에서 묘소를 조성하면서 수원과 평택을 왕래한 가문으로 보인다.

51) 정조 22년(1798) 무오 식년시 문과에 급제.

52) 『승정원일기』 고종31년(1894) 1월 29일.

<표 3-42> 대구서씨 ③



서양수는 서진리의 후손으로 서양수의 3대손 서택순과 4대손 서상훈은 수원 세거 과거급제자 출신이다.

서택순은 고종 22년(1885)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서상훈은 고종 26년(1889)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 들은 20세 서양수의 후손으로 서양수의 묘는 평택 토진면에 있다. 그 이후 자손들의 분묘 위치 또한 평택 청북면, 수북면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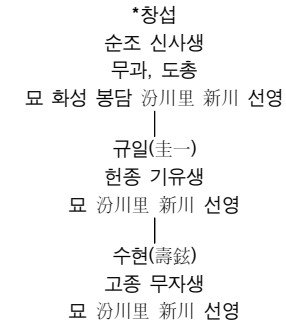
그러나 서양수의 부인 묘소는 수원 광덕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택순과 서상훈 집안이 언제 수원으로 이주하였는지 가늠하기

는 어렵지만 서양수의 부인

사후 즉 서양수의 아들 대 인 서유우 혹은 서양수의 손자 대에는 수원에 세거하면서 모, 또는 조모의 분묘를 수원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오랫동안 수원에 세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택순의 아들 서상금이 고종 22년(1885)에 진사시에 합격하는데 그 당시 세거지는 한성이다. 이로 미루어 서택순 집안은 이미 한성에 경제(京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함양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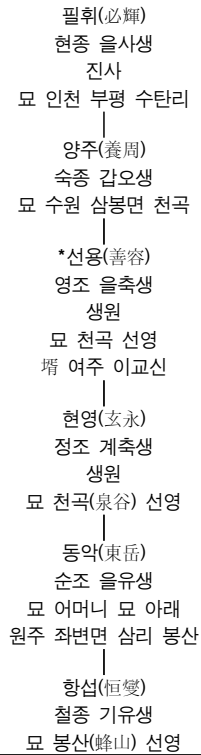
<표 3-43> 함양여씨 ①



여창섭은 함양여씨 26세로 현종 10년(1844) 갑진 증광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여창섭의 묘는 화성 봉담 분천리(汾川里) 신천(新川) 선영에 자리하고 있다. 그 아들과 손자의 묘도 모두 분천리 신천 선영에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표 3-44> 함양여씨 ②



여선용은 순조 3년(1803)에 화성을 세거지로 하여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여선용의 조부 여필휘는 숙종 25년(1699)에 세거지를 한성으로 하여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묘가 인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선용의 선대는 한성과 인천에 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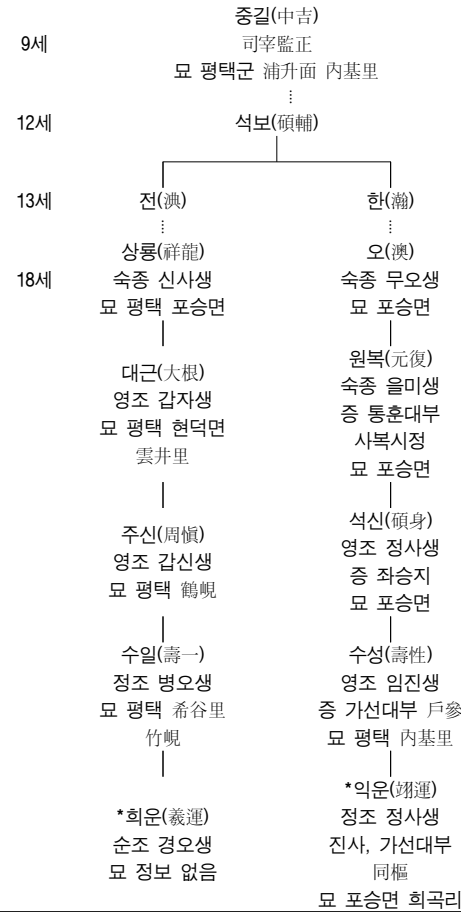
그러나 여선용의 아버지 여양주의 묘는 수원 삼봉면 천곡에 자리하고, 여선용은 수원을 세거지로 과거에 입격하였으며, 여선용의 아들들도 수원에 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양주 대에는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선용의 집안은 수원출신 다른 가문들과도 혼인으로 연결된다. 여선용의 사위는 여주이씨 23세 이교신(李喬新)으로 수원출신 과거합격자를 대거 배출한 17세 이훤(李煊)의 6대손이자 여주이씨 문과 합격자인 이용좌의 숙부이다. 이훤의 아들이자 이교신의 5대조인 이동암(李東巖)의 묘는 용인군 수진면에 있고 3대조인 이수정(李壽鼎)의 묘부터 연달아 화성군 일왕면 학유동(鶴遊洞), 이목리(梨木里)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교신의 아들 이용준(李容俊)의 장인은 풍양 조석존(趙碩存)으로 조석존은 조복양의 후손이다. 조복양은 수원출신 과거합격자이자 재수원(在水原) 인물인 조학년, 조희필, 조희철, 조헌재, 조돈승, 조규년, 조희백, 조희일의 조상이다.

이들 집안은 모두 연고지가 수원이다. 따라서 여선용의 선대가 한성 혹은 인천에서 거주하다 수원으로 이주한 배경에는 이러한 혈연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함평이씨 대교공파

<표 3-45> 함평이씨 대교공파



대교공파 이희운과 이익운은 모두 12세 이석보의 후손으로 이들은 각기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합격, 입격한 자들이다.

이희운은 현종 1년(1835) 무과에 합격하였고, 이익운은 고종 2년(1865)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대교공파의 분묘 위치는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낸 9세 이중길부터 확인되는데, 중길의 후손은 모두 평택 특히 포승면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후 후손들의 묘소 위치도 모두 마찬가지로, 이희운의 후손들은 평택 현덕면에 묘가 있고, 익운의 후손들은 평택 도승면, 석정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포승면은 1914년 행정 개편 때 수원군의 포내면(浦內

面)과 승양면(升良面)이 합쳐진 것으로, 포내면은 『화성지』에 기록되어 있다. 현덕면은 1872년 지방지도 중 수원부지도에서 보인다. 또한 22세 운(運)자 돌림을 쓰는 20촌 사이에서 수원에 세거하면서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수원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포승면, 현덕면에 조성된 분묘를 수호하며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4장 결론

조선의 읍치는 양반 사대부의 세거 공간은 아니었다. 정조는 화성을 별경으로 만들고자 수원 화성이라는 첨단 개혁 신도시를 구축하고 양반 사대부의 세거까지 유도하였으나, 별경의 구상은 무산되었다. 그 이후 수원 읍치는 지방의 여느 큰 고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쇠퇴 내지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수원 읍치 밖 외촌에는 다양한 가문들이 수원에 세거하며 과거에 응시하고,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크게 수원 세거 가문과 수원 이주 가문으로 구분된다.

수원에 세거하던 가문들은 대대로 수원에 선영을 조성하였고, 수원을 근거지로 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며, 그 후손들의 대다수가 수원에 세거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체로 수원의 외촌 지역에 세거하면서 생활 기반인 전장을 운영하고, 출사할 때에는 한양의 경제(京第)에서 생활하였다.

반면 수원으로 이주한 가문들은 타 지역을 근거지로 생활하다가, 당대에 수원을 세거지로 하여 과거에 응시한 가문들이 많다. 이주 가문들의 선조는 주로 한성[京]을 기반으로 세거하며 과거에 응시하다 수원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주 가문의 선영의 위치는 경기도 일대에 걸쳐 있었으며 대체로 수원의 외촌을 포함하여 그 인근 지역인 용인, 진위, 안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이들 가문의 수원 이주는 급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조의 화성 ‘별경’ 조성 정책과 더불어 실시된 수원부내(府內) 유생의 응제시(應製試)에 참여하기 위해 수원에 이주한 경우와 수원 인근 지역에 분묘를 조성하고 수원 출신 과거 합격자 가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 수원으로 이주해온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수원 화성 읍치 및 외촌에 세거하였던 ‘수원 사람’ 들은 전근대 시기 수원을 이끌던 주요 인물들이며, 현재까지도 이들의 후손 중 일부는 수원, 화성 일대에 동족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수원 신읍치 건설과 함께 수원의 위상이 격상되는 정조대와 수원에 세거 및 이주한 가문들 간의 관계를 그 가문들의 세거 변화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수원 이주 가문 중에는 정조가 실시한 응제시에 참여한 가문이 많으며 이들의 후손은 다시 본래의 세거지인 한성, 경기, 충청도 일대로 돌아간 경우도 있으나, 정조의 서거 이후 수원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던 후대에도 수원의 외촌에 정착하며 세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수원 지역 주요 양반 가문의 세거 양상만 조감하였을 뿐, 그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 혹은 중앙의 인사들과 어떠한 교류 양상을 보였고, 그들의 주요 행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살펴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이 한말~근대 전환 시기에 수원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애당초 전근대 시기 수원 지역 주요 가문을 추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했던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의 연구에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체로 전근대 수원 지역 양반 가문 인사들은 수원 지역 사회와 긴밀히 결합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원이라는 향촌의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한양에서 출사하여 중앙 관료로서 활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대 전환기에 어떻게 수원 지역 사회에 기여하였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반면, 수원의 근대를 이끈 인사들은 전통적인 양반 가문보다는 중인 이하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흥 가문들로서 수원 지역의 근대 문물 발달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말~근대 시기 수원 지역 양반 가문 인사들의 면면과 그 활동상은 어떠하였으며, 이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회 주도층으로 성장한 인사들의 가문적 연원과 세거 양상 및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 참고 문헌 |

### <한문 자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동보(慶州金氏鷄林君派大同譜)』
- 『경주김씨 태사공파 대동보(慶州金氏太師公派大同譜)』
- 『광산김씨 세보(光山金氏世譜)』
- 『기계유씨 족보(杞溪俞氏族譜)』
- 『나주정씨 세보(羅州丁氏世譜)』
- 『대구서씨 세보(大丘徐氏世譜)』
- 『덕수이씨 세보(德水李氏世譜)』
- 『동래정씨 족보(東萊鄭氏族譜)』
- 『반남박씨 세보(潘南朴氏世譜)』
- 『배천조씨 대동세보(白川趙氏大同世譜)』
- 『안동권씨 족보(安東權氏族譜)』
- 『안동권씨 참의공파보(安東權氏參議公派普)』
- 『여주이씨 세보(驪州李氏世譜)』
- 『연안이씨 세보(延安李氏世譜)』
- 『영월엄씨 대동보(寧越嚴氏大同譜)』
- 『청송심씨 대동세보(靑松沈氏大同世譜)』
- 『청주한씨 세보(淸州韓氏世譜)』
- 『평강채씨 세보(平康蔡氏世譜)』
- 『풍양조씨 세보(豐壤趙氏世譜)』
- 『풍천임씨 세보(豐川任氏世譜)』
- 『한양조씨 대동세보(漢陽趙氏大同世譜)』
- 『함양여씨 세보(咸陽呂氏世譜)』
- 『함평이씨 대동보(咸平李氏大同譜)』
- 『해남윤씨 덕정동 병조참의공파 세보(海南尹氏德井洞兵曹參議公派世譜)』
- 『해주오씨 대동보(海州吳氏大同譜)』
- 『해풍김씨 세보(海豐金氏世譜)』
- 『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 『승정재무오식년사마방목(崇禎再戊午式年司馬榜目)』
- 『승정원일기』
- 『을유식년사마방목(乙酉式年司馬榜目)』
- 『일성록』
- 정조 19년(1795) 조상존 준호구
- 정조 21년(1797) 조상존 준호구
- 『조선왕조실록』

### <국문 자료>

- 김세영 등, 『수원시 읍전동지』, 수원문화원, 2005.
  - 허흥범 등, 『수원의 동쪽마을』, 수원시, 2006.
  - 왕현중 등, 『화산동지』, 화성시, 2006.
  - 허흥범,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문서』, 화성시, 2008.
  - 정해은 등,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무신의 길, 그 오백년의 발자취』, 화성시·화성문화원, 2008.
  - 이동근 등, 『수원시 북수원지』, 수원박물관, 2010.
  - 이근호 등,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화성문화원, 2010.
  - 장필기 등, 『분화천에 뿌리 내린 장군의 후예 함평이씨 함성군파 종손가』, 화성시·화성문화원, 2011.
  - 김용국 등, 『수원시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 김민석 등, 『서둔동·탑동지』, 수원박물관, 2013.
  - 이상균 등, 『수성최씨 한림공파 진사공 후손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흔들리니』, 화성시, 2013.
  - 수원시사 편,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홍익문화사, 2014.
  - 정해은 등, 『최고의 무장, 외로운 무신 화성 무신의 삶과 역사』, 화성시 향토박물관, 2014.
  -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구상」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수원시정연구원, 2016.
- <전자 자료>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안산문화대전(<http://ansan.grandculture.net/?local=ansa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저자 약력 |

최성환

문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evet@hanmail.net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兩京 구상」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2016, 수원시정연구원)

「정조의 의리탕평과 황극의 리더십」 (2016, 수원시정연구원)

